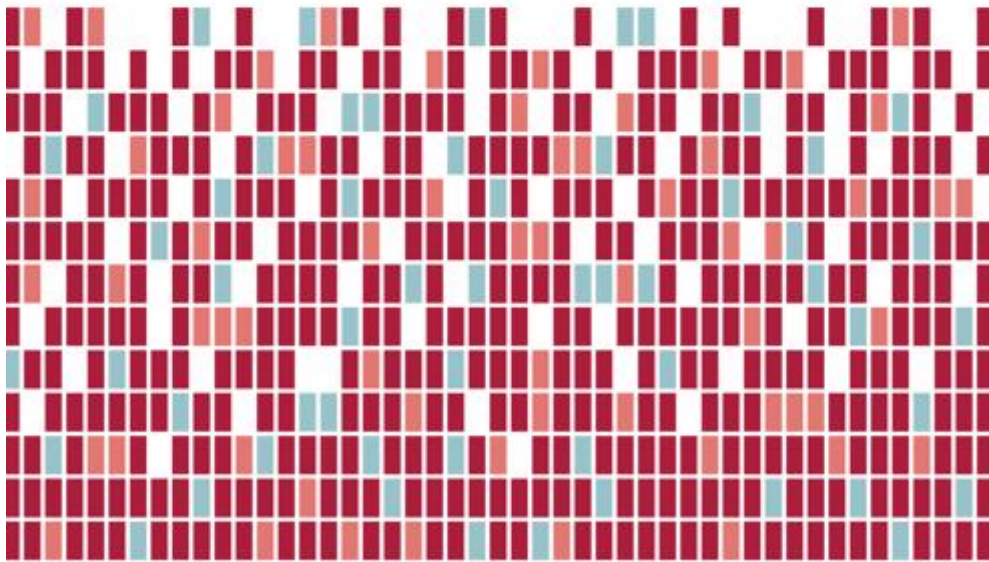


2021 제12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본 자료집은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에 의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 연구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행기 조사결과 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구진
책임연구원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성기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설문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발행처 한국방정환재단
발행일 2021년 12월
전화 02-322-5515
팩스 02-322-5452
이메일 happy@children365.or.kr
누리집 <https://children365.or.kr/>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3길 5 솔밤3층 (우 04309)

목차

제1장 연구결과 요약	9
I.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11
II. 물질·개인·관계적 가치와 주관적 행복	16
III.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18
제2장 연구방법 및 내용	21
I. 조사설계	23
1. 개요	23
2. 조사설계	23
3. 표본 특성	24
4. OECD 자료	24
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30
1.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30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30
제3장 OECD 행복지수	34
I. 물질적 행복	35
1. 상대적 빈곤	35
2. 미취업 가정	36
3. 결핍	37

II. 보건과 안전	39
1. 영아건강	39
2. 예방접종	39
3. 사고사	44
III. 교육	45
1. 학업성취	45
2. 교육참여	48
3. 청소년 실업	49
4. 고용으로의 전환	50
IV. 가족과 친구관계	51
1. 가족구조	51
2. 부모관계	53
3. 친구관계	55
V. 행동과 생활양식	56
1. 건강행동	56
2. 위험행동	60
VI. 주관적 행복	65
1. 건강	65
2. 학교생활	67
3. 개인 행복	68
제4장 물질·개인·관계적 가치와 주관적 행복	71
I.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 점수	73
II. 2009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유형 분석	74
III. 2021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유형 분석	78

제5장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81
I. 코로나19 시기 가정 학습환경 및 가족과의 생활	83
1. 가정 내 온라인 학습여건	83
2. 코로나19 이후 가족과의 생활	85
II. 코로나19 이후 등교일수 및 학업 스트레스	88
1.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88
2.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업 스트레스	89
III.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격차	92
1.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증가/감소/유지 비율	92
2.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분 단위 환산	94
IV. 코로나19와 계층별 격차: 2018~2021 비교 분석	96
1. 코로나-19 전후 사교육 시간 변화: 2018, 2019, 2021년 조사자료 분석	96
2. 코로나-19 전후 주관적 경제수준별 성적 격차	97
부록1. 설문지	115
부록2. 1922~1923 어린이날 선언	135

표목차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11
표1-2.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12
표1-3.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주관적 행복	14
표1-4.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부모 및 친구관계	14
표1-5. 200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16
표1-6. 201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16
표2-1. 설문조사의 개요	23
표2-2. 표본 특성	24
표2-3.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25
표2-4. 과거 연도별 행복지수 계산에 사용한 자료	27
표2-5.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I)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31
표4-1. 200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73
표4-2. 2021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73

그림목차

그림1-1.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12
그림1-2.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 변화 추이	13
그림1-3. 주관적 행복 세부 요소의 응답비율 변화추이	13
그림1-4. 2021년 주관적 행복도 세부 항목별 한국과 OECD통계 비교1	15
그림1-5. 2021년 주관적 행복도 세부 항목별 한국과 OECD통계 비교2	15
그림1-6. 2009년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가치별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	17
그림1-7. 2009년 교급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17
그림1-8. 2021년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가치별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	17
그림1-9. 2021년 교급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17
그림1-10.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생활	18
그림1-11.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18
그림1-12.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19
그림1-13.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1	19
그림1-14.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2	19
그림1-15.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3	20
그림3-1. 국가별 상대적 빈곤	35
그림3-2. 미취업 가정	36
그림3-3. 교육여건	37
그림3-4. 문화적 결핍	38
그림3-5. 영아사망률	39
그림3-6. 저체중아	40
그림3-7. 홍역 예방접종	41
그림3-8. 소아마비 예방접종	42
그림3-9. DPT 예방접종	43
그림3-10. 아동사고사	44
그림3-11. 읽기시험 점수	45
그림3-12. 수학시험 점수	46
그림3-13. 과학시험 점수	47
그림3-14. 학업유지	48
그림3-15. 실업상태	49

그림3-16. 미숙련 일자리	50
그림3-17. 홀부모가정	51
그림3-18. 의붓가정	52
그림3-19. 함께 식사하기	53
그림3-20. 함께 대화하기	54
그림3-21. 친절한 급우관계	55
그림3-22. 아침식사	56
그림3-23. 과일섭취	57
그림3-24. 과체중	58
그림3-25. 운동	59
그림3-26. 흡연	60
그림3-27. 음주	61
그림3-28. 마약	62
그림3-29. 성관계	63
그림3-30. 임신과 출산	64
그림3-31. 주관적 건강	65
그림3-32. 학교생활 만족	66
그림3-33. 삶의 만족	67
그림3-34. 소속감	68
그림3-35. 어울림	69
그림3-37. 외로움	70
그림4-1. 2009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	74
그림4-2. 2009년 교급 별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	74
그림4-3.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가치별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	75
그림4-4. 2009년 교급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75
그림4-5. 2009년 교급별 행복점수 하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76
그림4-6. 2021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	77
그림4-7. 2021년 교급별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	77
그림4-8. 2021년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가치별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	78
그림4-9. 2021년 교급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79
그림4-10. 2021년 교급별 행복점수 하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79

그림5-1. 가정 내 온라인 학습여건	83
그림5-2. 교급별 가정 내 온라인 학습여건	83
그림5-3.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가정 내 온라인 학습여건	84
그림5-4.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85
그림5-5. 교급별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어머니와 연락	85
그림5-6. 교급별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아버지와 연락	86
그림5-7. 교급별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연락	86
그림5-8. 교급별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86
그림5-9.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전체 및 교급별 평균	88
그림5-10.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88
그림5-11.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전체 및 교급별 추이	89
그림5-12.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90
그림5-13. 초등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90
그림5-14. 중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91
그림5-15. 고등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91
그림5-16.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92
그림5-17. 초등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92
그림5-18. 중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93
그림5-19. 고등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93
그림5-20.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전체 및 교급별	94
그림5-21.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1	94
그림5-22.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2	96

제1장 연구결과 요약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1.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2년전 대비 9점 감소하여 최하위

- OECD 22개 국가 중 22위
 - 2021년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79.50점, OECD 최하위
 - 세부 지표 중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은 OECD 국가 중 꼴찌, 외로움은 뒤에서 2번째 기록
 - 반면, '돈', '성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매우 또는 대체로 행복' 응답 가장 적어
 - 그러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건강', '가족'보다 '돈', '성적 향상'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응답 증가.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순위	주관적 행복		가족과 친구관계		보건과 안전		물질적 행복		교육		행동과 생활양식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1위	네덜란드	115.21	이탈리아	118.84	스웨덴	117.18	핀란드	113.64	폴란드	117.82	대한민국	118.99
2위	노르웨이	114.58	대한민국	117.54	노르웨이	114.43	덴마크	110.52	네덜란드	114.27	네덜란드	115.36
3위	스페인	113.98	네덜란드	114.36	아이슬란드	113.55	폴란드	109.91	포르투갈	111.59	아일랜드	110.64
4위	오스트리아	111.78	노르웨이	110.06	대한민국	109.32	체코	109.30	벨기에	111.31	아이슬란드	110.22
5위	덴마크	108.79	포르투갈	107.74	일본	108.72	대한민국	108.81	아일랜드	110.38	포르투갈	109.55
6위	그리스	106.50	스위스	107.38	덴마크	106.07	오스트리아	106.93	체코	107.97	스위스	105.57
7위	아이슬란드	105.09	덴마크	105.70	핀란드	105.93	포르투갈	105.57	대한민국	106.77	덴마크	105.00
8위	스웨덴	105.04	아일랜드	103.69	스페인	105.44	헝가리	104.94	노르웨이	105.31	스페인	104.14
9위	스위스	104.35	스페인	100.73	스위스	105.05	스웨덴	104.10	호주	102.79	벨기에	103.34
10위	독일	103.54	아이슬란드	100.00	네덜란드	102.39	그리스	100.01	덴마크	102.78	오스트리아	98.84
11위	아일랜드	102.44	스웨덴	99.87	아일랜드	102.08	네덜란드	99.67	핀란드	100.39	캐나다	97.60
12위	이탈리아	97.59	벨기에	97.74	독일	101.87	독일	99.43	뉴질랜드	99.81	스웨덴	97.31
13위	포르투갈	94.93	독일	97.73	헝가리	101.58	아일랜드	97.11	독일	99.80	프랑스	95.37
14위	헝가리	96.56	헝가리	97.35	체코	100.82	스페인	96.50	스웨덴	99.62	폴란드	94.39
15위	핀란드	95.79	핀란드	96.50	호주	100.14	영국	96.11	미국	99.39	핀란드	93.48
16위	프랑스	95.72	오스트리아	93.54	그리스	100.02	이탈리아	94.60	아이슬란드	98.36	독일	92.07
17위	폴란드	93.41	프랑스	93.38	벨기에	99.52	벨기에	94.56	프랑스	97.99	영국	92.07
18위	영국	91.21	그리스	92.59	이탈리아	99.50	프랑스	90.72	스위스	94.34	체코	89.51
19위	캐나다	90.38	폴란드	92.32	프랑스	96.88	호주	87.11	캐나다	93.92	이탈리아	84.69
20위	벨기에	88.47	영국	85.41	영국	95.67	미국	70.45	영국	91.05	헝가리	81.84
21위	체코	83.14	캐나다	84.44	포르투갈	90.20			그리스	86.78		
22위	대한민국	79.50	체코	83.10	캐나다	89.83			오스트리아	84.79		
23위					오스트리아	89.31			이탈리아	81.53		
24위					폴란드	88.83			헝가리	81.24		
25위					뉴질랜드	83.18						
26위					미국	72.51						

* 괄호 안의 숫자는 평균 100점, 표준편차 10을 기준으로 한 표준점수를 뜻함.

* 점수가 없는 국가는 가용한 데이터의 부재로 순위에서 빠짐

그림1-1.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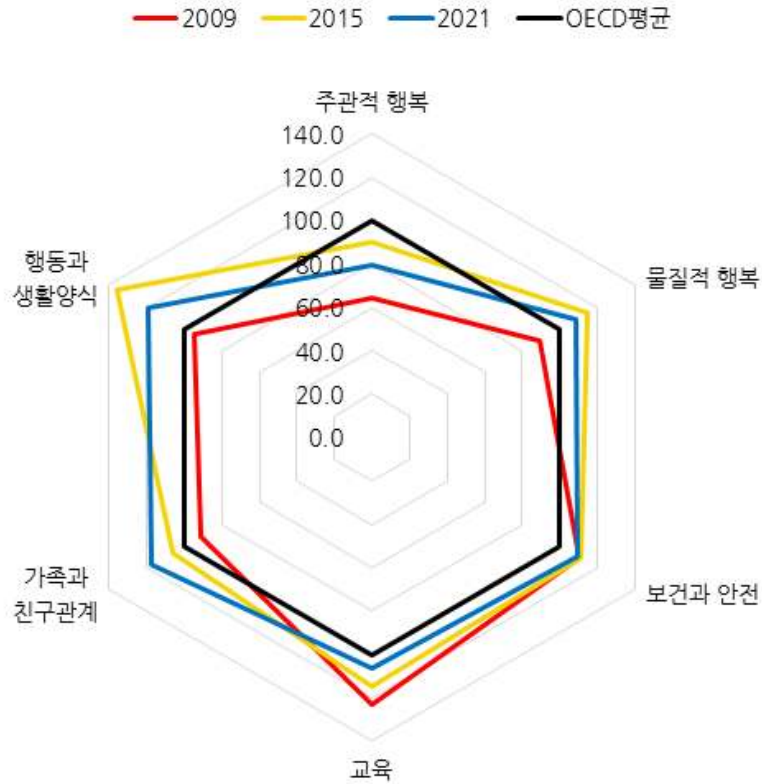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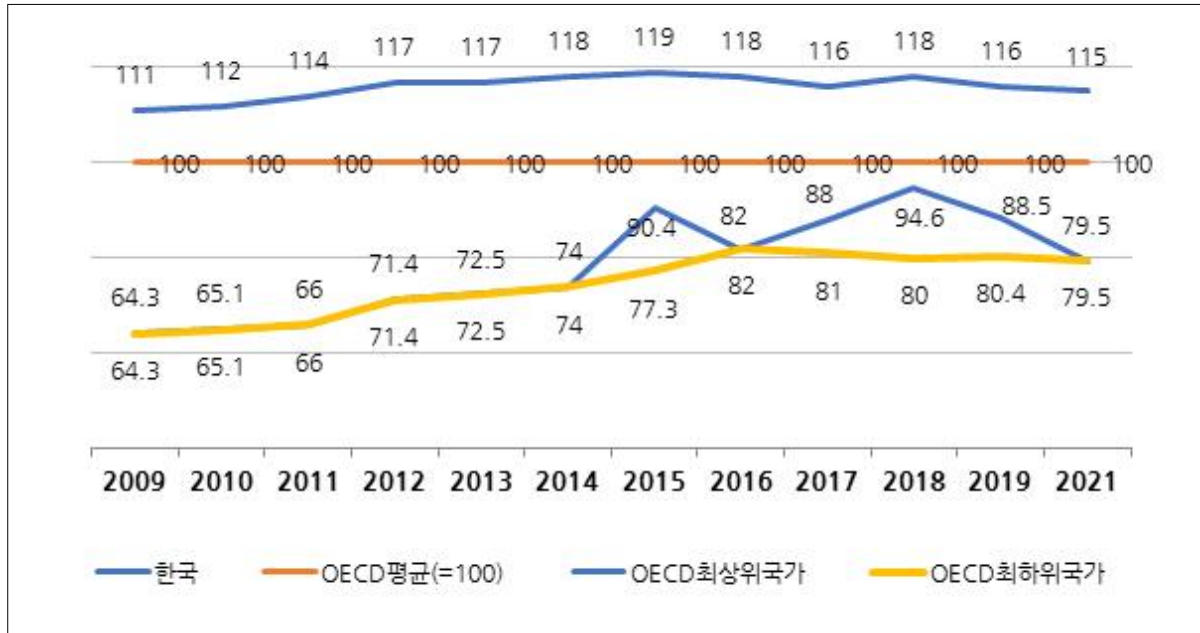


표1-2.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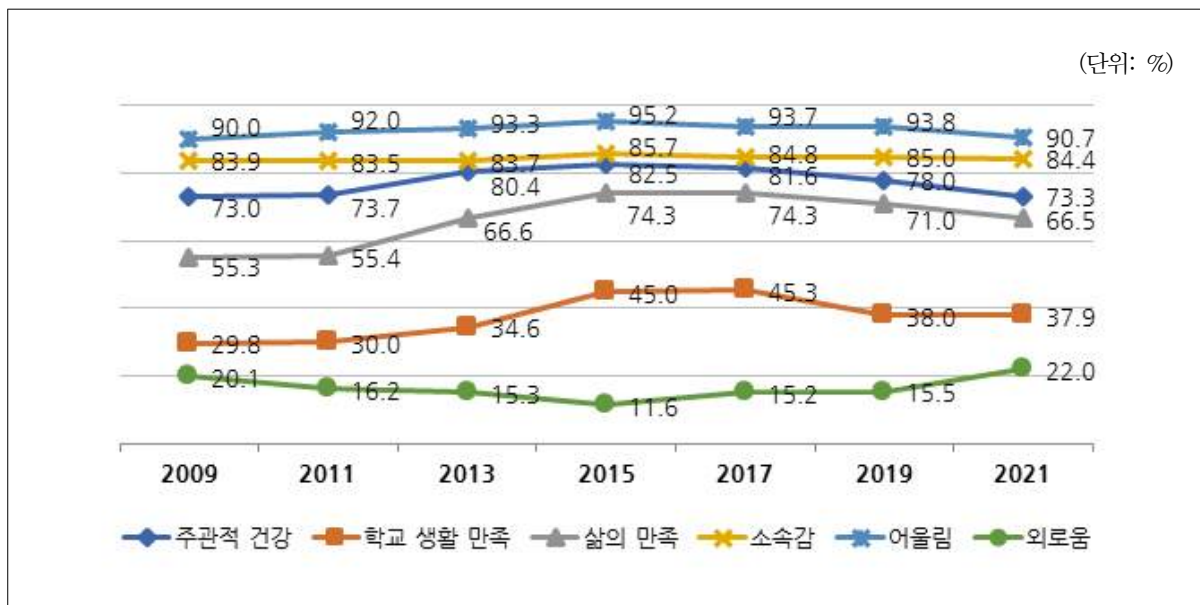
	주관적 행복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2009	64.3	89.1	110.5	123.4	91.6	95.1
2010	65.1	96.9	104.2	109.6	99.4	129.2
2011	66.0	110.7	102.6	127.8	96.1	129.3
2012	71.4	110.1	102.6	133.9	96.7	126.6
2013	72.5	110.8	108.4	123.0	95.1	129.1
2014	74.0	111.9	111.1	122.2	98.9	128.8
2015	90.4	114.4	110.7	114.5	106.1	135.7
2016	82.0	112.4	113.0	114.5	104.8	129.8
2017	87.6	115.3	112.5	112.0	111.9	126.4
2018	94.7	114.2	110.7	107.9	114.5	127.1
2019	88.5	108.6	111.8	108.7	114.9	121.2
2021	79.5	108.8	109.3	106.8	117.5	119.0

그림1-2.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 변화 추이



* OECD 평균을 100, 표준편차를 10으로 표준화시킨 점수

그림1-3. 주관적 행복 세부 요소의 응답비율 변화추이



- *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혹은 '다소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삶의 만족: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 혹은 '다소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소속감: 소속감을 '매우 느낀다', '다소 느낀다', 혹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적응: 주변사람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 '다소 잘 어울린다', 혹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외로움: '다소 외롭다' 또는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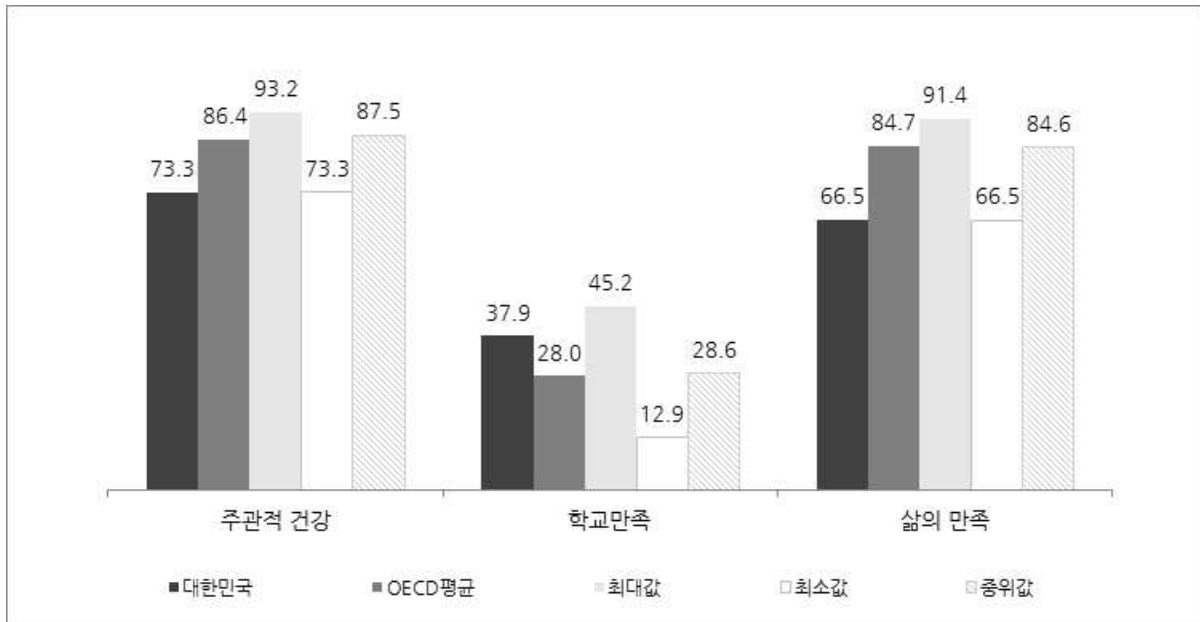
표1-3.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나쁨	학교 생활 만족	삶에 만족	소속감 못 느낌	주변상황 적응 못함	외로움
2009	24.4	29.4	55.4	10.1	8.2	20.1
2010	26.5	27.0	53.9	18.3	7.7	16.7
2011	26.2	30.3	55.4	15.9	7.2	16.2
2012	22.6	34.0	63.6	11.5	6.3	16.1
2013	19.6	35.6	66.6	16.3	6.7	15.3
2014	20.0	37.6	67.6	13.0	5.7	18.0
2015	17.5	45.0	74.3	14.3	4.78	11.6
2016	18.9	43.7	73.2	14.5	6.5	13.9
2017	18.4	45.3	74.3	15.2	6.3	15.2
2018	18.5	43.7	72.0	14.3	6.2	15.1
2019	21.5	38.0	71.5	15.0	6.2	15.5
2021	26.7	37.9	66.5	15.6	9.4	22.0

표1-4.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부모 및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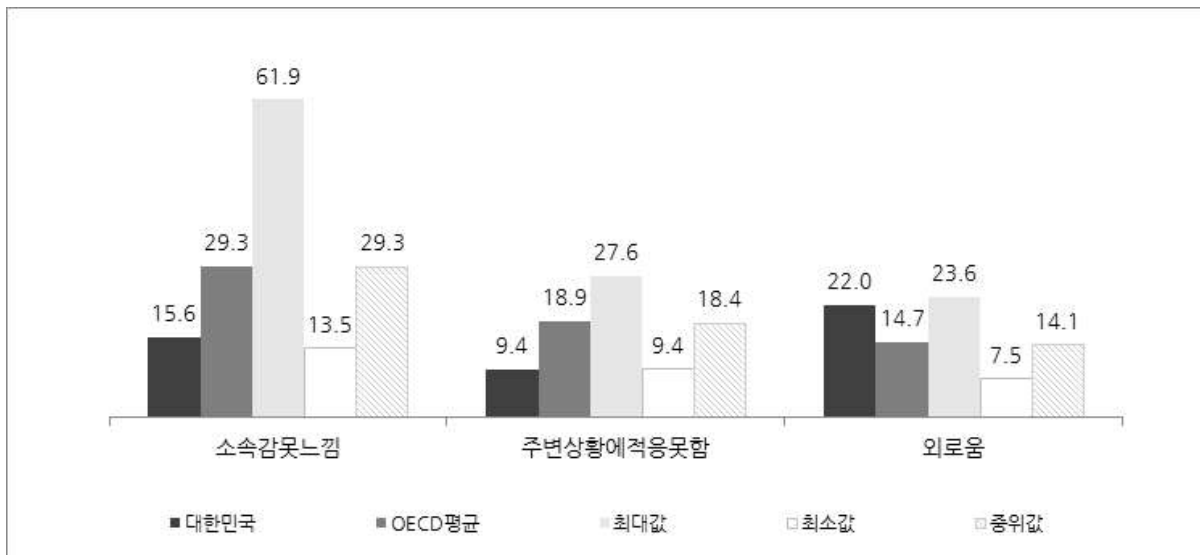
	홀부모 가정	의붓 가정	부모와 식사	부모와 대화	친절한 급우 관계
2009	6.1	1.8	68.4	58.3	59.6
2010	11.5	2.5	58.8	66.4	67.8
2011	9.5	2.2	53.2	41.9	70.9
2012	11.0	2.0	54.7	43.1	69.9
2013	8.9	2.0	50.6	41.2	66.1
2014	7.5	1.9	59.6	44.2	66.0
2015	6.2	0.7	59.7	47.1	77.2
2016	6.8	2.0	57.4	44.7	71.4
2017	8.5	1.6	69.5	53.9	75.0
2018	8.5	1.3	60.2	76.8	73.2
2019	8.6	1.1	59.9	82.2	67.0
2021	7.4	1.0	71.6	87.6	63.1

그림1-4. 2021년 주관적 행복도 세부 항목별 한국과 OECD통계 비교1



- *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혹은 '좋다'고 응답한 비율
- * 학교 생활 만족: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삶의 만족: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 혹은 '다소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1-5. 2021년 주관적 행복도 세부 항목별 한국과 OECD통계 비교2



- * 소속감: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 * 적응: 주변사람들과 주변 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 * 외로움: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Ⅱ. 물질·개인·관계적 가치와 주관적 행복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이 **개인적, 물질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았다**

-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이 개인적, 물질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높았다. 관계적 가치의 하위 항목은 ‘동성친구’, ‘이성친구’, ‘화목한 가족’으로 구성되며, 개인적 가치에는 ‘건강’, ‘자유’, ‘종교’, ‘시간’ 등이 포함되고, 물질적 가치에는 ‘돈’, ‘성적 향상’, ‘자격증’이 포함되었다. 2009년 대비, 2021년에 ‘개인적 가치’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믿는 학생들의 비율은 약 1% 증가하였으며,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의 비율은 약 11% 줄어든 반면, 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학생은 약 10% 증가하였다.
- 이러한 양상은 교급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행복을 위해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고,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1-5. 200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단위 : 명, %)

2009년		주관적 행복점수(0~5점)		
		3점 이하	3점 초과 ~ 5점 이하	합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물질적 가치 (평균점수: 3.46)	503 (9.2%)	1,089 (19.9%)	1,592 (29.1%)
	개인적 가치 (평균점수: 3.57)	398 (7.3%)	1,061 (19.4%)	1,459 (26.6%)
	관계적 가치 (평균점수: 3.79)	451 (8.2%)	1,973 (36.0%)	2,424 (44.3%)
	합계	1,352 (24.7%)	4,123 (75.3%)	5,475 (100%)

* Pearson chi2(2) = 94.3374, p = 0.000

표1-6. 2021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단위 : 명, %)

2021년		주관적 행복점수(1~5점)		
		3점 이하	3점 초과 ~ 5점 이하	합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물질적 가치 (평균점수: 3.65)	662 (9.6%)	2,014 (29.1%)	2,676 (38.6%)
	개인적 가치 (평균점수: 3.87)	337 (4.9%)	1,594 (23.0%)	1,931 (27.9%)
	관계적 가치 (평균점수: 3.99)	309 (4.5%)	2,016 (29.1%)	2,325 (33.5%)
	합계	1,308 (18.9%)	5,624 (81.1%)	6,932 (100%)

* (Pearson chi2(2) = 110.0183, p = 0.000)

* 2021 응답자 중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기타'라고 답한 335명 제외

그림1-6. 2009년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가치별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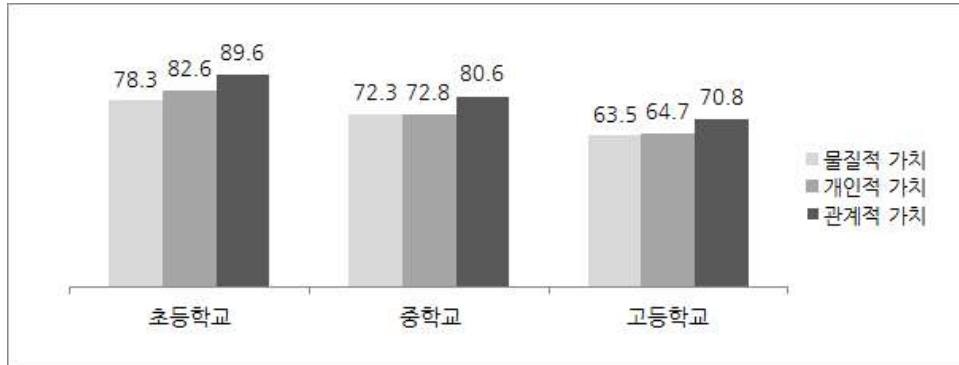


그림1-7. 2009년 교급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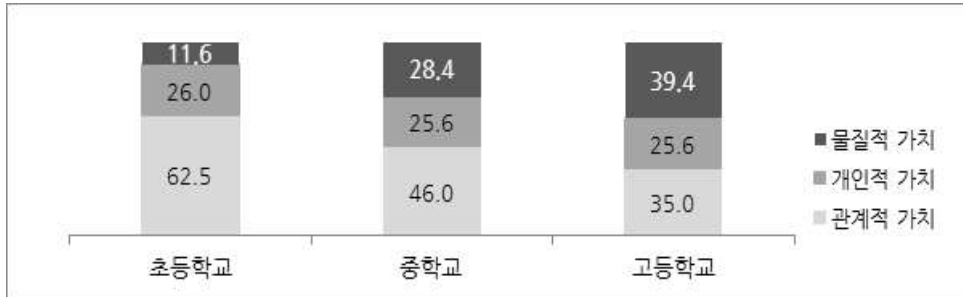


그림1-8. 2021년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가치별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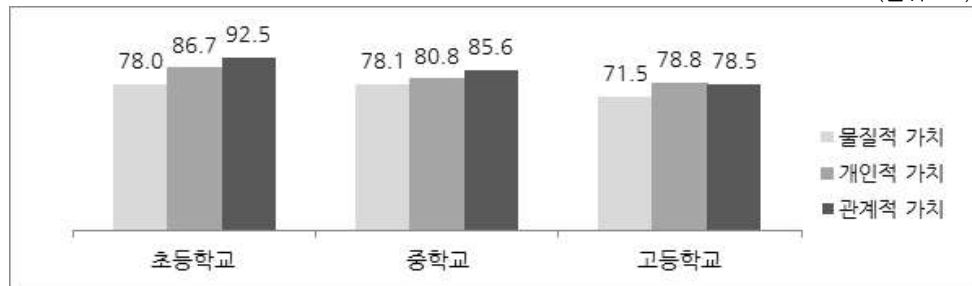


그림1-9. 2021년 교급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단위: %)



Ⅲ.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생활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이전이 낫다는 응답과 이후가 낫다는 응답 비율은 비슷하였다. 다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코로나19 이후인 지금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이전이 낫다는 응답 비율의 2배를 넘었다.

그림1-10.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생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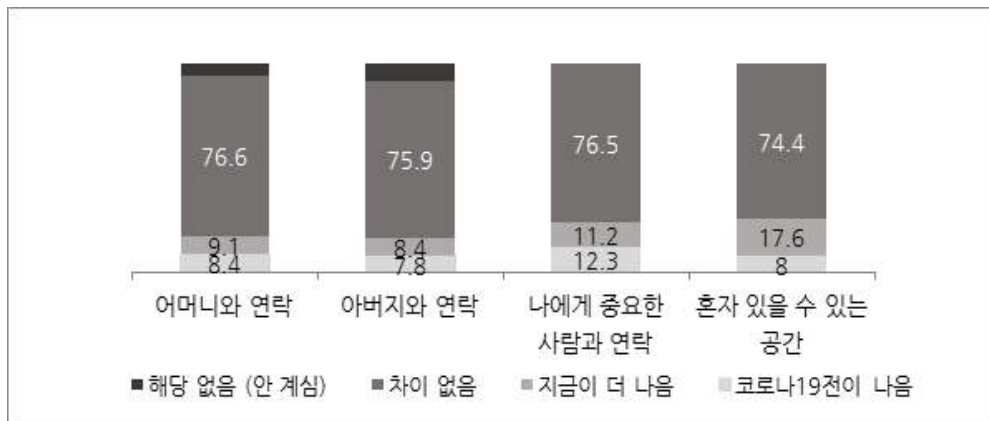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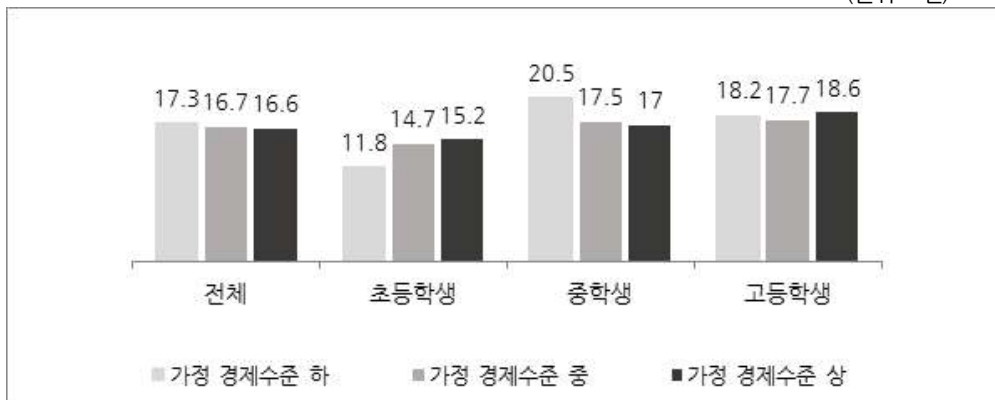


그림1-11.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전체 및 교급별 평균

(단위 : 일)



- 또한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등교일수가 감소하였지만 교급별 양상은 매우 상이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가정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사교육 시간 역시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1-12.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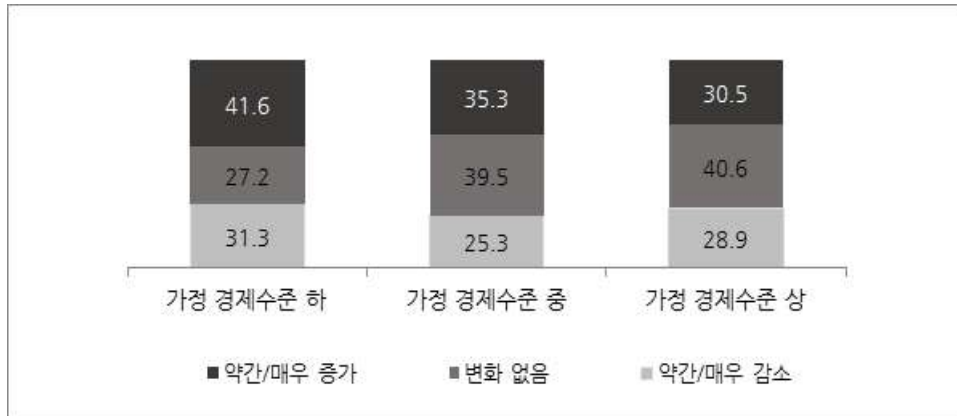


그림1-13.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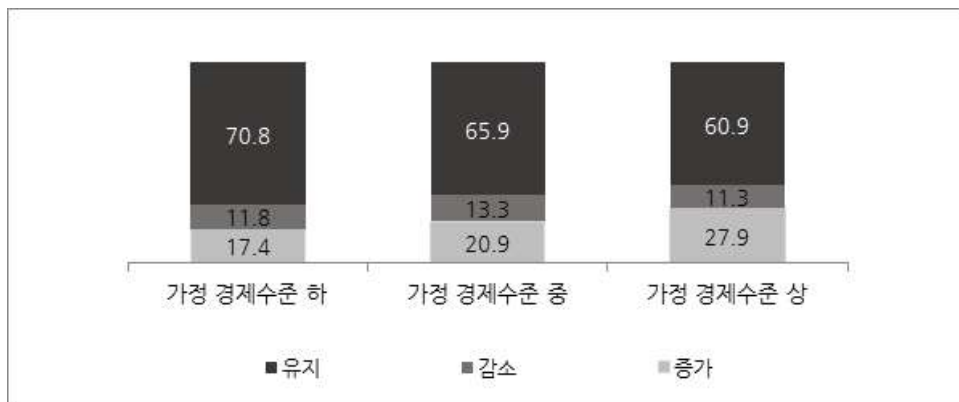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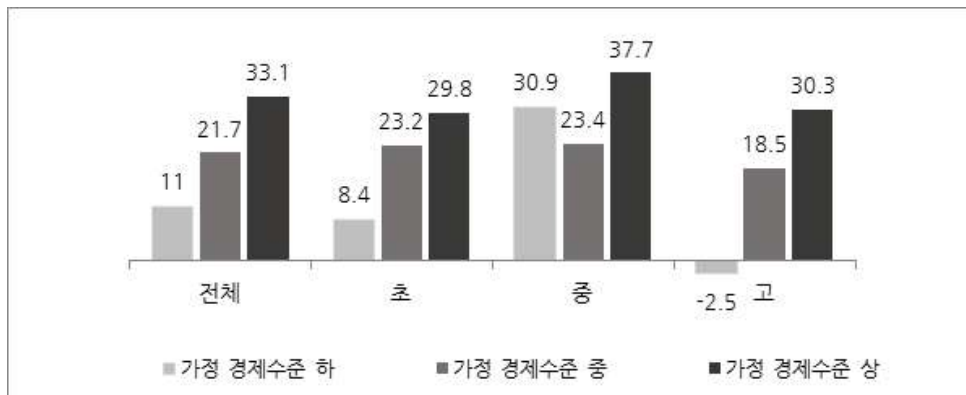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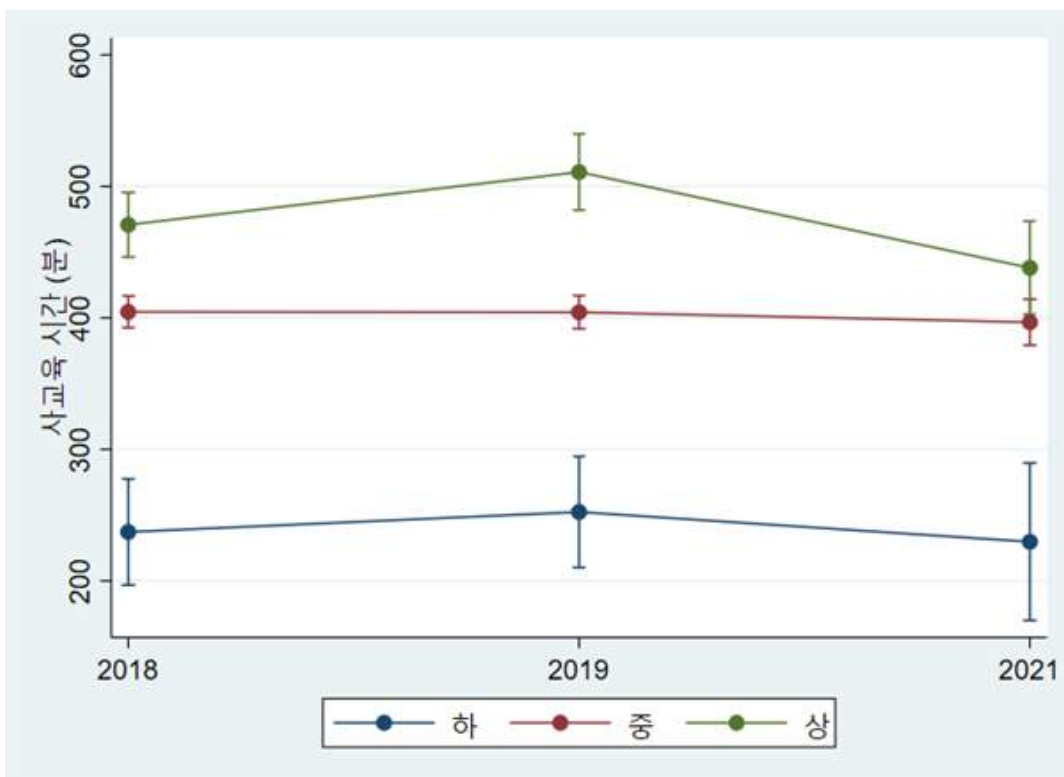


그림1-14.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분 단위 환산): 전체 및 교급별 (단위 :분/일주일)



- 앞의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가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3번의 행복지수 조사자료(2018, 2019, 2021년 조사)를 모두 사용하여 연도별, 경제수준별 사교육 시간(분/일주일)을 회귀분석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앞선 결과와 달리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2021년 사교육 시간 변화는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경제수준 상 집단만이 2019년 대비 2021년 사교육 시간 감소를 보여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사교육 시간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코로나19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면 그 효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1-15.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2018, 2019, 2021년 비교 (단위 :분/일주일)



제2장 연구방법 및 내용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I. 조사설계

1. 개요

- 이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 행복지수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OECD 국가간 횡단 비교에서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2. 조사설계

- 2021년 설문조사는 2021년 9월~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20년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급을 표집 단위로 하여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크기 비례 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 무작위로 추출된 학급의 학교에 교감 선생님께 먼저 연락하여 조사 허락을 받은 후 각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유효표본 수는 총 7,267명으로 초등학생 1,891명, 중학생 3,104명, 그리고 고등학생 2,272명이다.
- 이 설문조사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 비율이 실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표2-1.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조사지역	전국 (제주도 제외)
표 본 수	총7,267명(초등학생 1,891명, 중고등학생 5,376명)
표본추출방법	크기비례확률추출법 (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조사방법	배포-수거방식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조사기간	2021년 9월 3일 ~ 10월15일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3. 표본 특성

표2-2. 표본 특성

구분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7,267	100	1,891	26	3,104	42.7	2,272	31.3	
성별	남	3,458	47.6	889	47	1,456	46.9	1,113	49	
	여	3,809	52.4	1,002	53	1,648	53.1	1,159	51	
거주지역	수도권	3,494	48.1	907	48	1,487	47.9	1,100	48.4	
	강원도	209	2.9	60	3.2	103	3.3	46	2	
	충청권	816	11.2	228	12.1	375	12.1	213	9.4	
	영남권	1,874	25.8	446	23.6	802	25.8	626	27.6	
	호남권	874	12	250	13.2	337	10.9	287	12.6	
지역규모	대도시	3,081	42.4	719	38	1,307	42.1	1,055	46.4	
	중소도시	3,129	43.1	809	42.8	1,513	48.7	807	35.5	
	읍면지역	1,057	14.6	363	19.2	284	9.2	410	18.1	
학교급	초등학교	4학년	1,891	-	613	32.4	-	-	-	-
		5학년			695	36.8	-	-	-	-
		6학년			583	30.8	-	-	-	-
	중학교	1학년	3,104	-	-	-	1,092	35.2	-	-
		2학년			-	-	1,046	33.7	-	-
		3학년			-	-	966	31.1	-	-
	고등학교	1학년	2,272	-	-	-	-	-	834	36.7
		2학년			-	-	-	-	817	36
		3학년			-	-	-	-	621	27.3

4. 2021 행복지수 계산에 사용한 자료

-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자료는 OECD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수집하였다.
- 대표적으로 OECD/WHO 데이터베이스,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 올해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2-3.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21 자료 출처	
					외국자료	한국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19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9세 이하	OECD 2018	본 연구 설문지 (2021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PISA 2018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이하로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18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WHO 2019	
		저체중아의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OECD 2018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WHO 2020	
			소아마비 예방접종		WHO 2020	
			DPT3 예방접종		WHO 2020	
사고사	아동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당)	19세 이하	WHO 2008		
교육	학업 성취	학업성취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18	
	교육 참여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19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	15~19세	OECD 2018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21 자료 출처	
					외국자료	한국자료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21 KCWI)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부모 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증진 행위)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21 KCWI)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율	13, 15세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 수	11, 13, 15세		
	위험 행위	흡연/음주/마약/섹스	흡연/음주 경험 비율 마약사용 경험 비율		11, 13, 15세	
			섹스 경험 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10대 출산율	15-19세 (여)	OECD 2017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21 KCWI)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PISA 2018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표2-4. 과거 연도별 행복지수 계산에 사용한 자료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물질적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6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13	통계청 2015	OECD 2014	통계청 2015	OECD 2017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4세 이하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D)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D)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2 KCWD)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D)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D)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D)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6 KCWD)	OECD 2014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D)	OECD 2014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D)	OECD 2014	본 연구 설문지 (2019 KCWD)	
	행복	결핍	교육 여건	교육자재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D)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OECD 2012		OECD 2012		PISA 2015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이하로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D)	PISA 2003		PISA 2003		PISA 2006		PISA 2006		PISA 2012		PISA 2012		PISA 2012		PISA 2012		PISA 2015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OECD 2009	교육 개발원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WDI 2011 OECD 2011	WDI 2011 OECD 2011	WDI 2013		WDI 2013		WHO 2015		WHO 2016		WHO 2017						
		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OECD 2009	교육 개발원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WDI 2011 OECD 2011	WDI 2011 OECD 2011	OECD 2011		OECD 2011		UNICEF 2014		OECD 2015		OECD 2016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 개월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WDI 2013		WDI 2013		WHO 2015		WHO 2016		WHO 2017					
			소아마비 예방접종	0~11 개월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UNICEF 2013		UNICEF 2013		WHO 2015		WHO 2016		WHO 2017					
			DPT3 예방접종	12~23 개월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WDI 2013		WDI 2013		WHO 2015		WHO 2016		WHO 2017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 당)	19세 이하	WHO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영역	구성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교육	학업성취	15세 학업성적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06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12		PISA 2012		PISA 2015		PISA 2015		PISA 2015	
	교육참여	아동의 학업 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09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OECD 2010		OECD 2012		OECD 2012		OECD 2012		OECD 2012		OECD 2015		OECD 2015		OECD 2016	
	청소년실업	실업 상태인 청소년	학교나 훈련기관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면서 직업이 없는 청소년 비율	15-19세	OECD 2009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3	OECD 2013		OECD 2014		OECD 2016		OECD 2017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HBSC 2001		HBSC 2006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2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6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9 KCWI)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 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13, 15세	HBSC 2001		HBSC 2001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행동과 생활양식	건강 행동 (증진행위)	아침 식사	학교가기전 아침식사 하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5)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6)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9 KCWI)
		과일 섭취	매일 과일 섭취하는 학생비율	11,13 15세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인 학생의 비율	13, 15세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운동	지난 1주일 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수	11,13 15세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HBSC 2006															
	위험 행위	흡연 음주 마약 섹스	흡연/음주 경험비율 마약 사용 경험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5)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6)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섹스 경험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15-19세 (여)							WDI 2011	WDI 2011	WDI 2013	WDI 2013	WDI 2015	OECD 2015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건강상태가 '전혀', '별로' 좋지않거나 '보통' 응답자 비율	11,13, 15세	HBSC 2001	HBSC 2006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11,13, 15세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응답 비율	15세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12	PISA 2012	PISA 2012	PISA 2015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응답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올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전산화했다.
-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1) 지역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 2) 지역 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 3) 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전문고등학교
- 전산화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TATA MP와 SPSS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 1) OECD자료의 경우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를 가지도록 표준화하였다. 개별지표를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했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 (Z-Score)로 변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 2)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계산하였다. 먼저,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단순 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만약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3개의 표준편차만큼 낮은 점수이다. 즉,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 3)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 (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을 합쳐 어린이의 ‘영아 건강’을 측정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표준화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표준화 점수의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 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 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표2-5.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M)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영역	구성요소	지표	조사대상	OECD 평균	한국 표준점수		
					원점수	구성요소별 표준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0~17세	11.2	12.3	97.4	108.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아동	19세 이하	8.3	5.2	112.2	
	결핍	교육여건	15세	3.3	4.2	110.6	
문화적 결핍		19세 이하	13.3	5.6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 사망률	0~12개월	3.0	2.7	104.1	109.3
		저체중아 비율	2500g 이하	6.6	6.2		
	예방접종	홍역	12 ~23개월	94.6	98	111.5	
		소아마비		94.7	98		
		DPT3		95	98		
사고사	아동사고사 (10만명당)	19세 이하	23.8	22.4	103.2		
교육	학업성취 (PISA 표준화 점수평균:500)	읽기	15세	496.6	514	114.6	106.8
		수학		499.5	526		
		과학		497.2	519		
	교육참여	15~19세 아동 학업유지	15~19세	86.4	83.9	94.7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15~19세	5.5	7.7	89.9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15세	28.7	15.4	115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11, 13, 15세	15.2	7.4	129.5	117.5
		의붓 가정		9.0	1.0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15세	78.8	71.6	108.4	
		함께 대화하기		62.4	87.6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11,13,15세	69.7	63.1	94.4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증진행위	아침식사	11,13,15세	66.2	68.4	106.2	119
		과일섭취	11,13,15세	38.5	53		
		과체중 (BMI 25 이상)	13, 15세	14.7	15.2		
		운동 (평균 일 수)	11,13,15세	18.6	13.2		
	건강 위협행위	흡연	11,13,15세	4.8	0.8	124.5	
		음주		9.0	5.0		
		마약		14	0.6		
		섹스	15세	19.6	1.3		
임신과 출산	15~19세(여)	8.0	1.0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11,13,15세	13.6	26.7	70.6	79.5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11,13,15세	28.0	37.9	110.1	
	개인행복	삶의 만족	11,13,15세	84.7	66.5	80.4	
		소속감 못느낌	15세	29.3	15.6		
		어울림 못느낌		18.9	9.4		
외로움		14.7		22			

제3장 OECD 행복지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하여 그 나무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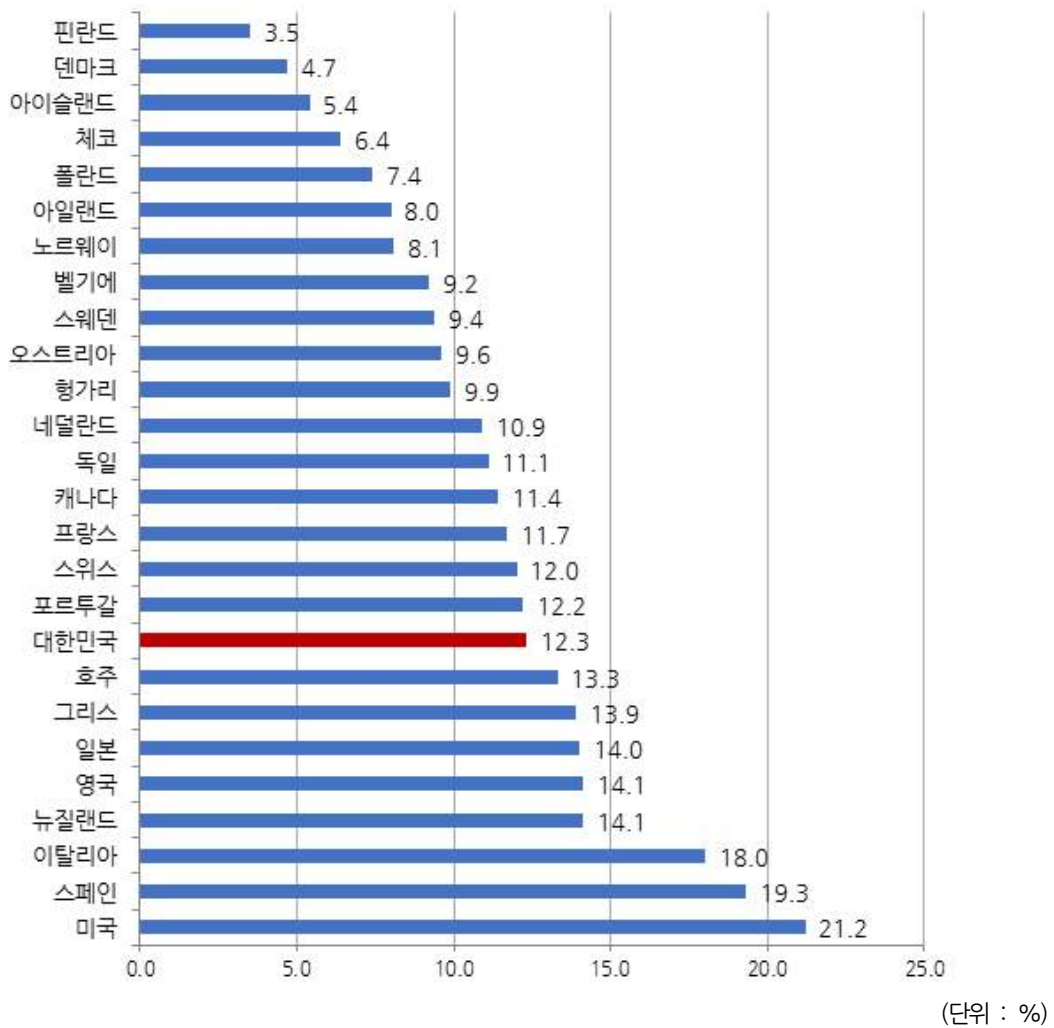
1.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 개별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 한국의 상대적 빈곤 비율은 12.3%로, OECD 국가 평균(11.2%)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그림3-1. 국가별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상대적 빈곤	11.2	4.2	3.5	12.3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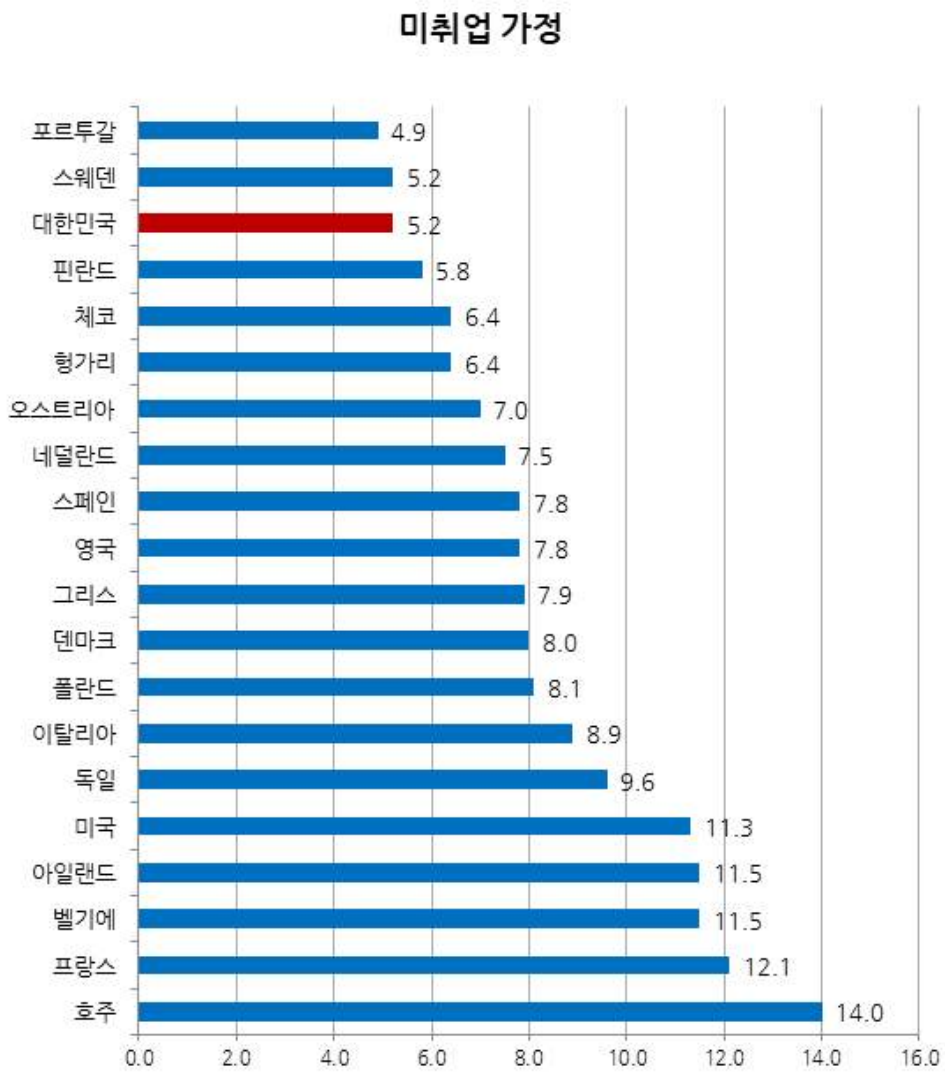
2.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 가정의 성인이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비율

- 한국의 미취업 가정 비율은 5.2%로, OECD 국가 평균(8.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 미취업 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미취업 가정	8.3	2.5	4.9	5.2	14.0

3. 결핍_교육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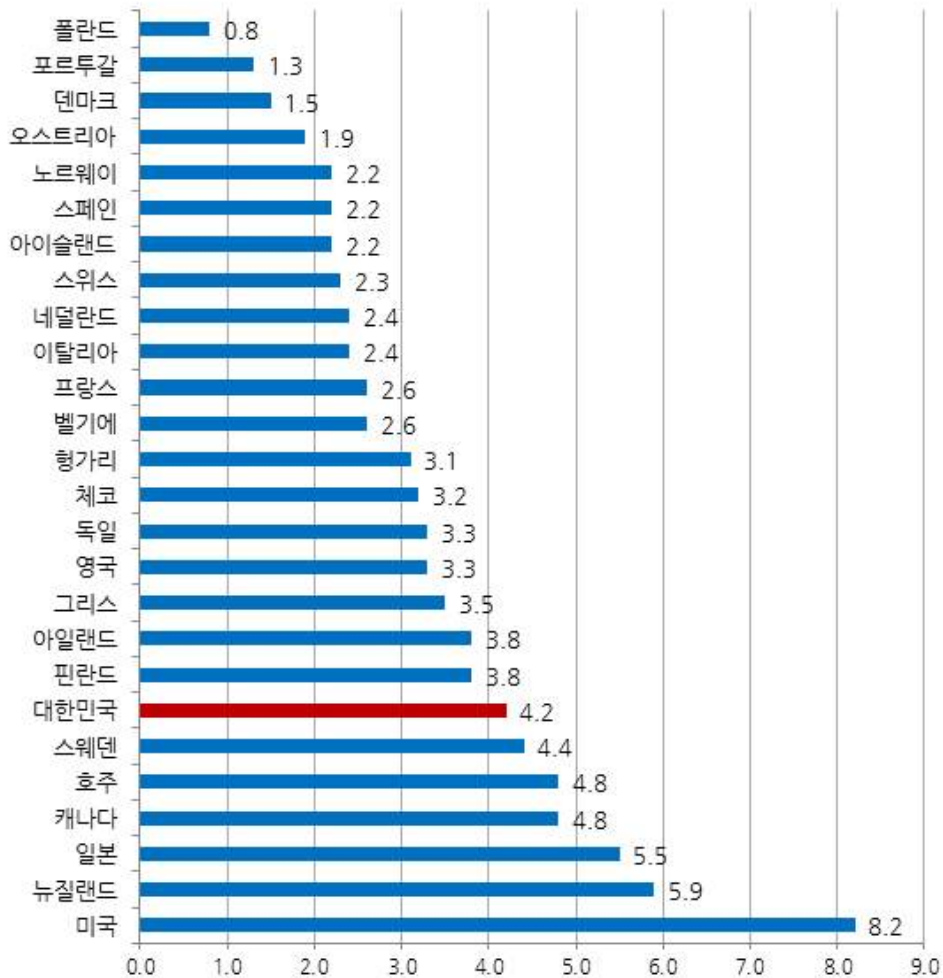
교육여건 : 교육자재-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를 4개 미만 소유한 비율

- 한국의 교육여건 관련 수치는 4.2% 로, OECD 국가 평균(3.3%)보다 약간 높았다.

그림3-3. 교육여건

(단위 : %)

교육여건결핍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교육여건결핍	3.3	1.6	0.8	4.2	8.2

3. 결핍 문화적 결핍

문화적 결핍 : 집에 책이 10권 이하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문화적 결핍수치는 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4. 문화적 결핍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문화적 결핍	13.3	3.5	5.6	5.6	21.6

II.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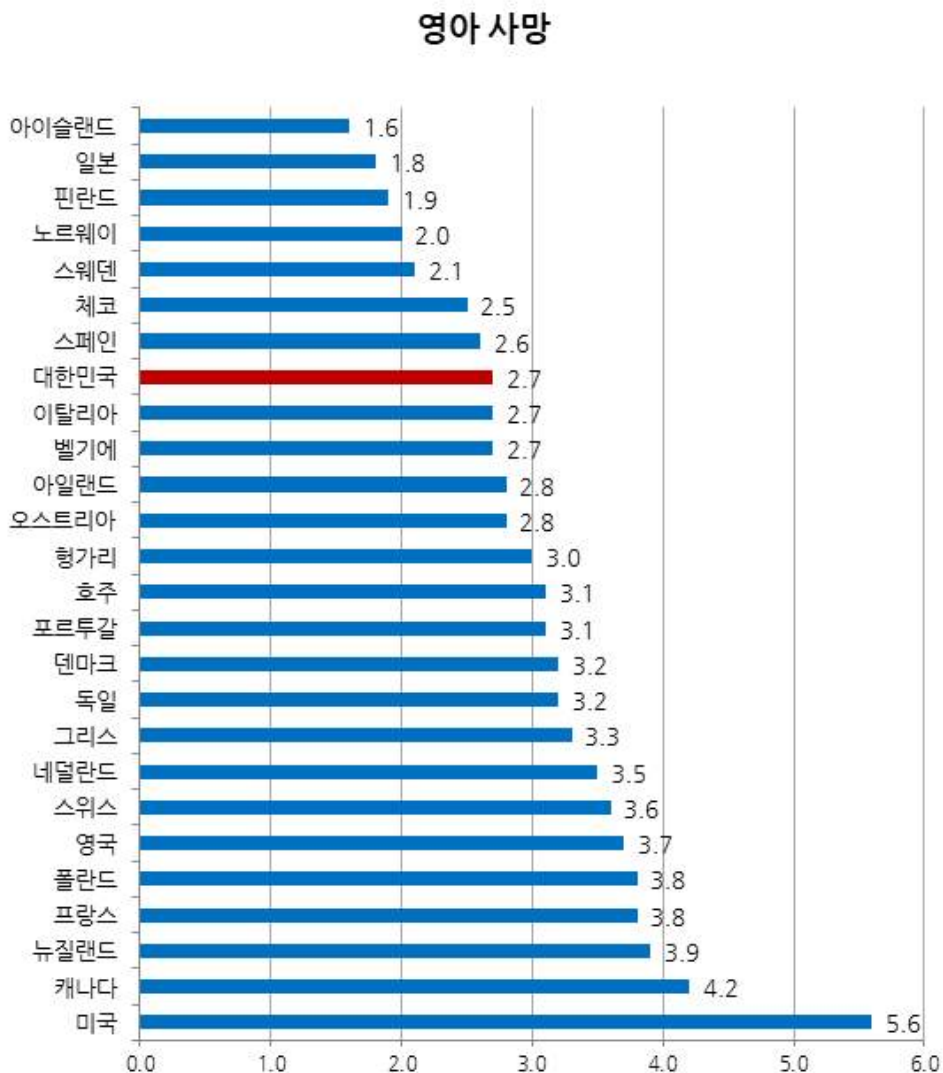
1. 영아건강_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 : 사망한 0~1세의 비율(출산 1,000명당)

-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2.7%로, OECD 국가 평균(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5. 영아사망률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영아사망률	3.0	0.8	1.6	2.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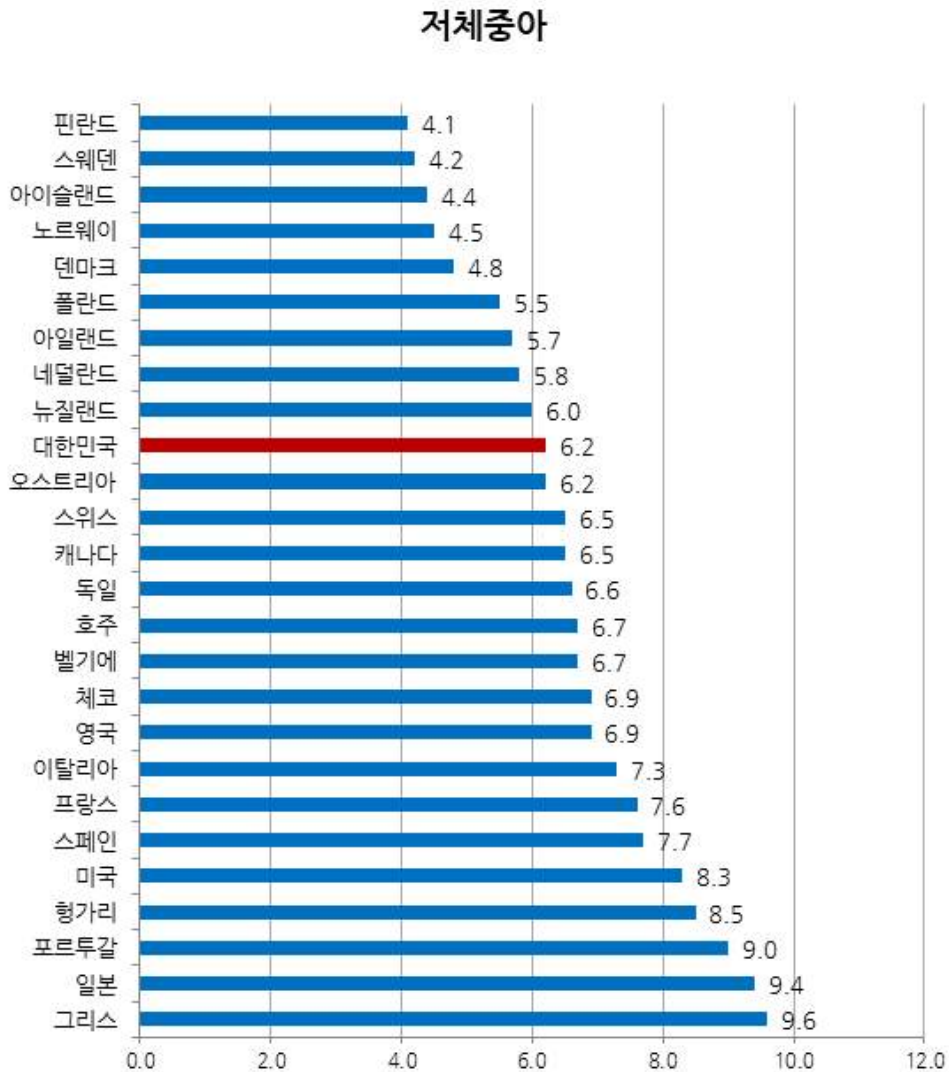
1. 영아건강_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 비율 :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 한국의 저체중아 비율은 6.2%로, OECD 국가 평균인 6.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6. 저체중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저체중아	6.6	1.5	4.1	6.2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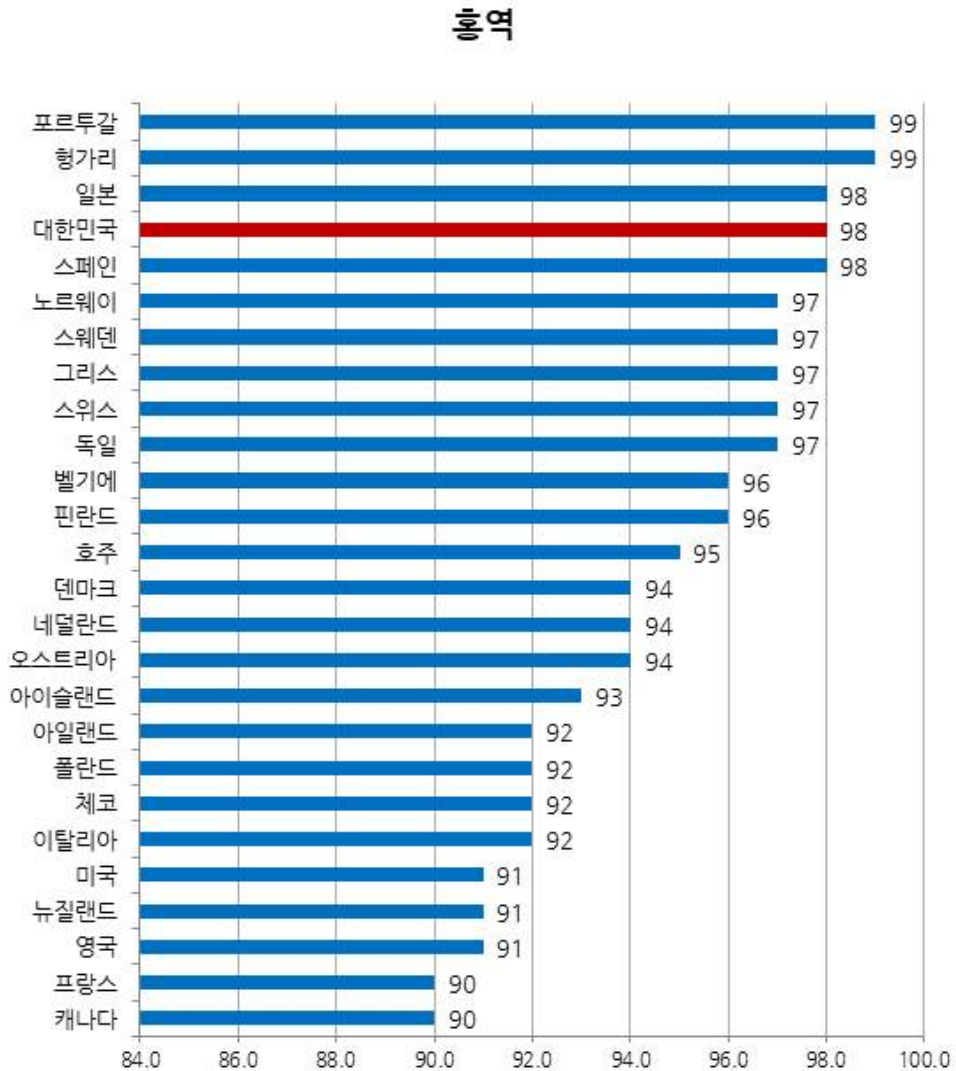
2. 예방접종_홍역

홍역 예방접종 비율 : 12~23개월 영아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은 9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그림3-7. 홍역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홍역 예방접종	94.6	2.9	99	98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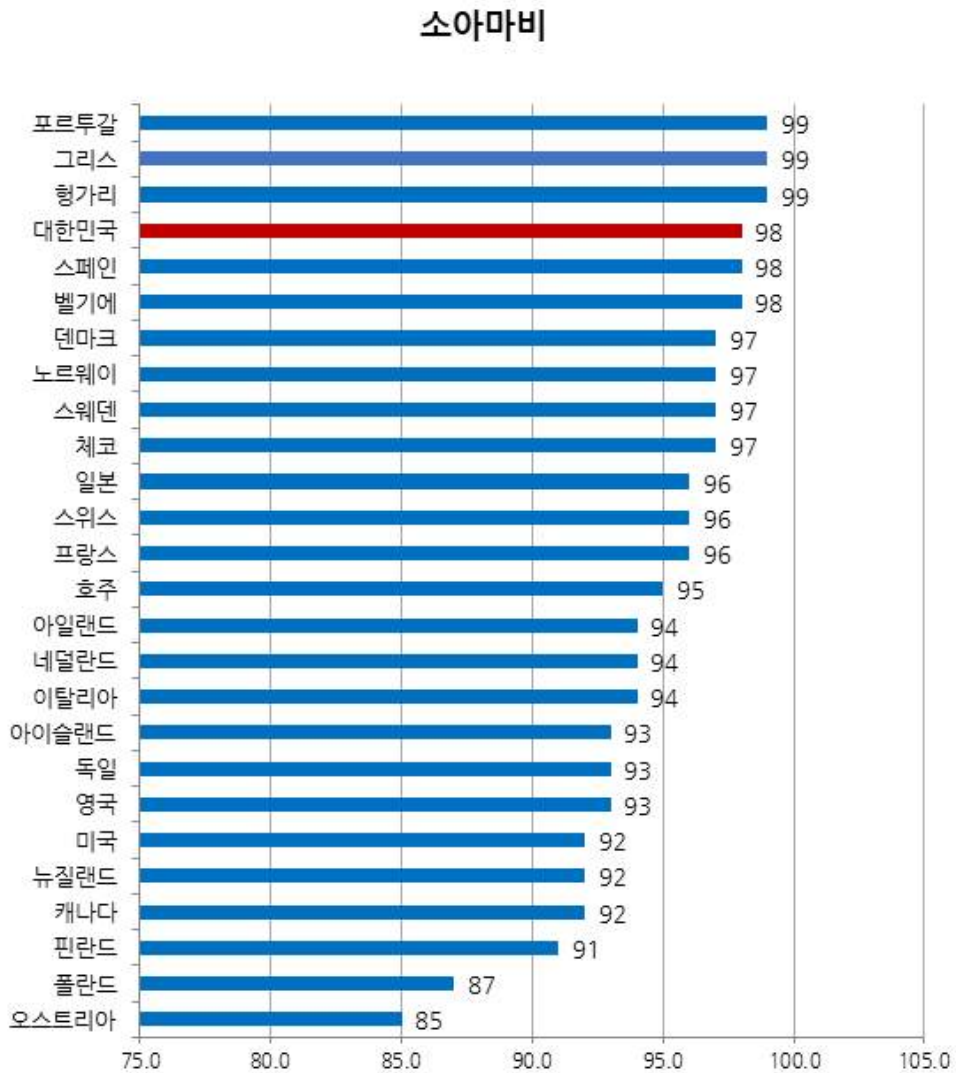
2. 예방접종 비율_소아마비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 : 12~23개월 영아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은 9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그림3-8. 소아마비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소아마비 예방접종	94.7	3.5	99	98	85

2. 예방접종_DP3

DPT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비율 : 12~23개월 영아의 DPT3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DP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비율은 9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그림3-9. DPT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DPT3 예방접종	95.0	3.2	99	98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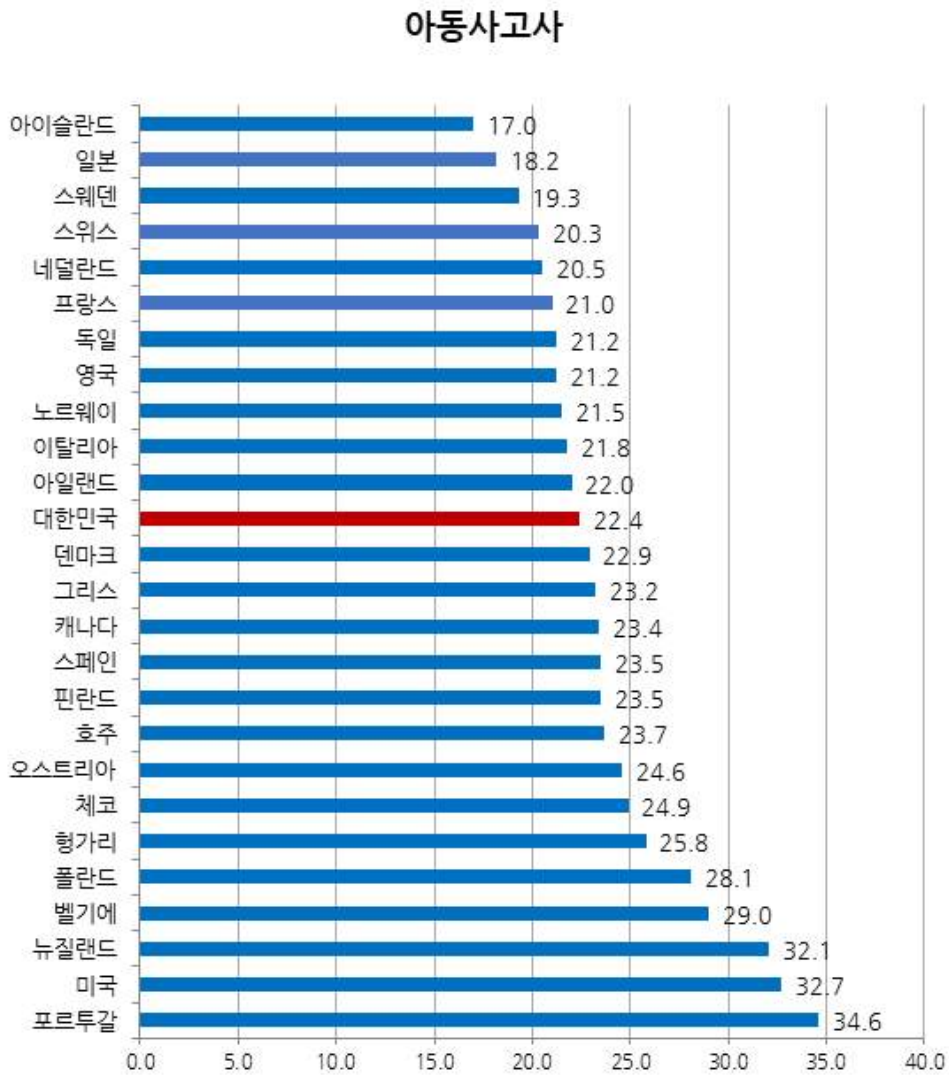
3. 사고사

아동사고사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19세 이하)의 10만 명당 비율

- 한국의 연평균 아동사고사 비율은 10만 명당 2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23.8명)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3-10. 아동사고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아동 사고사	23.8	4.27	17.0	22.4	34.6

III.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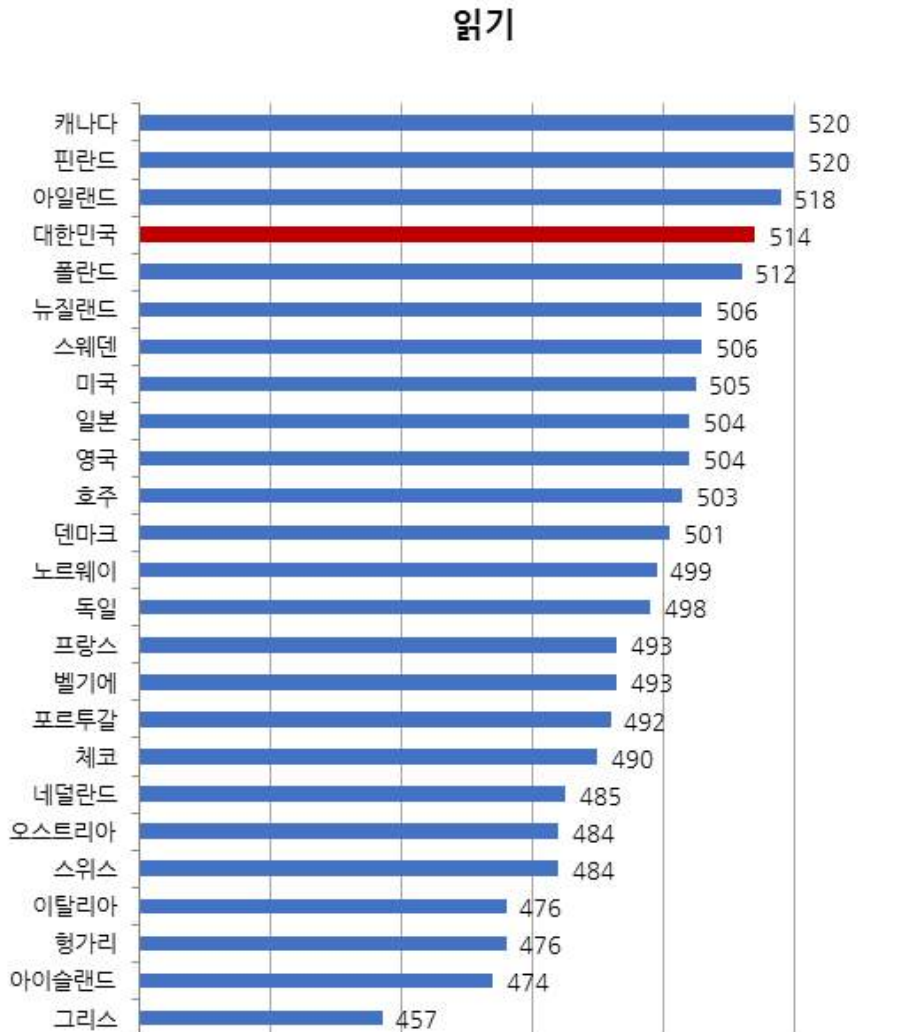
1. 학업성취_읽기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읽기 점수

- 한국의 읽기시험 점수는 514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4순위로 나타났다.

그림3-11. 읽기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읽기 점수	496.6	15.5	520	514	457

1. 학업성취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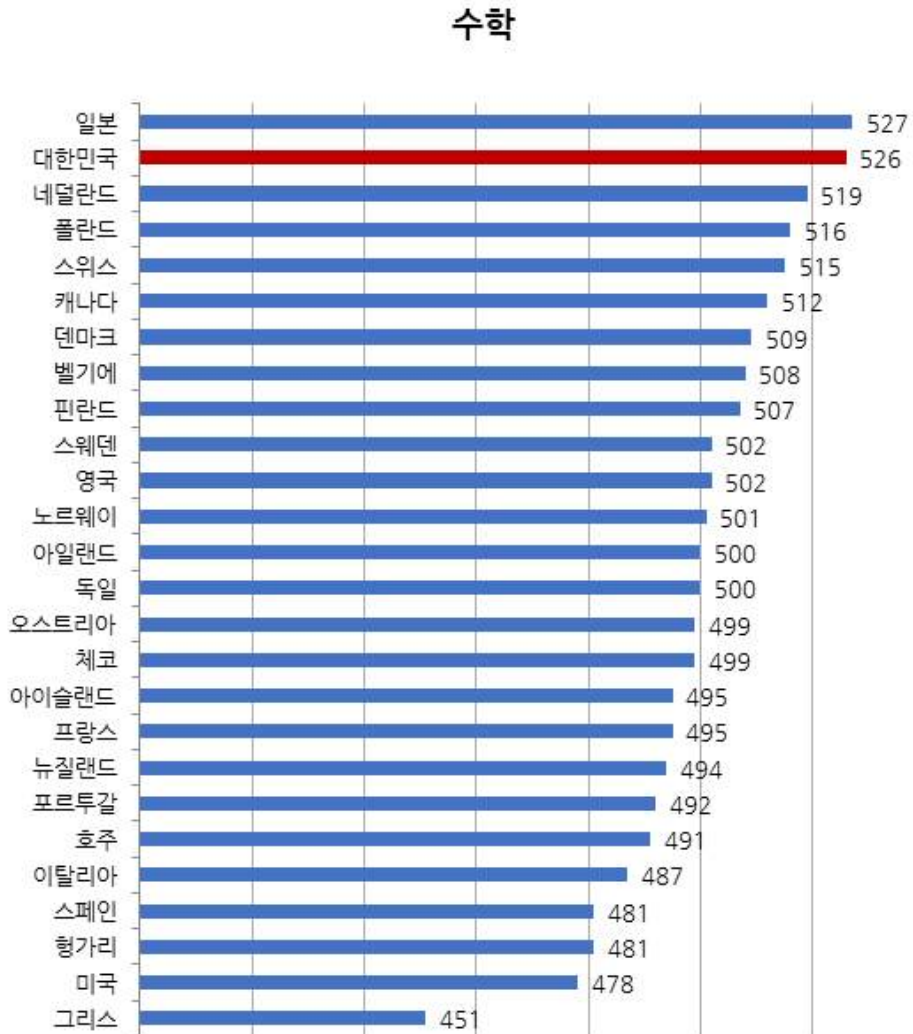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수학 점수

- 한국의 수학시험 점수는 OECD국가 평균(499.5)을 크게 상회하는 526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림3-12. 수학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수학 점수	499.5	15.9	527	526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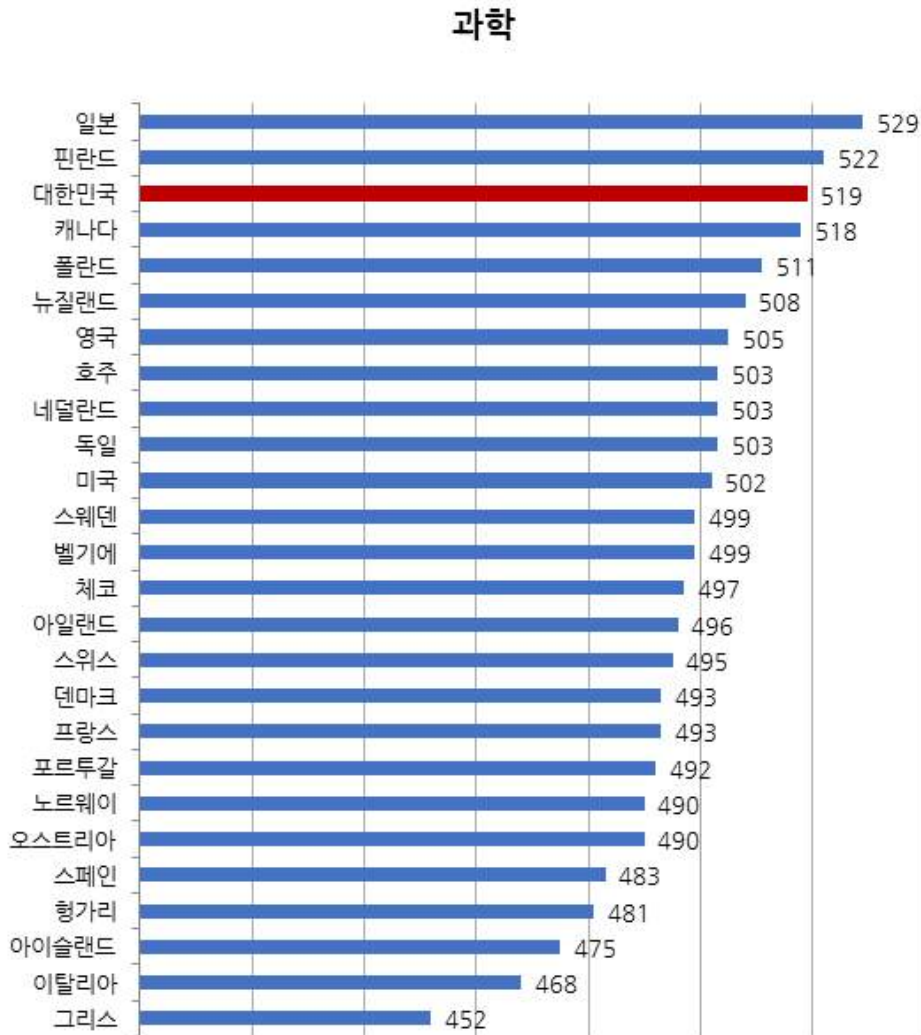
1. 학업성취_과학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과학 점수

- 한국의 과학시험 점수는 519점으로 OECD 국가 평균(497.2점)보다 크게 높았으며, 일본, 핀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림3-13. 과학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학 점수	497.2	16.5	529	519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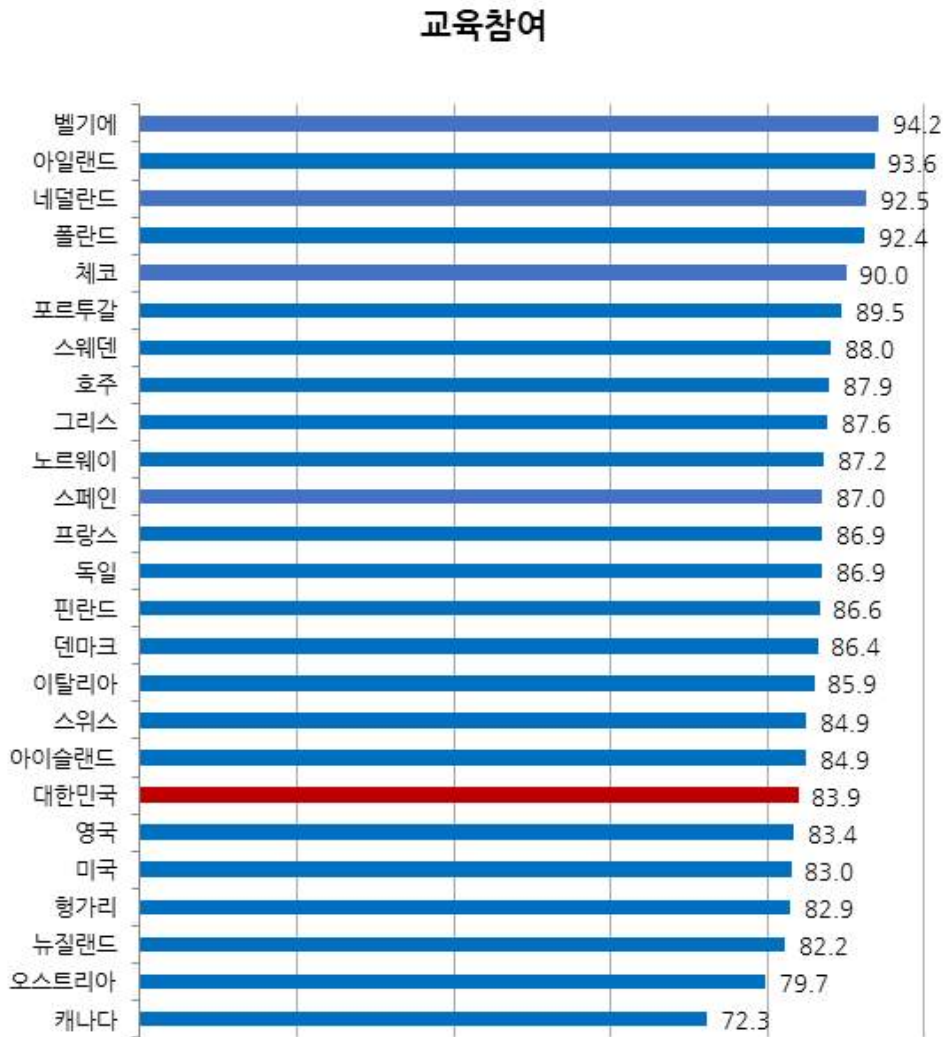
2. 교육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 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세의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학업유지 비율은 83.9%로, OECD 국가 평균 86.4%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3-14. 학업유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학업 유지	86.4	4.6	94.2	83.9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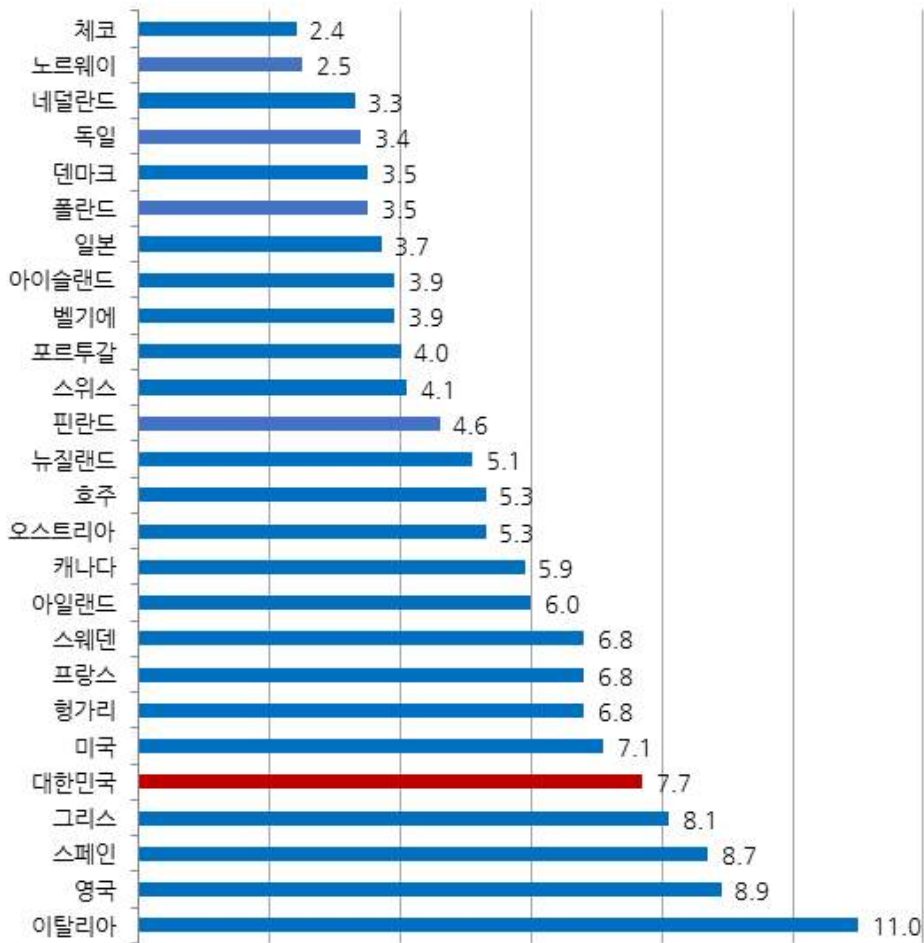
3.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5.5%이며, 한국은 7.7%로 OECD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3-15. 실업상태

청소년실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청소년 실업	5.5	2.2	2.4	7.7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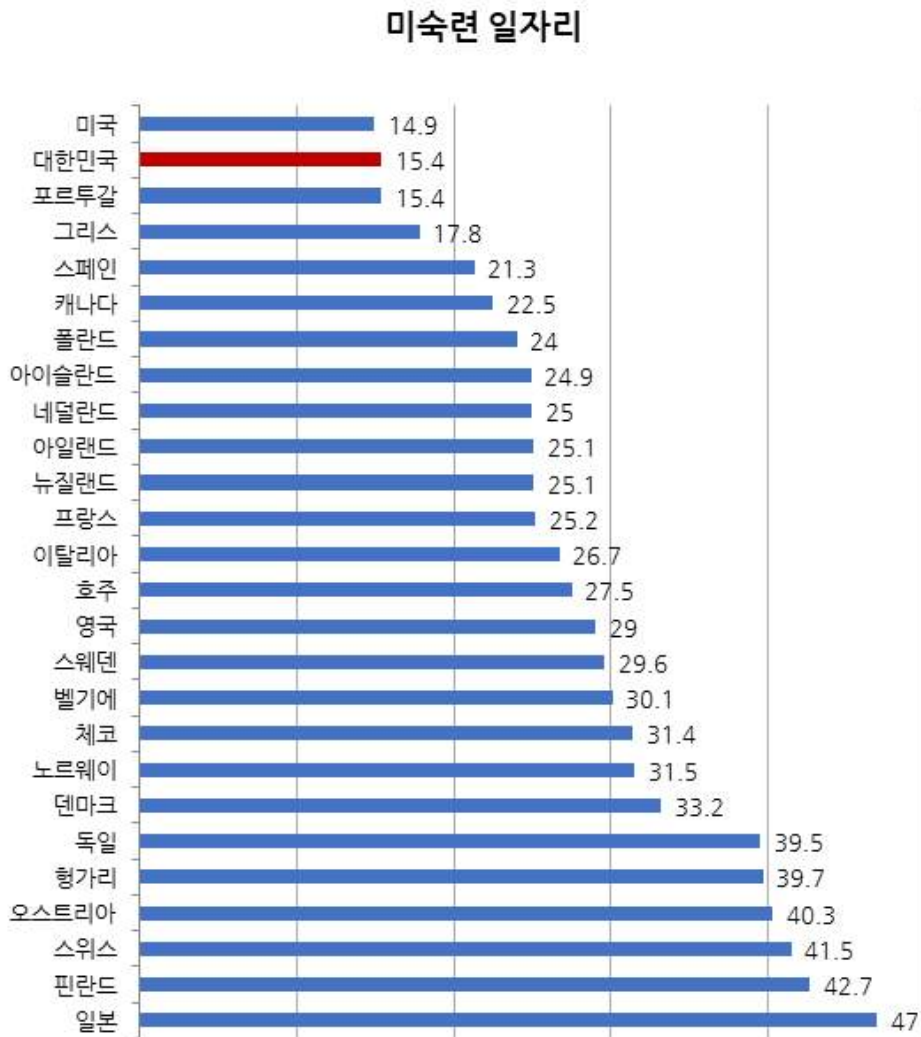
4.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

- 성인이 되어 희망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기대하는 비율은 한국이 15.4%로, OECD 국가 평균(28.7%)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16. 미숙련 일자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미숙련 일자리 희망	28.7	8.7	14.9	15.4	47.0

IV. 가족과 친구관계

1. 가족구조_홀부모가정

홀부모가정 :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홀부모가정 비율은 7.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17. 홀부모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홀부모가정	15.2	2.4	7.4	7.4	18.0

1. 가족구조_의붓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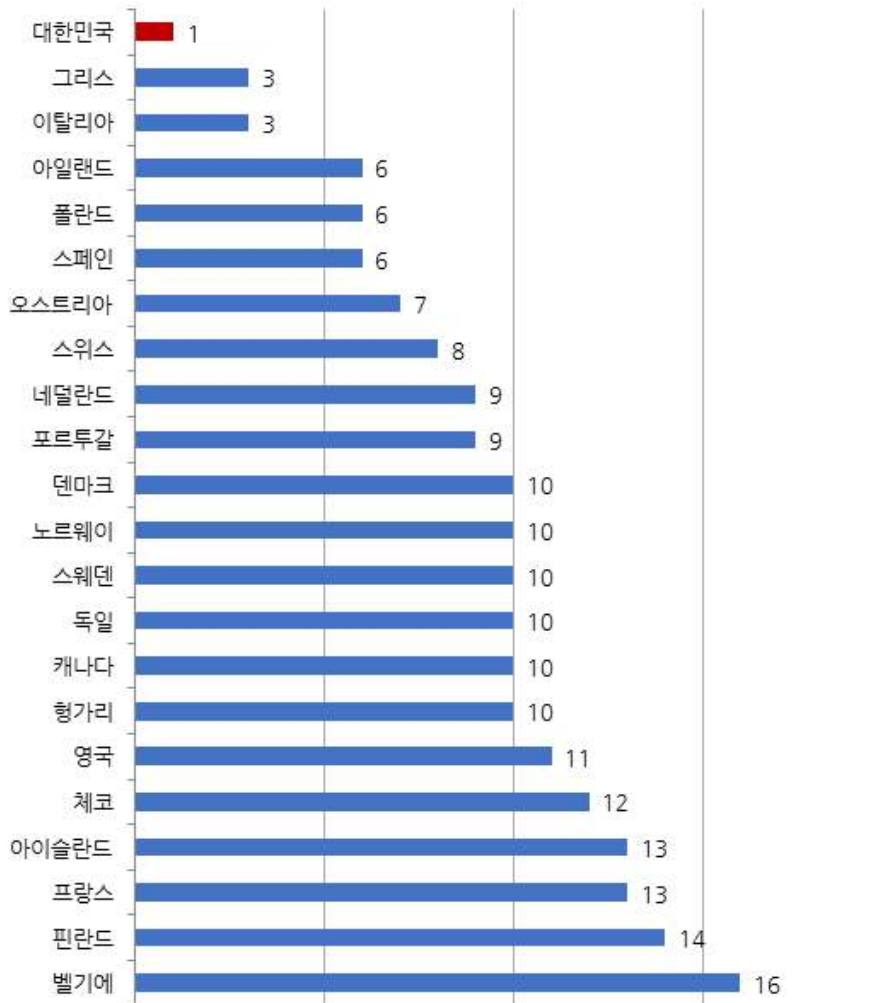
의붓가정 :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의붓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1%에 그친 반면, OECD국가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9%로 나타났다.

그림3-18. 의붓가정

(단위 : %)

의붓 가정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의붓 가정	9.0	3.6	1.0	1.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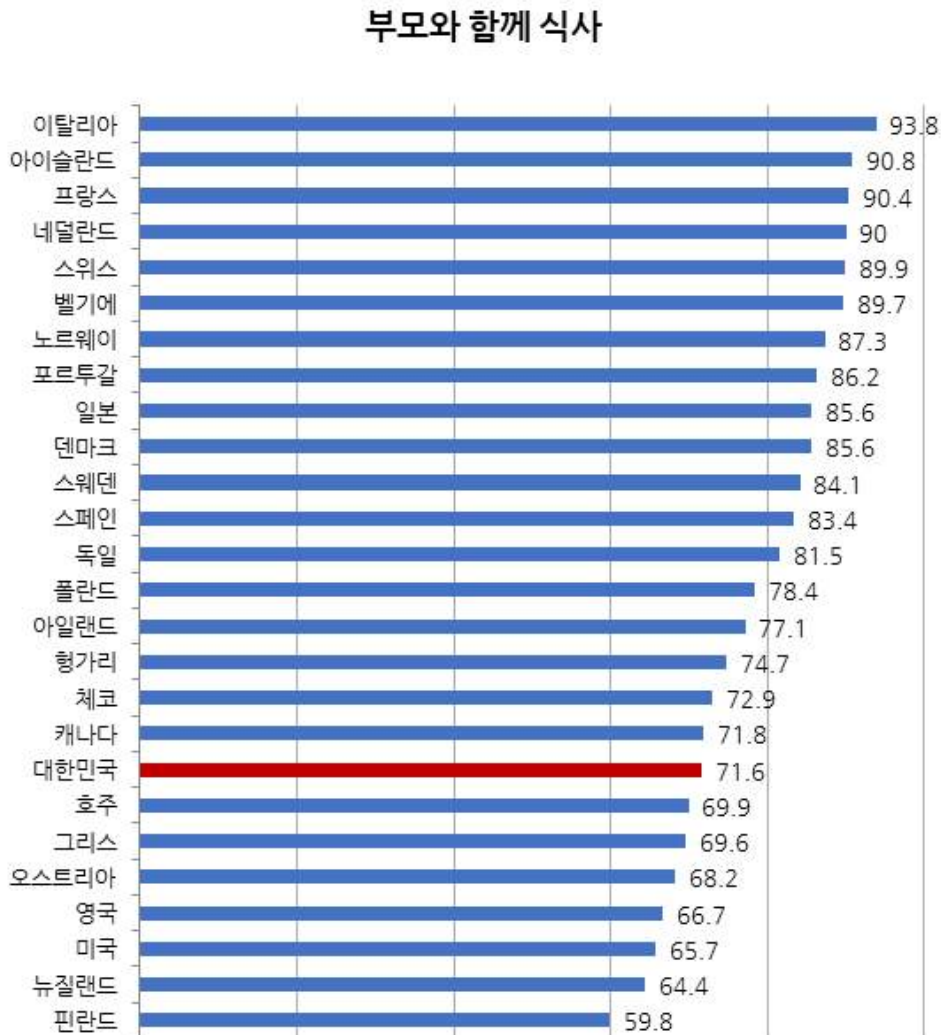
2. 부모관계_함께 식사하기

함께 식사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71.6%(2019년 59.9%)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19. 함께 식사하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부모와 함께 식사	78.8	9.7	93.8	71.6	59.8

2. 부모관계_함께 대화하기

함께 대화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87.6%로, OECD 국가 중 상위 2위로 나타났다.

그림3-20. 함께 대화하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부모와 함께 대화	62.4	13.2	90.2	87.6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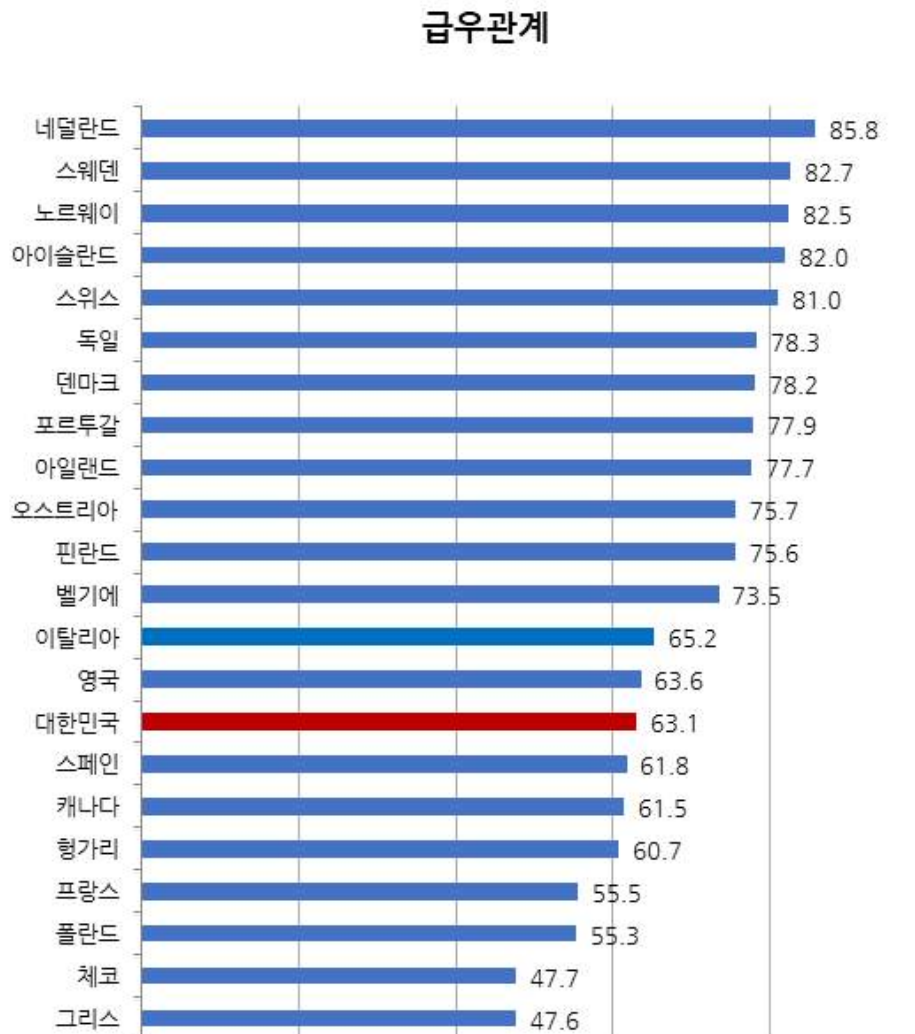
3.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은 한국이 63.1%로 OECD 국가 평균 69.7%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림3-21. 친절한 급우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급우관계	69.7	13.2	85.8	63.1	47.6

V. 행동과 생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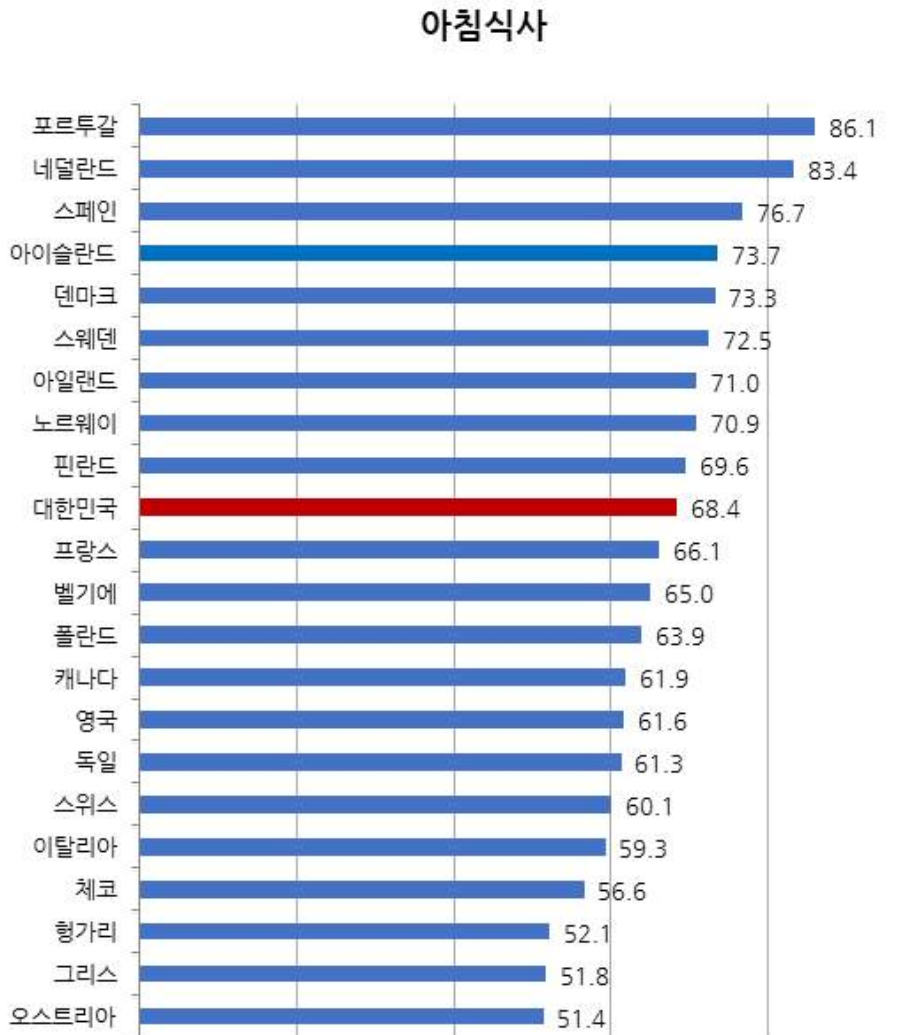
1. 건강행동_아침식사

아침식사 :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11, 13, 15세 어린이 비율

-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68.4%로, OECD 국가 평균(66.2%)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22. 아침식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아침식사	66.2	9.3	86.1	68.4	51.4

1. 건강행동_과일섭취

과일섭취 :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11, 13, 15세 학생의 비율

-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53.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3. 과일섭취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일 섭취	38.5	6.6	53.0	53.0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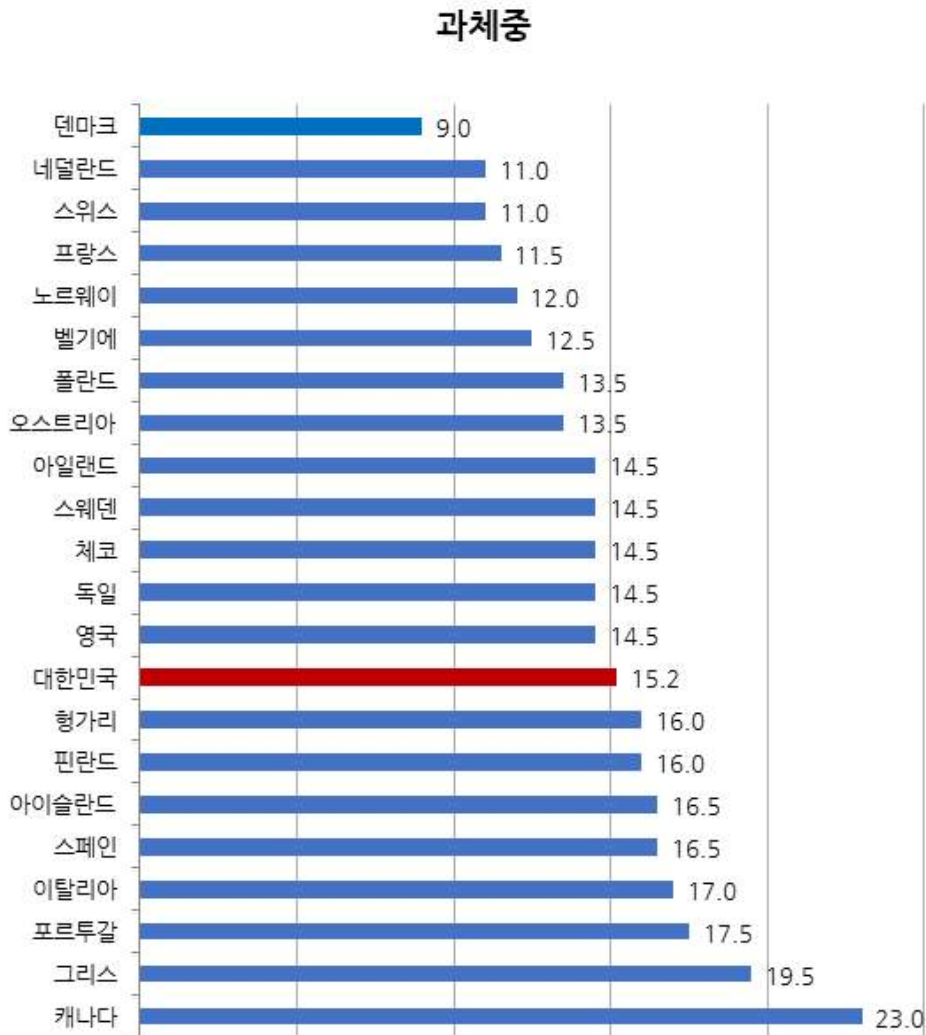
1. 건강행동_과체중

과체중 :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13, 15세 학생의 비율

- 체질량지수 (BMI)가 25 이상, 즉 과체중인 아이들의 비율이 한국은 15.2%로,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2019년 9.0% OECD 중 가장 낮은 수치 기록)

그림3-24. 과체중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체중	14.7	3.0	9.0	15.2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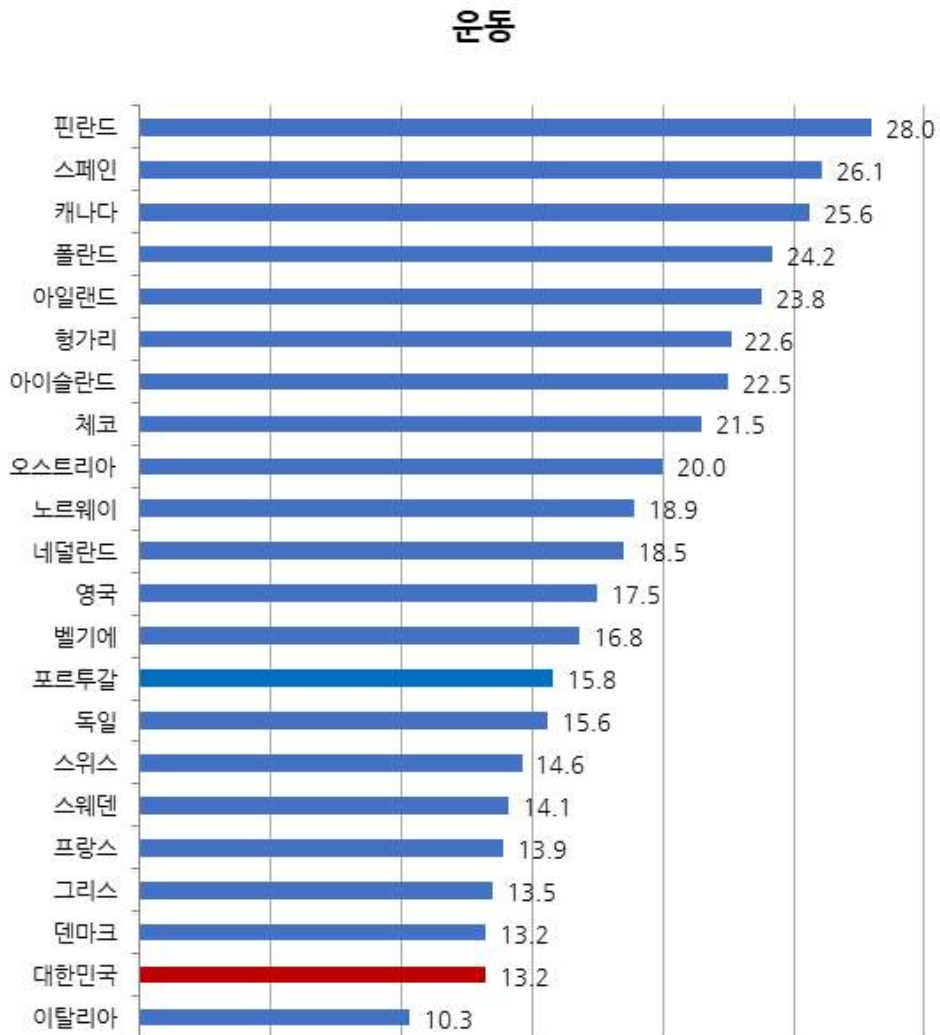
1. 건강행동_운동

운동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가 7일인 비율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가 수가 7일인 비율의 경우, 한국은 13.2%로, OECD 국가 가운데 하위 2번째에 해당하였다.

그림3-25. 운동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운동	18.6	4.9	28.0	13.2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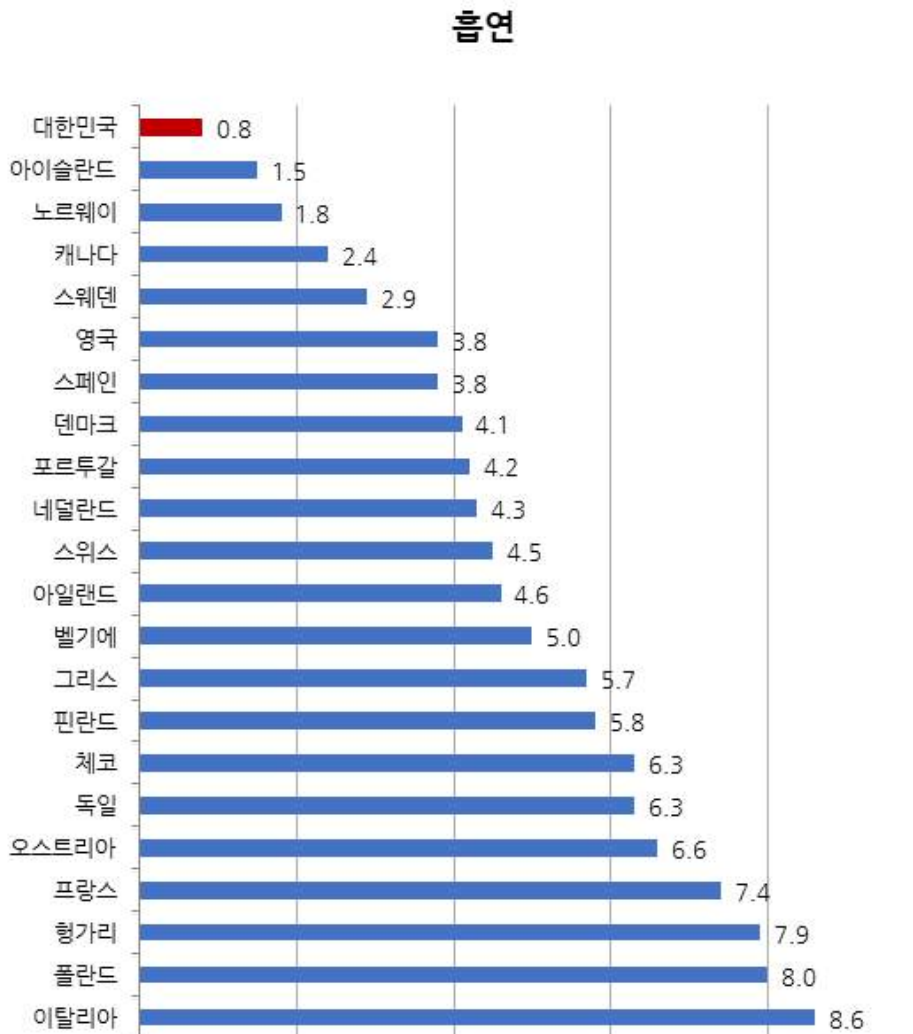
2. 위험행동_흡연

흡연 : 11, 13, 15세의 흡연 비율

- 한국 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0.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6. 흡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흡연	4.8	2.1	0.8	0.8	8.6

2. 위험행동_음주

음주 : 11, 13, 15세의 음주 비율

- 한국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7. 음주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음주	9.0	3.6	2.4	5.0	18.2

2. 위험행동_마약

마약 : 11, 13, 15세의 마약 사용 비율

- 한국 청소년의 마약복용 비율은 0.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3-28. 마약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마약	14.0	7.1	0.6	0.6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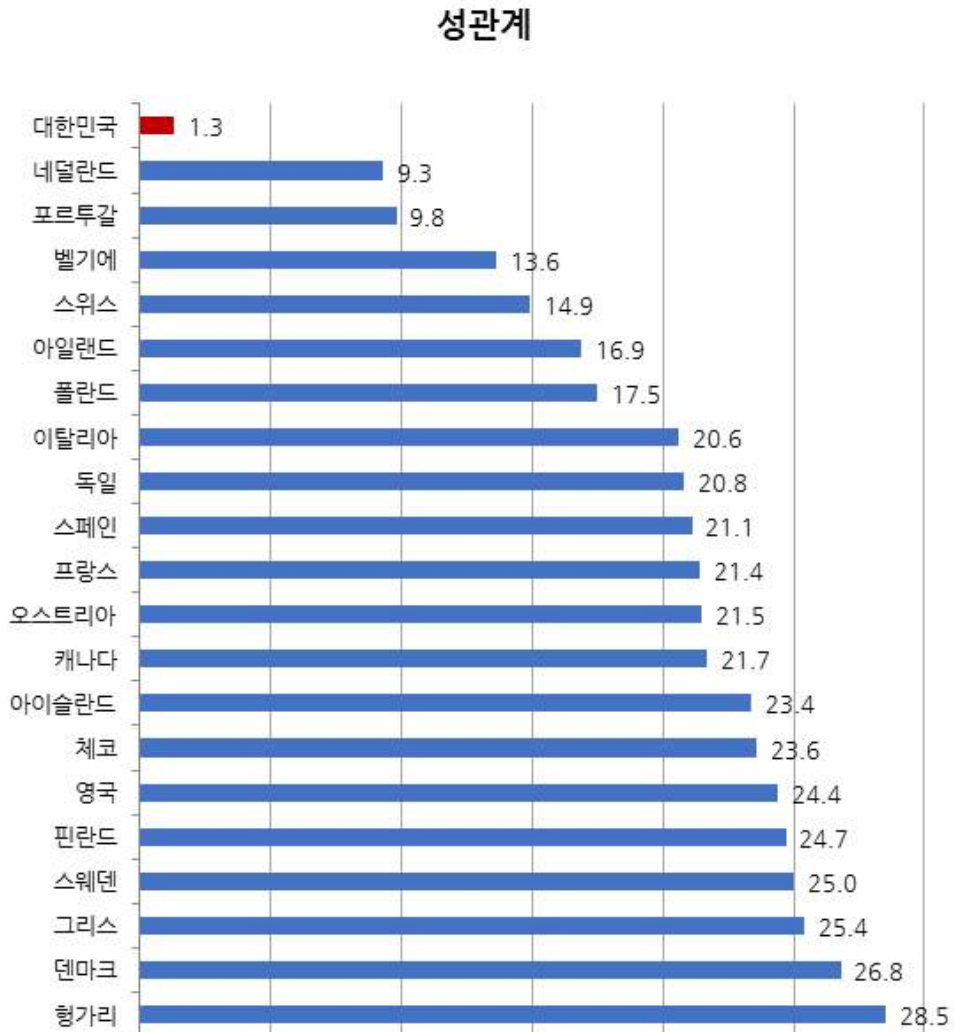
2. 위험행동_성관계

성관계 : 15세의 성관계 경험 비율

-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1.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9. 성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성관계	19.6	6.5	1.3	1.3	28.5

2. 위험행동_임신과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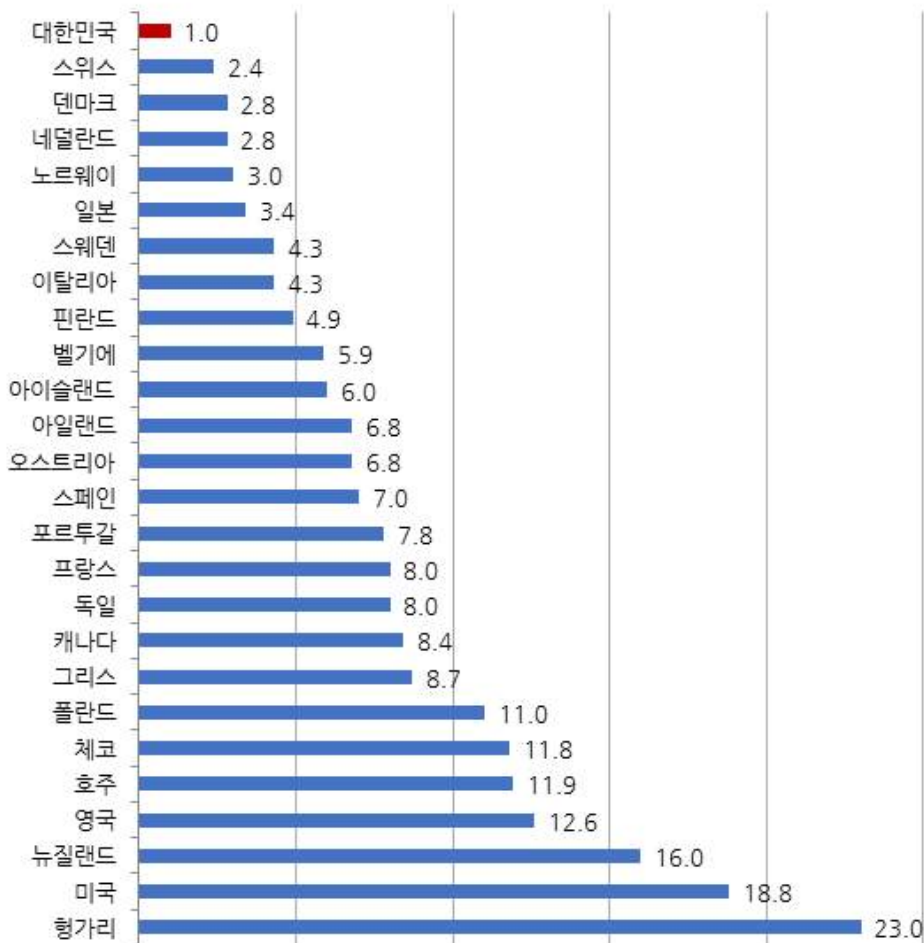
임신과 출산 : 15-19세 여학생의 출산율

- 한국 10대의 출산비율은 1.0%로 OECD 국가 평균(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3-30. 임신과 출산

(단위 : %)

십대출산율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십대 출산율	8.0	5.2	1.0	1.0	23.0

VI. 주관적 행복

1.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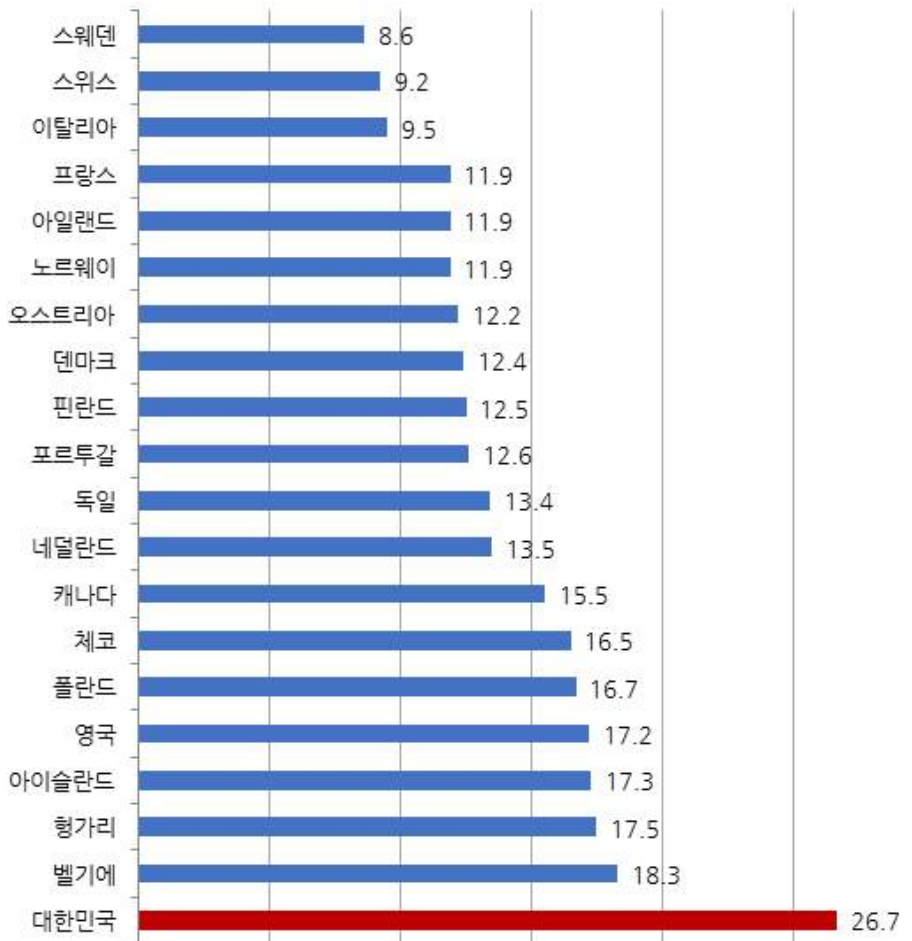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 :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한국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1. 주관적 건강

(단위 : %)

주관적 건강 좋지 못함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주관적 건강 좋지 못함	13.6	4.3	6.8	26.7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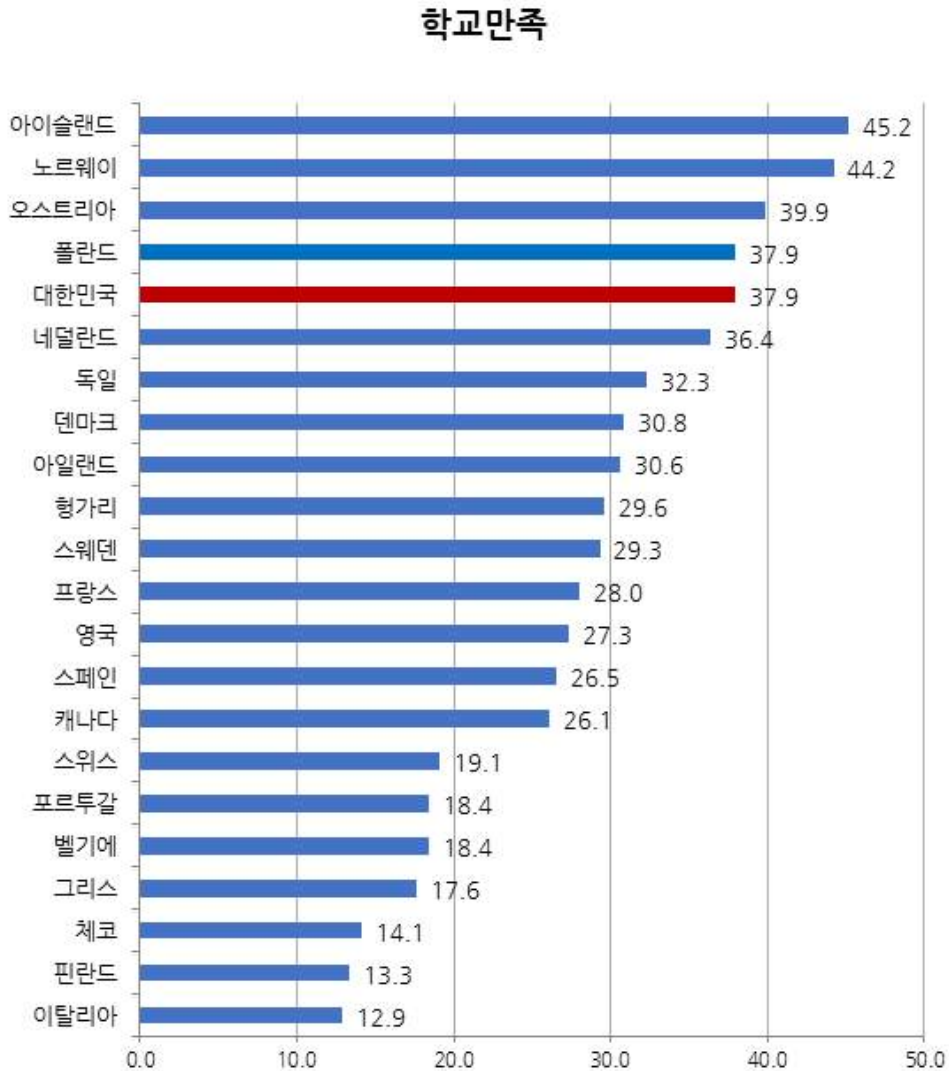
2.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이 37.9%로 OECD 국가 평균(28.0%)보다 높았다.

그림3-32.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학교 만족	28.0	9.6	45.2	37.9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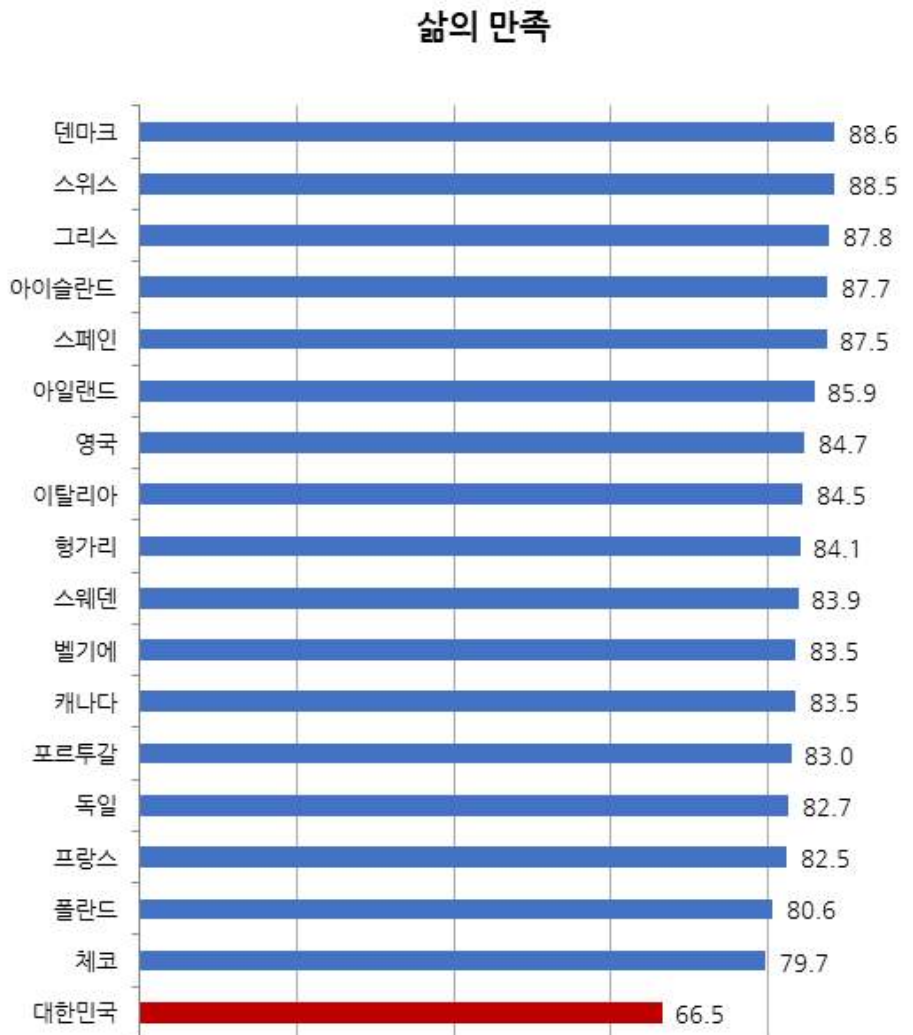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삶의 만족

삶의 만족 척도 :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66.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그림3-33. 삶의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삶의 만족	84.7	5.0	91.4	66.5	66.5

3. 개인 행복_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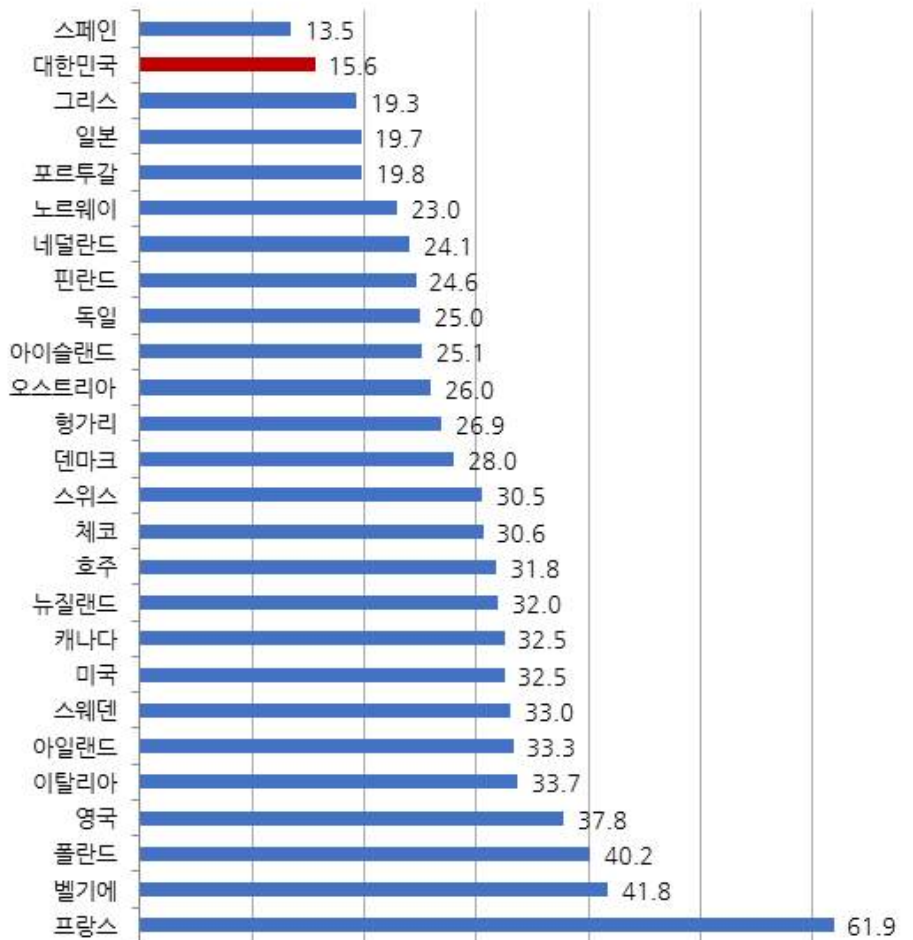
소속감 :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이 15.6%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34. 소속감

(단위 : %)

소속감 못 느낌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소속감 못느낌	29.3	9.5	13.5	15.6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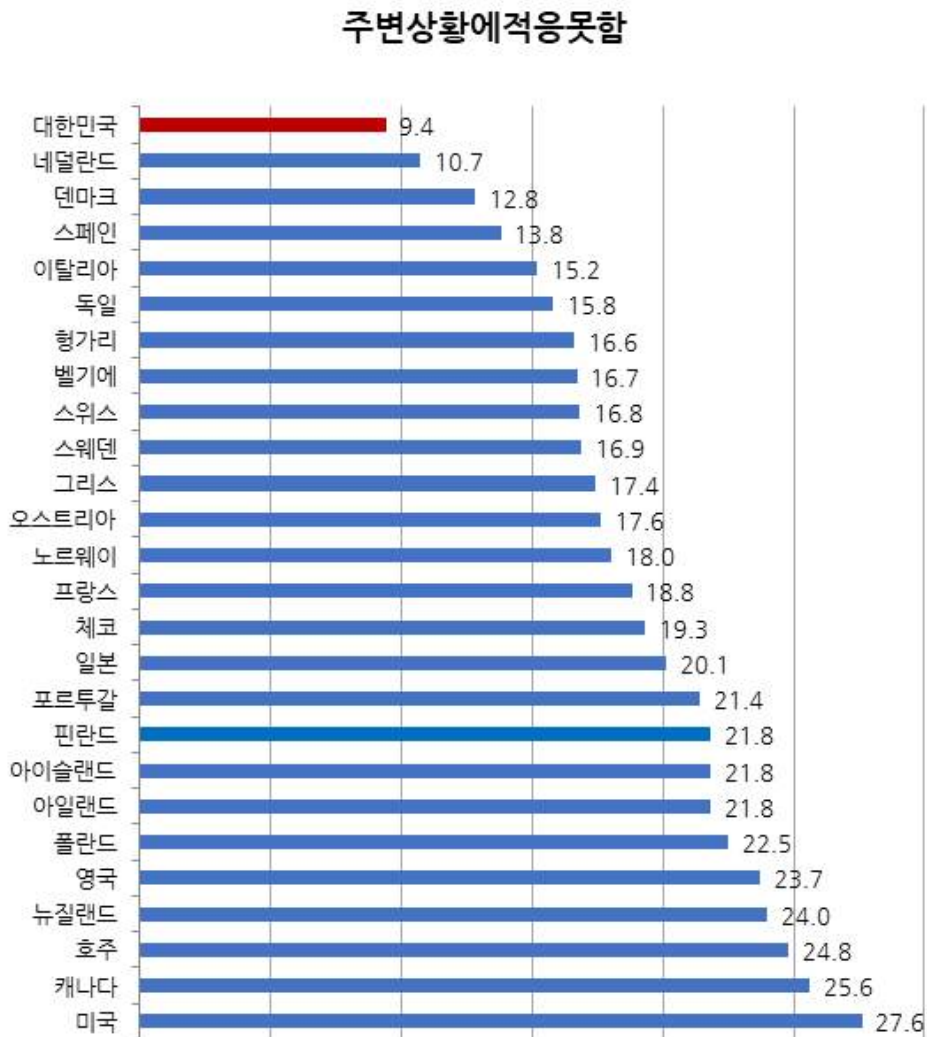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어울림

어울림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한국은 9.4%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35. 어울림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주변상황 적응 못함	18.9	4.0	9.4	9.4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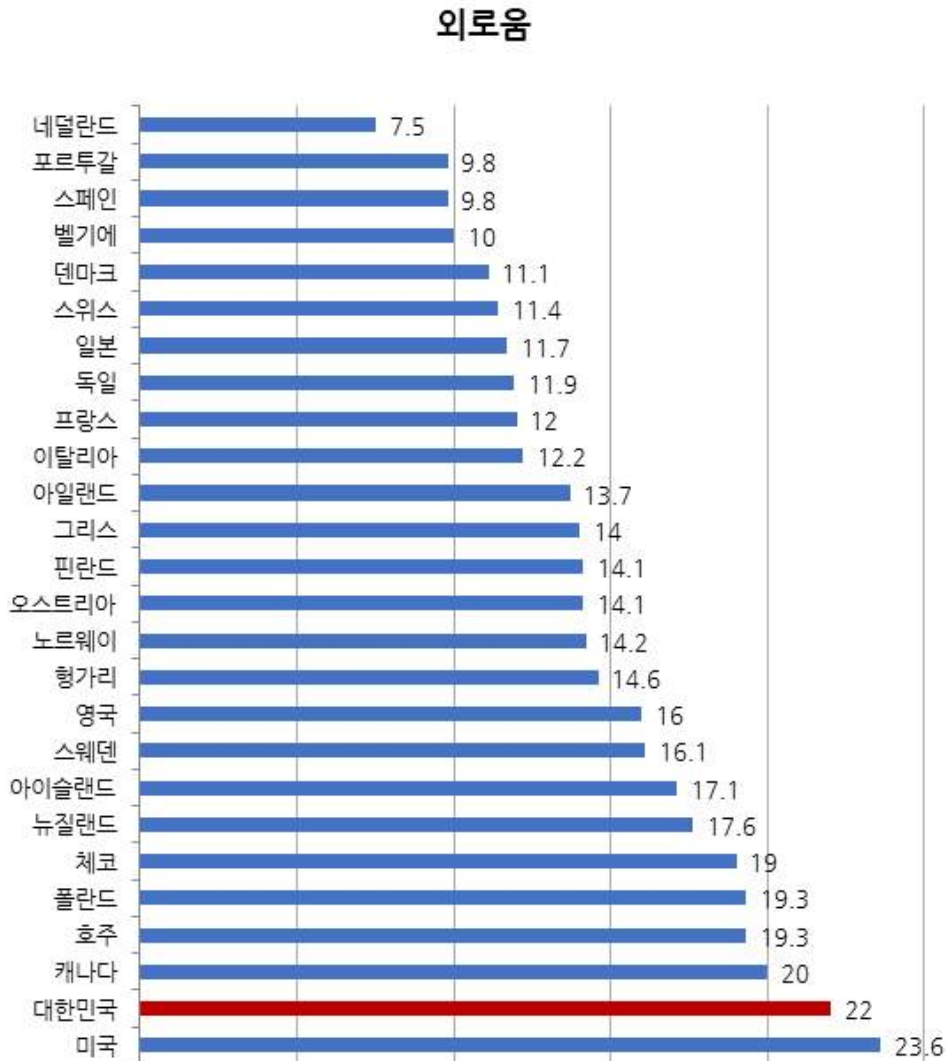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외로움

외로움 : : ‘다소’, 혹은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22.0%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37. 외로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외로움	14.7	4.0	7.5	22.0	23.6

제4장 물질 · 개인 · 관계적 가치와 주관적 행복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를 결코 억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억박지를 때마다 뺏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1.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로 관계적 요소를 꼽은 학생이 개인적, 물질적 요소를 꼽은 학생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관계적 가치의 하위 항목은 ‘동성친구’, ‘이성친구’, ‘화목한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가치에는 ‘건강’, ‘자유’, ‘종교’, ‘시간’ 등이 포함되며, 물질적 가치에는 ‘돈’, ‘성적 향상’, ‘자격증’이 포함되었다. 주관적 행복점수(이하 행복점수)는 ‘주관적 건강’, ‘학교 생활 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을 느끼지 않음’ 항목들에 대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다.

표4-1. 200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단위: 명)

2009년		주관적 행복점수(0~5점)		
		3점 이하	3점 초과 ~ 5점 이하	합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물질적 가치 (평균점수: 3.46)	503 (9.2%)	1,089 (19.9%)	1,592 (29.1%)
	개인적 가치 (평균점수: 3.57)	398 (7.3%)	1,061 (19.4%)	1,459 (26.7%)
	관계적 가치 (평균점수: 3.79)	451 (8.2%)	1,973 (36.0%)	2,424 (44.3%)
	합계	1,352 (24.7%)	4,123 (75.3%)	5,475 (100%)

* Pearson chi2(2) = 94.3374, p = 0.000

표4-2. 2021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단위 : 명)

2021년		주관적 행복점수(0~5점)		
		3점 이하	3점 초과 ~ 5점 이하	합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물질적 가치 (평균점수: 3.65)	662 (9.6%)	2,014 (29.1%)	2,676 (38.6%)
	개인적 가치 (평균점수: 3.87)	337 (4.9%)	1,594 (23.0%)	1,931 (27.9%)
	관계적 가치 (평균점수: 3.99)	309 (4.5%)	2,016 (29.1%)	2,325 (33.5%)
	합계	1,308 (18.9%)	5,624 (81.1%)	6,932 (100%)

* Pearson chi2(2) = 110.0183, p = 0.000 *2021 응답자 중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기타'라고 답한 335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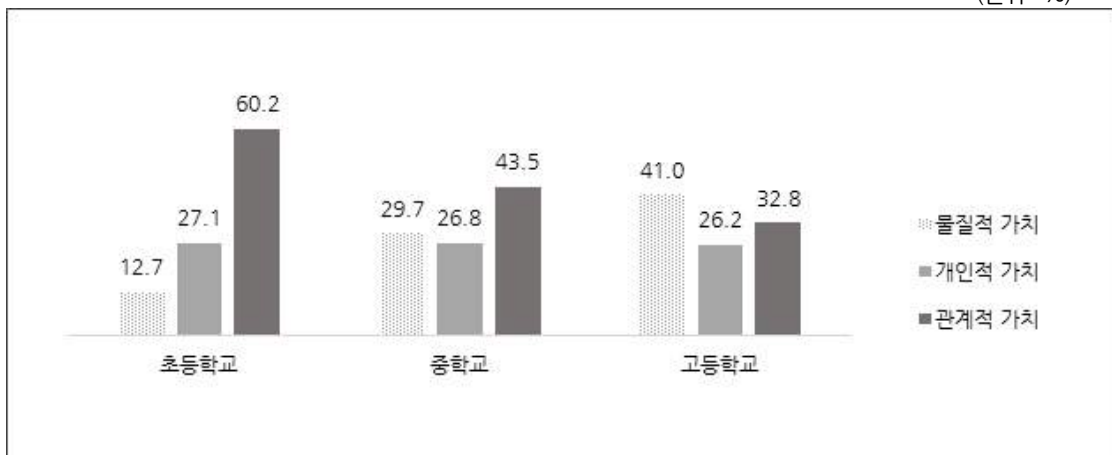
-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이 개인적, 물질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높았다. 2009년 대비, 2021년에 ‘개인적 가치’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믿는 학생들의 비율은 약 1% 증가하였으며,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의 비율은 약 11% 줄어든 반면, 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학생은 약 10% 증가하였다.

II. 2009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유형 분석

- 2009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가치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물질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는 서로 반대되는 증감양상을 보였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들고 물질적 가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했다.

그림4-1. 2009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

(단위: %)



- 2009년의 교급별 행복점수 비교이다. 주관적 행복의 6가지 하위 구성요소 평균값을 기준으로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3점 초과)과 행복점수가 낮은 그룹(3점 이하)으로 나누었다.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약 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6%, 고등학교 66%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4-2. 2009년 교급 별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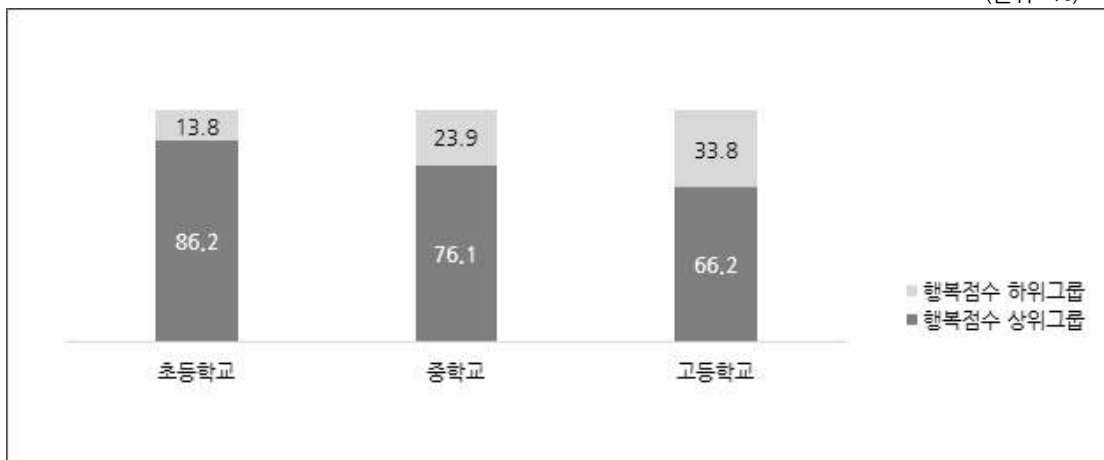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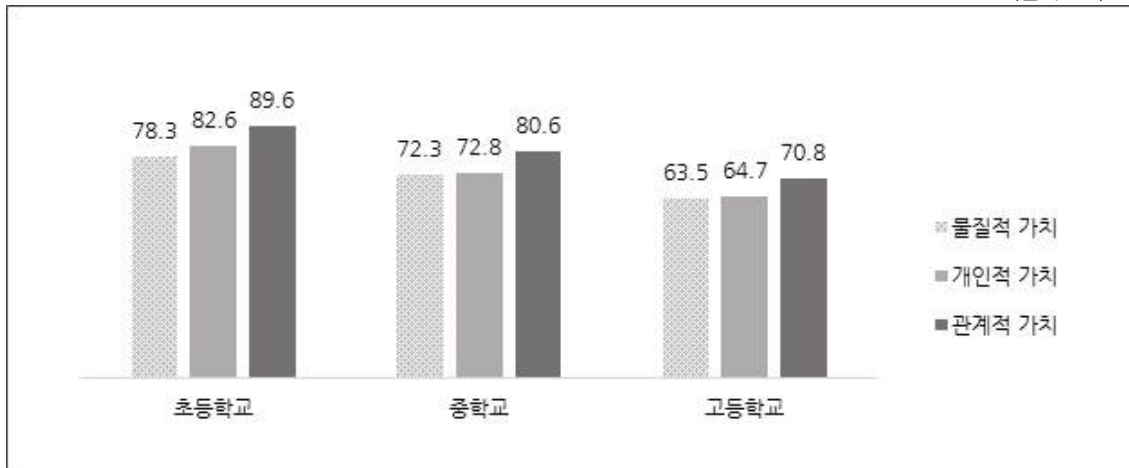


그림4-3.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가치별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

(단위: %)



-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요소로 선택한 가치에 따른 행복점수 상위그룹(3점 초과) 비율이다. 관계적 가치를 선택한 학생은 같은 교급 내에서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학생은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이 가장 적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물질적 가치인 경우 행복점수 상위그룹은 약 78%, 개인적 가치는 약 83%, 관계적 가치는 약 90%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생은 약 72%, 개인적 가치를 선호하면 약 73%, 관계적 가치를 선호하면 약 81%가 행복점수 상위그룹에 해당하였다. 고등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경향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으로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비율이 물질적 가치(64%), 개인적 가치(65%), 관계적 가치(71%) 순으로 증가하였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관계없이 확인되었다.

그림4-4. 2009년 교급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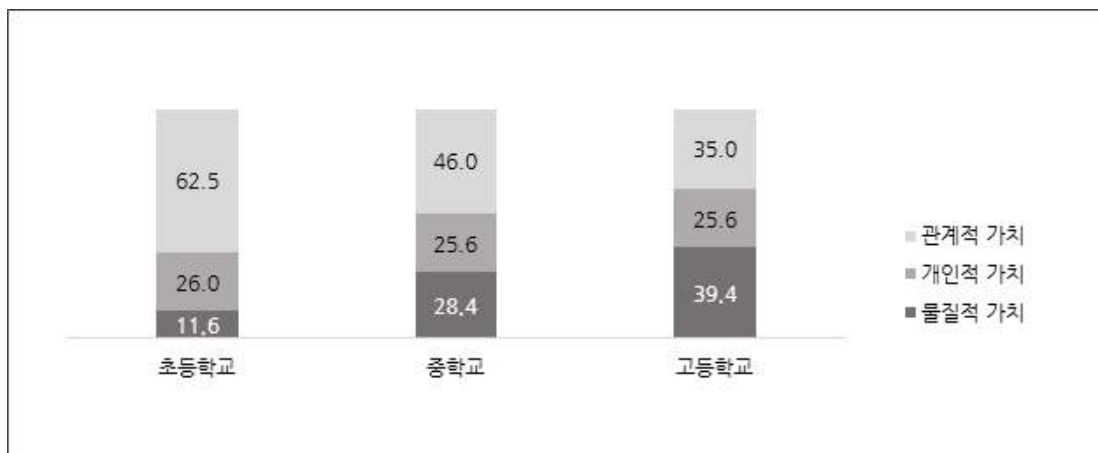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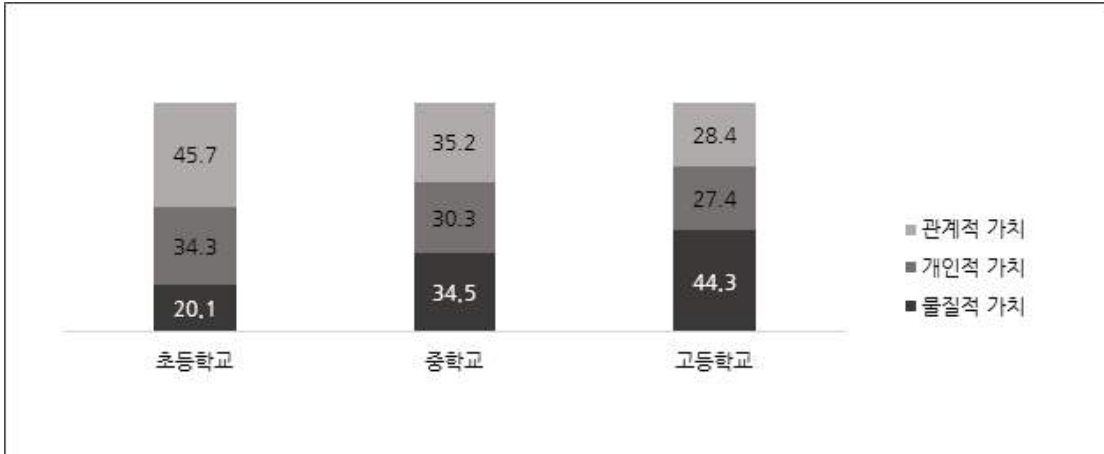


그림4-5. 2009년 교급별 행복점수 하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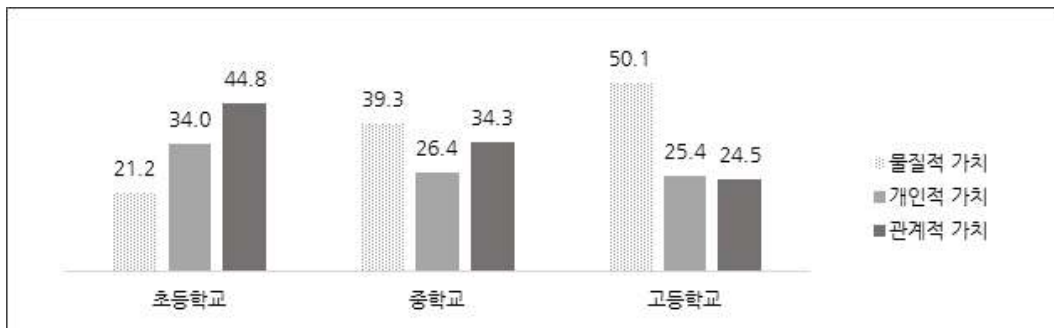


-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내에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에 필요한 가치로 무엇을 응답했는지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경우 개인적 가치의 응답비율은 교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행복점수 하위그룹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가치 응답비율이 감소하였다. 관계적 가치의 경우 행복점수 상위, 하위그룹 모두 교급이 올라갈수록 선호가 감소하였지만, 행복점수 상위그룹 내에서 감소폭이 더욱 컸다. 반면, 행복점수 하위그룹은 교급이 낮을 때부터 상대적으로 관계적 가치 선호가 적었기 때문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가치의 순위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은 행복점수 상위, 하위그룹 모두 관계적 가치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행복점수 상위, 하위그룹 모두 물질적 가치가 1순위로 나타났다.

- 2021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초등학교에서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가치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교급에 따라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 2009년과 마찬가지로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즉, 교급이 올라갈수록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든 반면,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늘어났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는 교급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물질적 가치 선호 비율이 약 10% 상승하였다

그림4-6. 2021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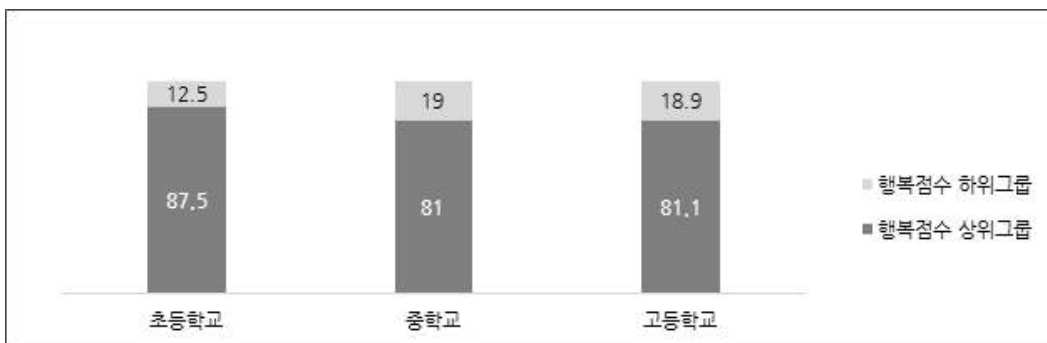
(단위 : %)



- 2021년의 교급별 행복점수 비교이다. 주관적 행복의 6가지 하위 구성요소 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3점 초과)과 행복점수가 낮은 그룹(3점 이하)으로 나누었다.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약 88%, 중학교 81%, 고등학교 81%로 초등학생 대비 중, 고등학생이 되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09년과 비교해 초등학생 중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고(86%→88%), 중학생 및 고등학생 중 행복점수 상위그룹 역시 증가하였다(중학생 76%→81%, 고등학생 66%→81%).

그림4-7. 2021년 교급별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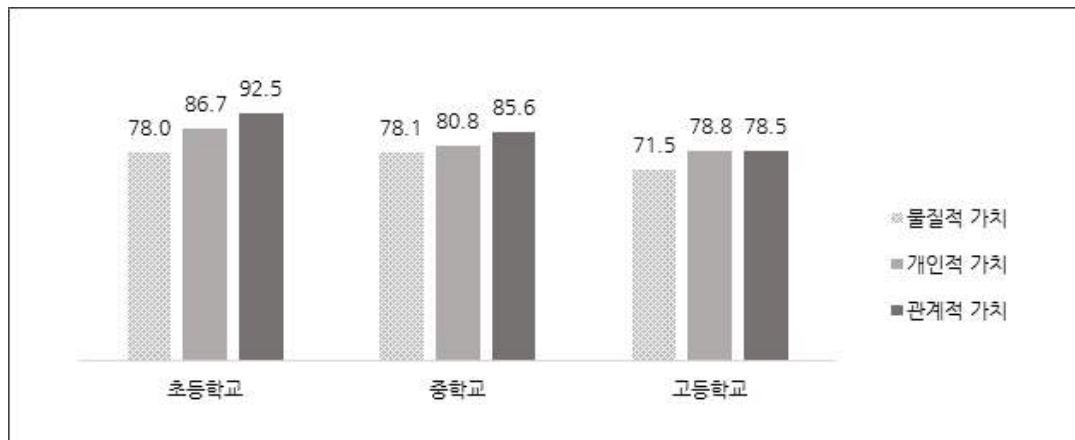
(단위 : %)



-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요소로 선택한 가치에 따른 행복점수 상위그룹(3점 초과) 비율이다. 관계적 가치를 선택한 학생은 같은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교급 내에서 가장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이 높았으며, 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학생은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이 가장 적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물질적 가치인 경우 행복점수 상위그룹은 약 78%, 개인적 가치는 약 87%, 관계적 가치는 약 92.5%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생은 약 78%, 개인적 가치를 선호하면 약 81%, 관계적 가치를 선호하면 약 86%가 행복점수 상위그룹에 해당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를 선택한 경우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이 비슷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비율은 선택한 가치별 각각 물질적 가치(72%), 개인적 가치(79%), 관계적 가치(79%) 등이었다. 2009년에 비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따라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이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8. 2021년 교급 및 행복에 필요한 가치별 행복점수 상위그룹 비율

(단위 : %)



-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내에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에 필요한 가치로 무엇을 응답했는지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2009년과 비교하여 2021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경우 개인적, 관계적 가치 모두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응답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행복점수 하위그룹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가치 응답비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2021년 물질적 가치에 대한 선호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행복점수 하위그룹에서 더 두드러졌으나, 행복점수 상위, 하위그룹 모두에서 물질적 가치에 대한 선호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4-9. 2021년 교급별 행복점수 상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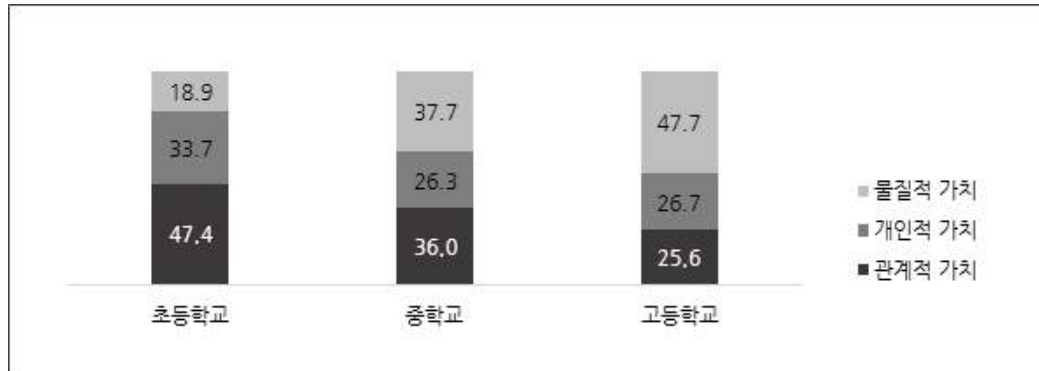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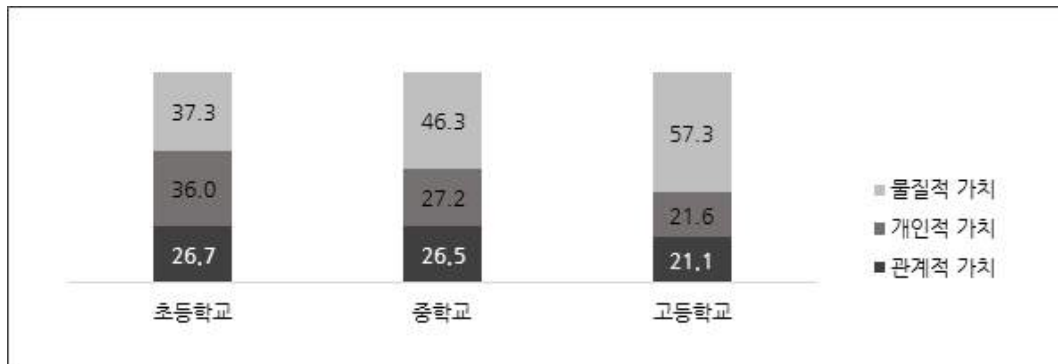


그림4-10. 2021년 교급별 행복점수 하위그룹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 선호도

(단위 : %)



제5장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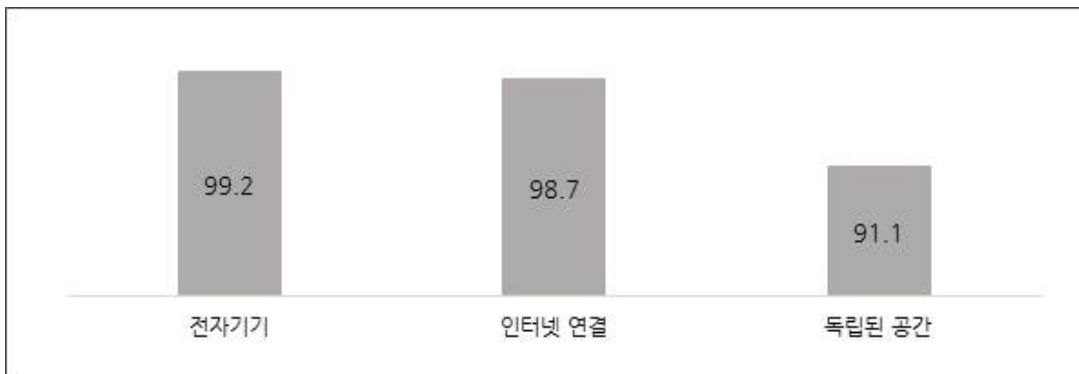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1. 가정 내 온라인 학습여건

- 코로나 시기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 참여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접근 등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1) 전자기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 (2) 인터넷 연결 (3)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림5-1. 가정 내 온라인 학습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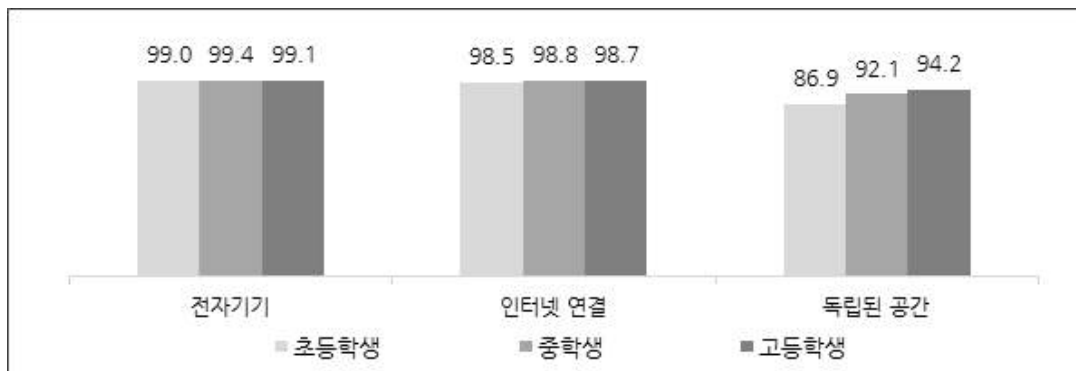
(단위 : %)



- 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 여건들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수업을 들을 독립된 공간은 다른 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5-2. 교급별 가정 내 온라인 학습여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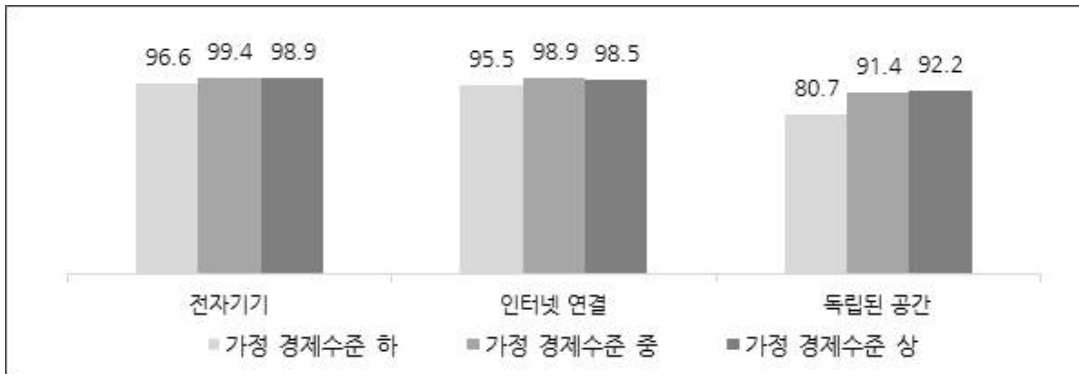


- 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자기기 및 인터넷 연결 마련 비율은 교급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독립된 공간 마련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 경제수준 하 집단의 경우 중/상 집단에 비하여 모든 학습여건 마련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독립된 공간 마련 비율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가정 경제수준 하에 속하는 학생은 독립된 공간 마련 비율이 80.7%인 반면, 경제수준 중/상 학생은 약 91~92% 정도가 독립된 공간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5-3.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가정 내 온라인 학습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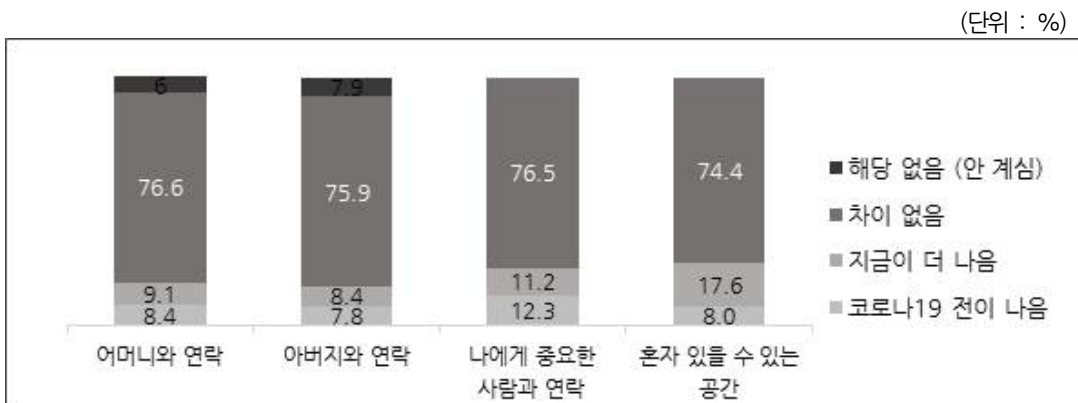
(단위 : %)



2. 코로나19 이후 가족과의 생활

-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서 코로나-19 이전이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1) 내가 원하는 만큼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다 (2) 내가 원하는 만큼 아버지와 연락할 수 있다 (3) 내가 원하는 만큼 중요한 사람과 연락할 수 있다 (4) 내가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등의 4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그림5-4.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 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즉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코로나-19 전후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전이 더 낫다는 응답의 비율과 지금이 더 낫다는 응답 비율에 있어서도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이 더 낫다는 응답이 17.6%로, 코로나-19 전이 낫다는 응답인 8%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5. 교급별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어머니와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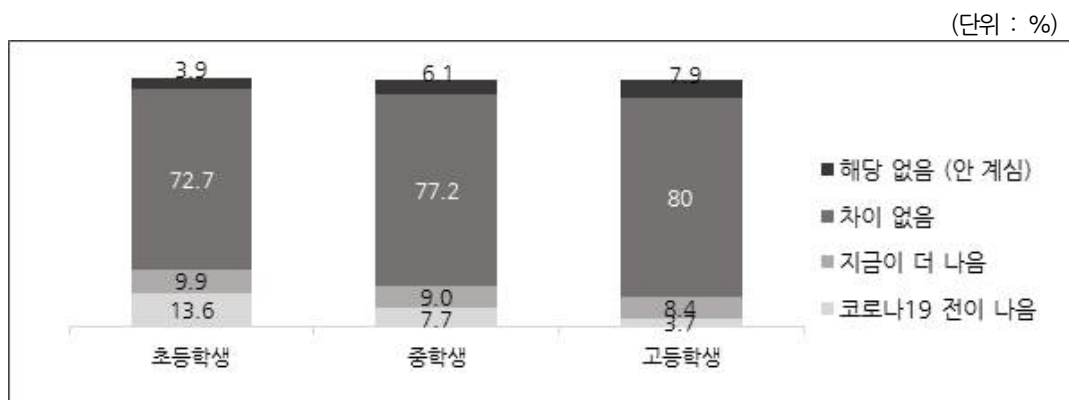


그림5-6. 교급별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아버지와 연락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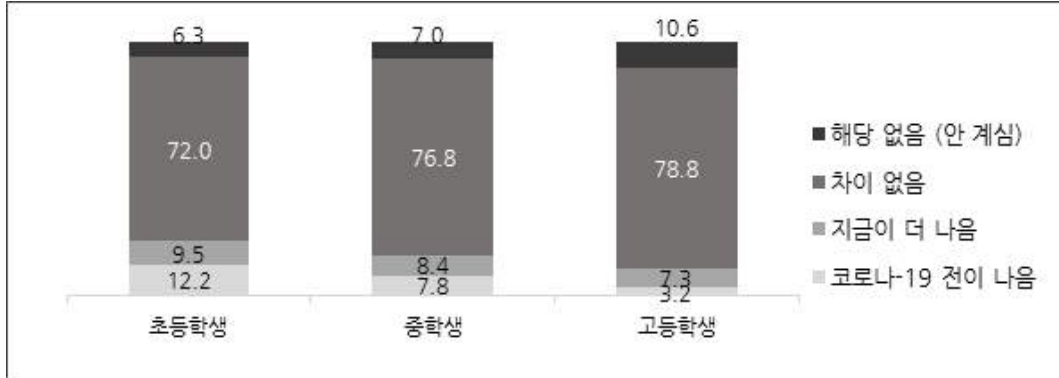


그림5-7. 교급별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연락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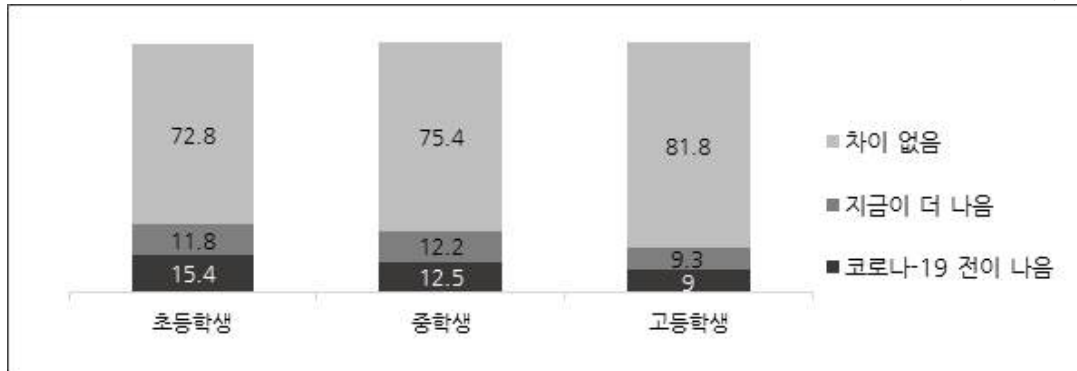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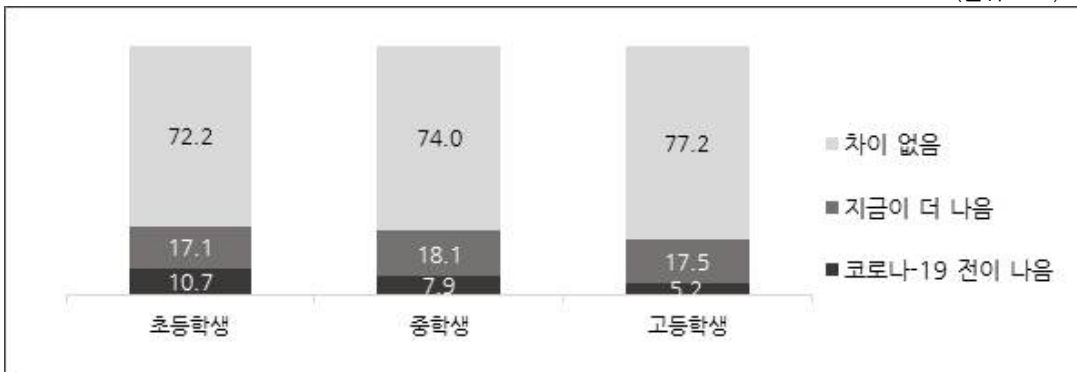


그림5-8. 교급별 코로나19 전후 가족과의 상황: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단위 : %)



- 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 아버지, 또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원하는 만큼 연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등학생은 코로나19 전이 더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중학생은 코로나19 전이 낫다는 응답과 지금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비슷하였고, 고등학생은 반대로 코로나19 전보다 지금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모든 교급에서 코로나19 전이 낫다는 응답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코로나19 전후 차이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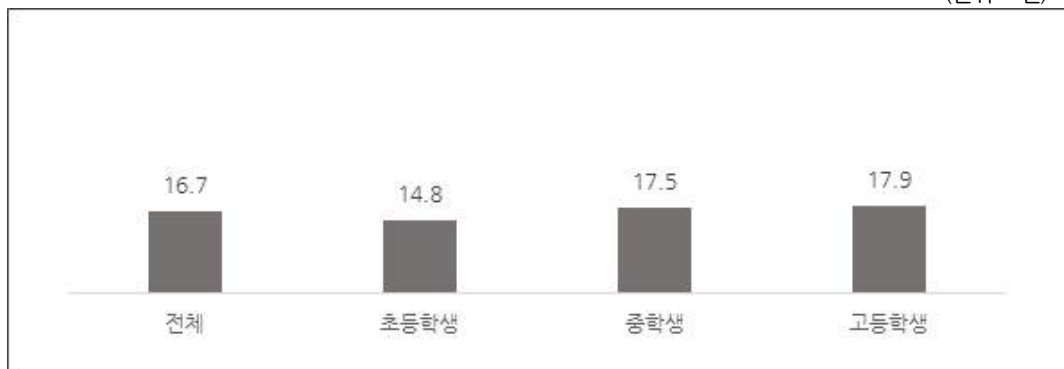
II. 코로나19 이후 등교일수 및 학업 스트레스

1.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 학교 등교일수는 “코로나 이후인 지난 1년간을 돌아보았을 때, 방학이 아닌 학교 학기 중에 한 달에 며칠이나 학교에 갔나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0~31일 사이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한 것이다.

그림5-9.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전체 및 교급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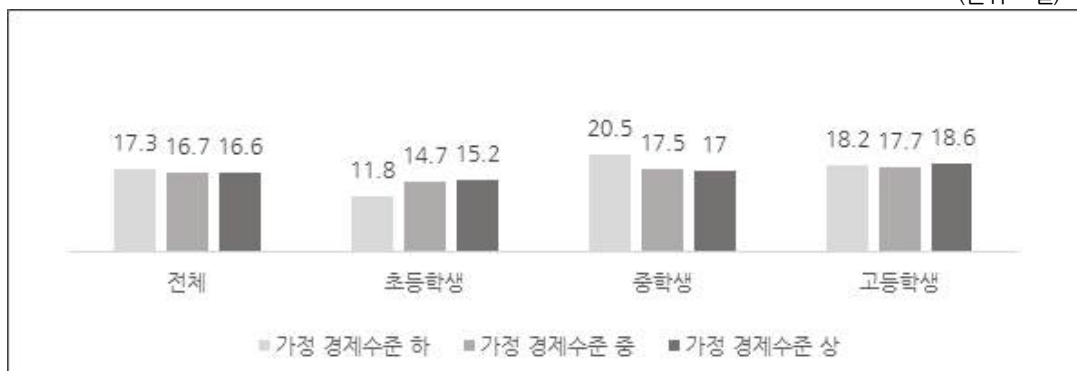
(단위 : 일)



- 조사 결과, 학생들은 한달에 평균 16.7일 등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평균 14.8일로 가장 등교일수가 적었고, 중학생 평균 17.5일, 고등학생 평균 17.9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등교일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5-10.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전체 및 교급별 평균

(단위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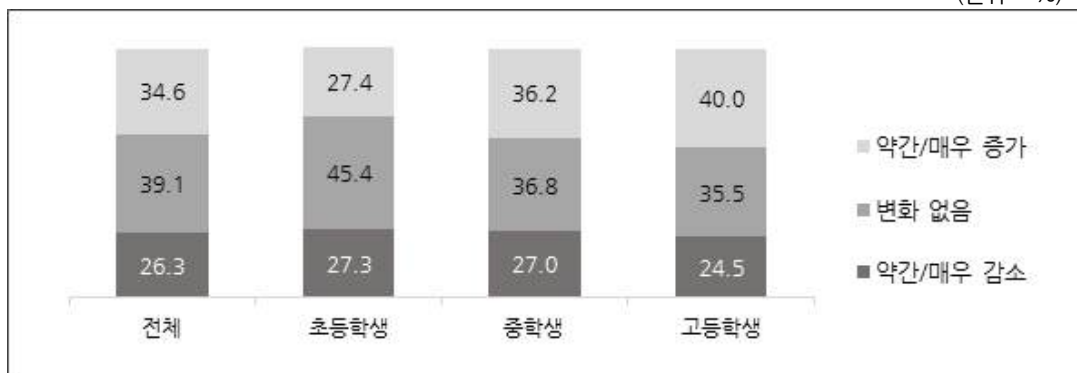
- 한편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교급별 코로나19 이후 학교 등교일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교급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월 평균 등교일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교급을 나누어 살펴보면 교급별 추이가 상당히 다른데,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등교일수가 오히려 많아졌고, 중학생의 경우는 반대로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등교일수가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2.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업 스트레스

-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실시 되는 등 여러 교육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1) 매우 감소하였다’부터 ‘5) 매우 증가하였다’까지 다섯 가지 보기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그림5-11.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전체 및 교급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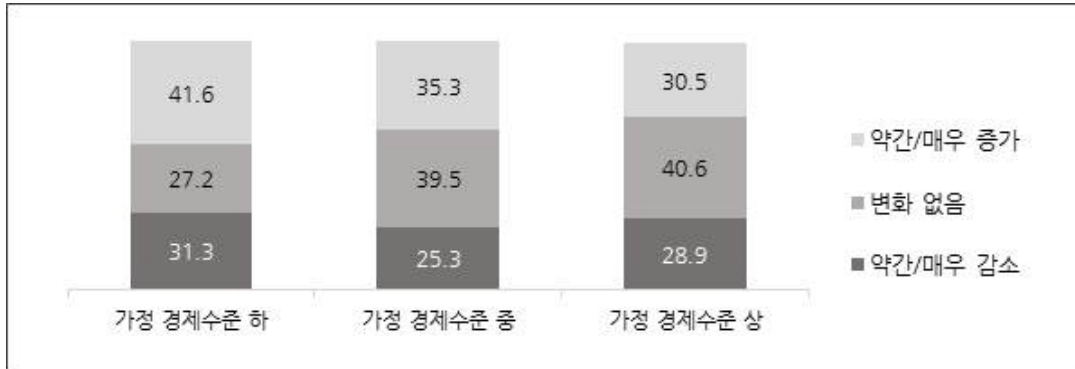
(단위 : %)



-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전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매우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34.6%, 반대로 약간/매우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26.3%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초등학생은 코로나19 전후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응답과 증가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거의 비슷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무려 40%에 달한 반면,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다.

그림5-12.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단위 : %)



-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 경제수준 하에 속하는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과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다른 경제수준 중/상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반면 가정 경제수준 중/상에 속하는 학생은 코로나19 전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져,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5-13. 초등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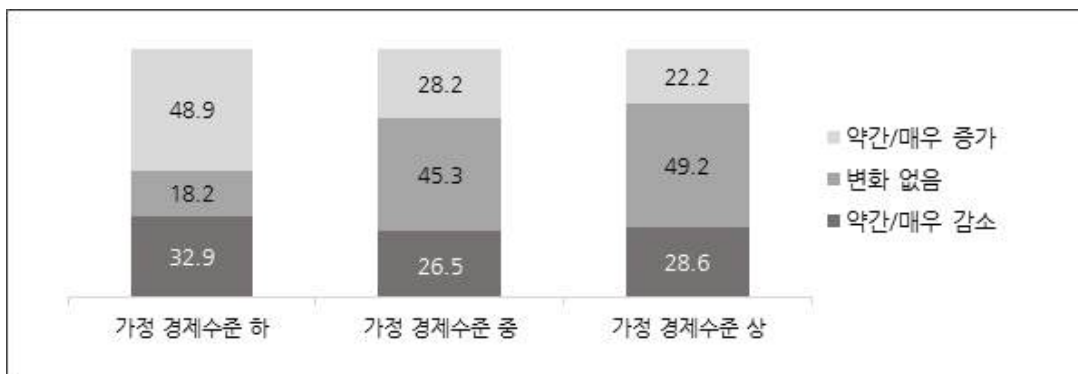


그림5-14. 중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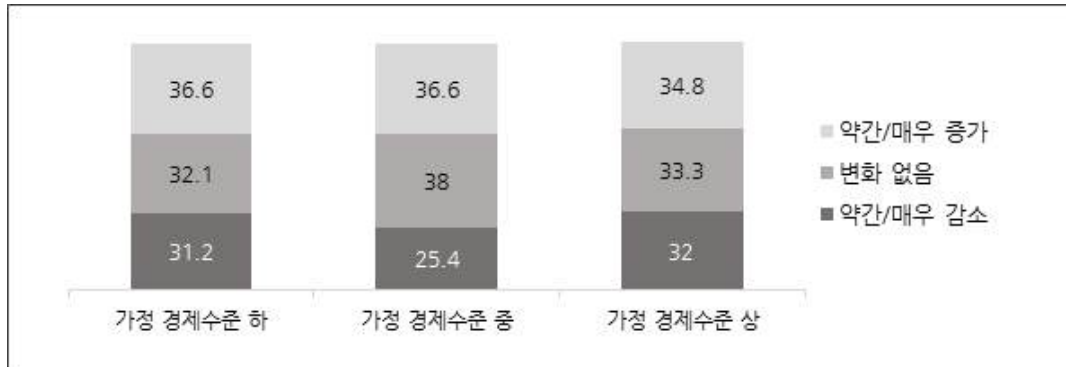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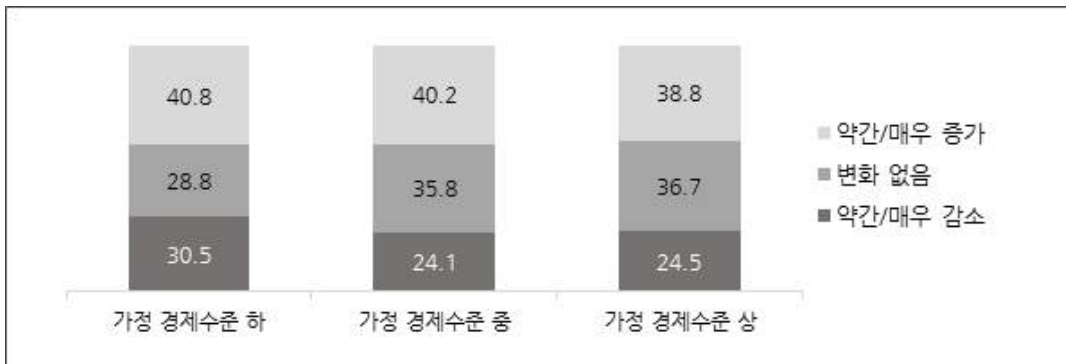


그림5-15. 고등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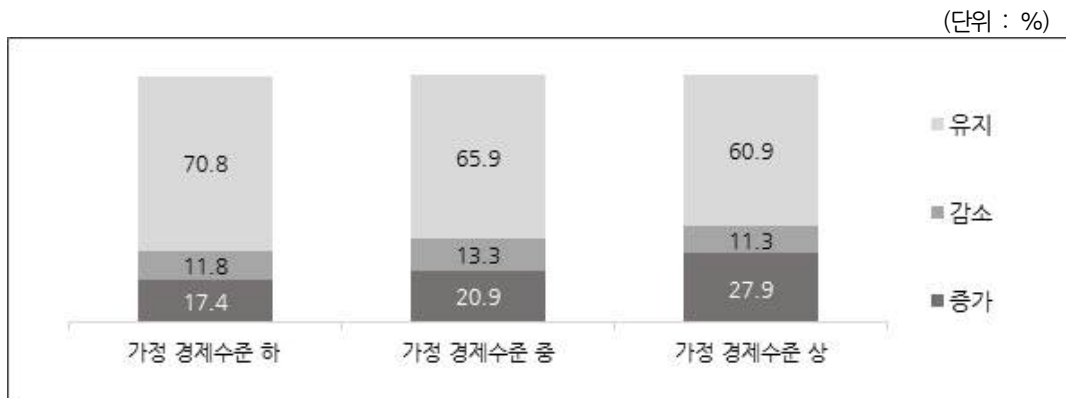
- 교급을 나누어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 경제수준 하에 속하는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무려 48.9%였으나, 가정 경제수준 중/상에 속하는 학생은 해당 응답 비율이 각각 28.2%, 22.2%였던 반면, 코로나19 전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각각 45.3%, 49.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Ⅲ.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격차

1.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증가/감소/유지 비율

- 코로나19 이후 사교육을 받는 시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이전보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라는 질문에 ‘늘었다’, ‘줄었다’, ‘그대로다’의 세 가지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그림5-16.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 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7.4%가 사교육 시간 증가, 11.8%가 사교육 시간 감소를 응답한 반면, 가정 경제수준 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7.9%가 증가, 11.3%가 감소라고 응답하였다. 즉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감소 비율은 가정 경제수준별 큰 차이가 없었고, 유지 비율은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이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1$).

그림5-17. 초등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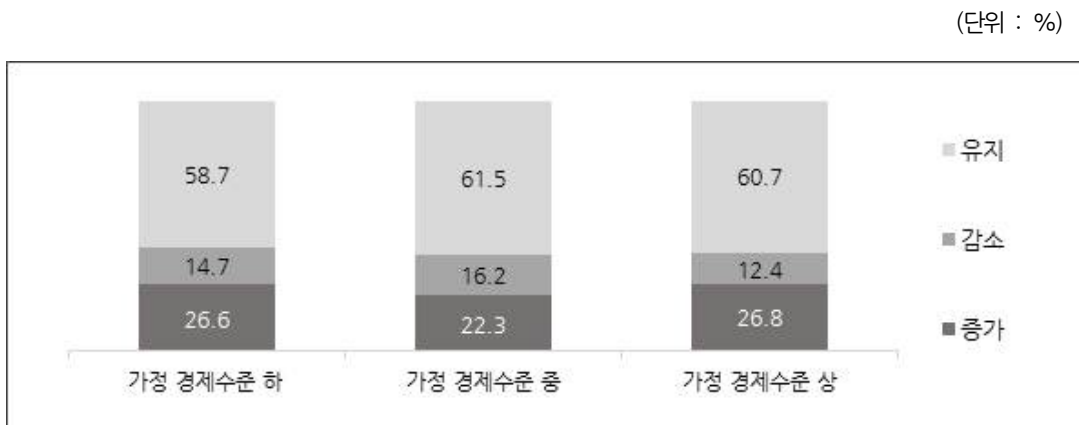


그림5-18. 중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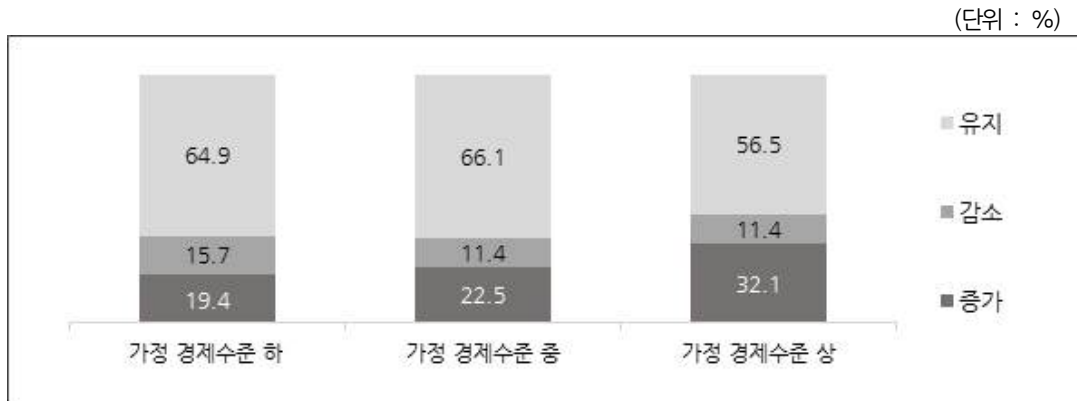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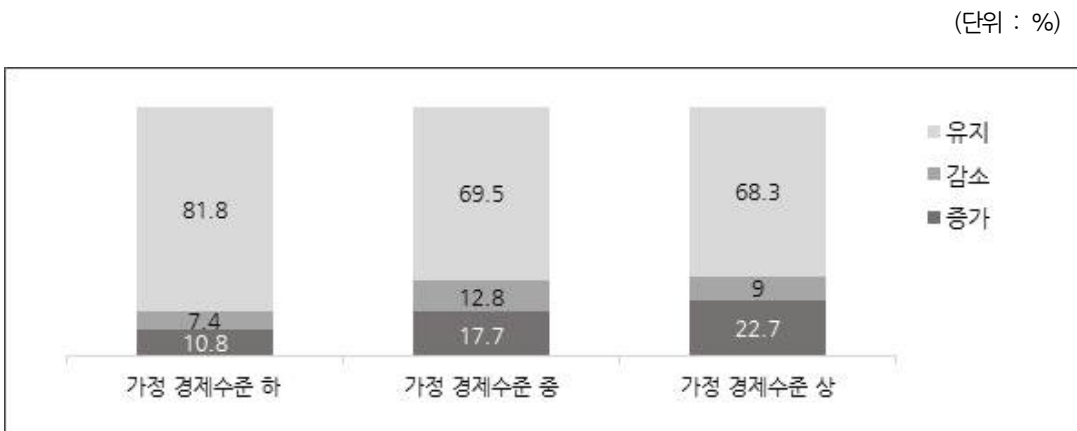


그림5-19. 고등학생: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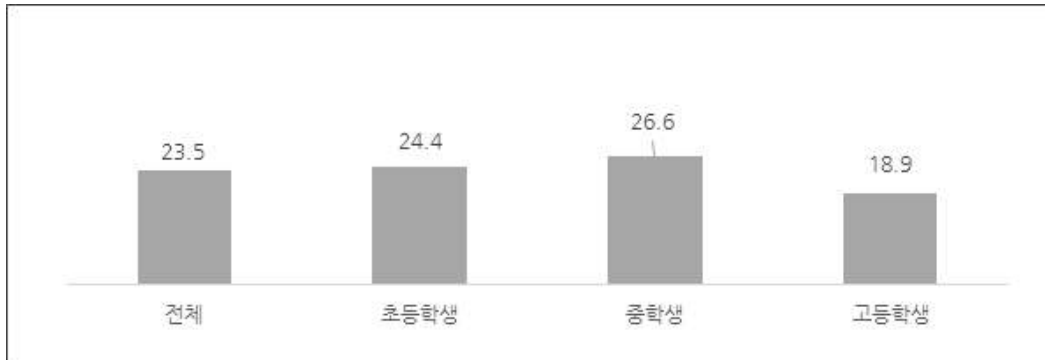
- 교급을 나누어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사교육 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 경제수준 하와 상 집단에서 사교육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가정 경제수준과 사교육 시간 변화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p = 0.5499$). 반면 중학생의 경우 가정 경제수준 하 집단 학생 중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19.4%였으나, 가정 경제수준 중 집단에서는 22.5%, 상 집단에서는 32.1%로 가정 경제수준과 사교육 시간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1$).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시간 증가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 = 0.1450$).

2.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분 단위 환산

-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를 증가/감소/유지로 나누어 질문한 다음, 사교육 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그 정도를 1주일 단위 시간, 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를 분 단위로 환산하여 도출하였는데, 예컨대 사교육 시간이 10분 증가한 경우에는 +10, 2시간 감소한 경우에는 -120, 변화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한 다음 집단 간 평균을 계산하였다. 다만 응답 중 극단치(outlier)가 있고 도출되는 평균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상, 하위 각 1% 값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림5-20.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분 단위 환산): 전체 및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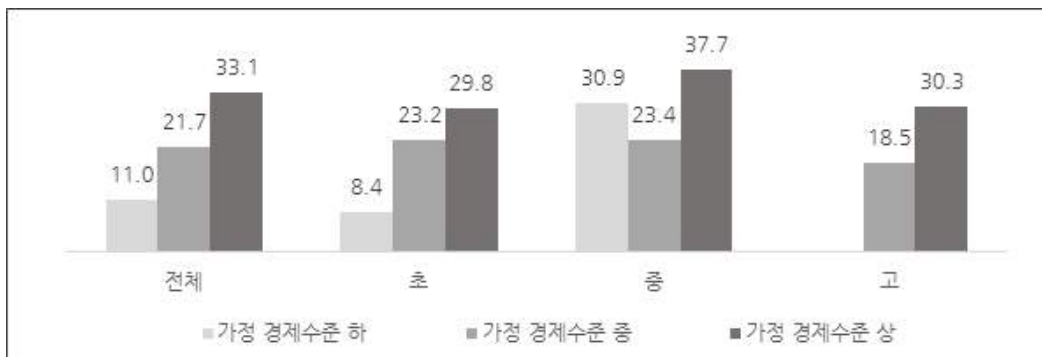
(단위 : 분/일주일)



-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간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일주일에 23.5분 사교육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을 나누어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평균 24.4분, 중학생은 평균 26.6분 증가한 반면, 고등학생은 18.9분 증가하여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5-21.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분 단위 환산): 전체 및 교급별

(단위 : 분/일주일)



-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 및 교급별 코로나-19 사교육 시간 변화를 분 단위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사교육 시간 변화 차이가 확인되었고, 가정 경제수준 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일주일 평균 11분 사교육 시간이 증가한 반면, 가정 경제수준 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일주일 평균 33.1분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였고, 경제수준 하-상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9$).
- 교급을 나누어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초등학생의 경우 경제수준 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일주일 평균 8.4분, 중에 해당하는 학생은 23.2분, 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29.8분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였다. 회귀분석을 토대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 경제수준 하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자신의 경제수준을 하로 응답한 학생의 수가 58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수준 중 집단과 상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중학생의 경우 경제수준 하 집단의 학생들에게서 일주일 평균 30.9분의 사교육 시간 증가가 관찰되었고, 상 집단에서 37.7분이 증가한 반면, 중 집단에서 23.4분만 증가하여 비교적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사교육 시간 변화 양상이 뚜렷하지 않았고,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고등학생의 경우 경제수준 하 집단 학생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이 2.5분 감소하였으며, 중 집단에서는 18.5분, 상 집단에서는 30.3분 증가하여 대비를 보였다. 또한 집단 간 차이에 있어서도 하-중, 하-상 집단 간 사교육 시간 변화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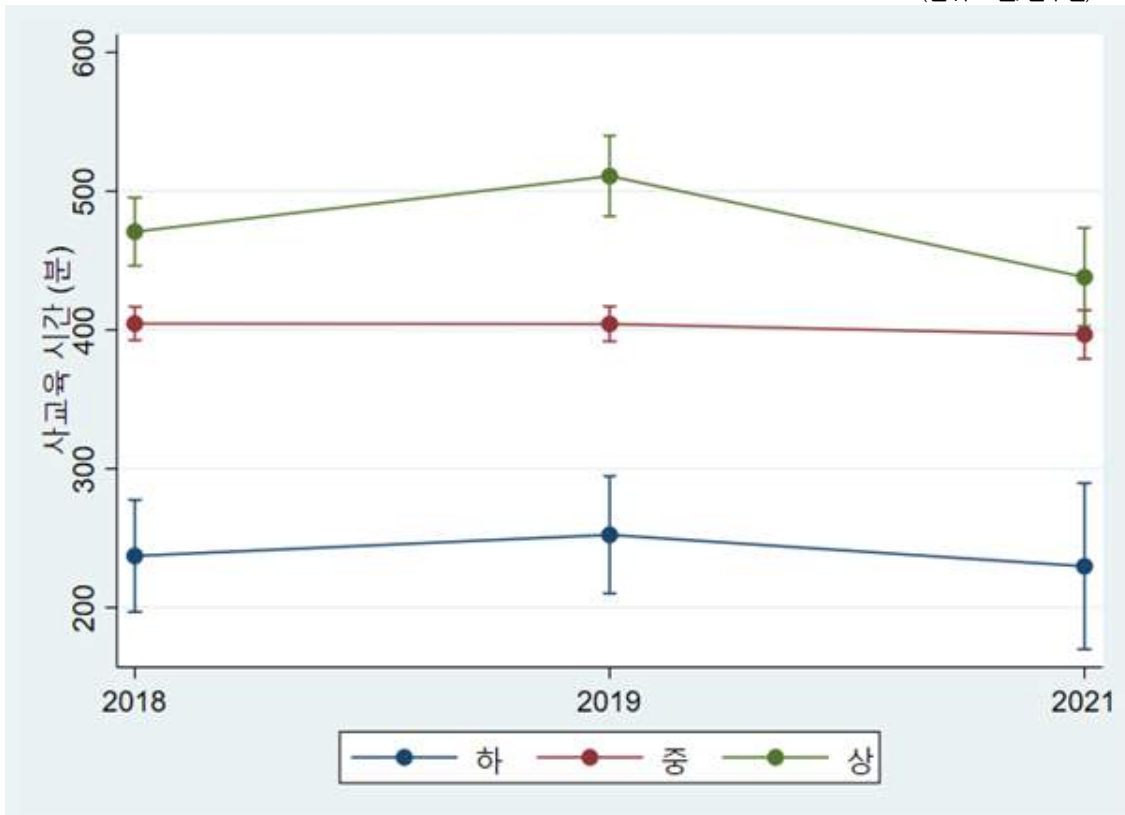
Ⅳ. 코로나19와 계층별 격차: 2018~2021 비교 분석

1. 코로나19 전후 사교육 시간 변화: 2018, 2019, 2021년 조사자료 분석

- 앞선 분석결과는 2021년 응답자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라는 점에서, 같은 응답자 내(within-respondent)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격차가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요인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해 조사시기별, 주관적 경제수준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18, 2019, 2021년 행복지수 조사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사교육 시간 변화가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분으로 환산된 사교육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사교육 시간이 0인 것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성별, 지역, 교급 및 학년, 거주지역 규모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조사년도와 상/중/하로 구분된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이다. 분석에는 연도별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림5-22.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2018, 2019, 2021년 비교

(단위 : 분/일주일)



- 분석 결과 코로나19 전인 2018년이나 2019년 대비, 2021년 주관적 경제수준별 사교육 시간은 이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 그림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속변수인 사교육 시간 추정값을 경제수준 및 조사년도별로 계산한 그래프이며, 각 추정값(점)의 상하로 뻗은 막대는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관적 경제수준 중, 하 집단은 코로나19 전이나 후의 사교육 시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상 집단은 2019년보다 2021년 사교육 시간이 감소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사교육 시간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코로나19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면 그 효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2. 코로나19 전후 주관적 경제수준별 성적 격차

- 지금까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관적 경제수준별 사교육 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다면, 그것이 경제수준별 성적 격차로 이어졌는지가 실제로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전후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적 격차가 확대되었는지 아닌지 2018, 2019, 2021년의 행복지수 자료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 조사자료에서 성적 변수 결측이 매우 많아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부록1. 설문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문1.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
(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 1) 1~10권 2) 11~25권
3) 26~100권 4) 101~200권
5) 201~500권 6) 501권 이상
7) 전혀 없다

문2.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태블릿, PDA 등 포함)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3.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4로)

문3a.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나요?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시간 분

문3b.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input type="text"/>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input type="text"/>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input type="text"/>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input type="text"/>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input type="text"/>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input type="text"/>

문3c.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전화통화 2)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포함)
3) 게임 4) 학습
5) 웹 검색(교통, 뉴스, 날씨 등) 6) 동영상 감상
7)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8) 기타 _____

문4.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5로)

문4a.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1) 매일 2) 1주일에 5~6회
3) 1주일에 3~4회 4) 1주일에 1~2회
5) 거의 하지 않았다

문4b.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등)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세요.

보기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게임을 못하게 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input type="text"/>
2) 나는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input type="text"/>
3)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input type="text"/>
4) 나는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린다	<input type="text"/>
5) 나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input type="text"/>

■ 다음은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지난 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6.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이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input type="text"/>
2)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input type="text"/>

문12. 다음은 친한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내 자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2)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3)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4)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5)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7) 내 친구들과 나의 학교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지난 학년)	
8) 나와 내 친구들의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13.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칸에 모두 ✓ 표시
해 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1) 친아버지(아빠) | <input type="checkbox"/> 2) 친어머니(엄마) |
| <input type="checkbox"/> 3) 친할아버지(아빠의 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4) 친할머니(아빠의 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5) 외할아버지(엄마의 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6) 외할머니(엄마의 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7) 새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8) 새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9) 남자형제(형, 오빠, 남동생) | <input type="checkbox"/> 10) 여자형제(언니, 누나, 여동생) |
|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_____ | <input type="checkbox"/> 12) 동거가족 없음 |

문14. 아래 각 항목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일
주일(7일)에 몇 일 정도 함께 하나요? 응답칸에 '0~7
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응답칸에 숫자 "9"를 기
입해 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일주일에 며칠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2) 어머니와 일주일에 며칠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일주일에 며칠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4) 아버지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 시간을 내나요?	일
5) 어머니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 시간을 내나요?	일

문15.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
새)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
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6.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7.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1) 전혀 좋지 않다 2) 별로 좋지 않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6) 해당사항 없음

문18.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2년제 대학교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7) 학교를 다닌 적 없음 9) 안 계심

문19.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을 빈칸으로 두시거나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무직/기타 9) 안 계심

문20. 평소에 부모님과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1) 학교 및 학원생활 2) 공부와 성적
3) 친구관계 4) 미래 진로와 직업
5) 취미와 여가활동 6) 기타 _____
9) 안 계심

■ 다음 질문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1.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기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22.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1) 매우 행복하다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5) 모르겠다

문23a. 평소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만약 '별로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공부가 재미있을 때/공부할 때
2) 성적이 좋을 때
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4) 부모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5)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6)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7) 기타 _____

문23b.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2)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3)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4)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6)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7) 기타 _____

문24.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고른다면 어디인가요?

- 1) 집 2) 학교
3) 학원 4) 친구와 모이는 장소
5) 동아리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7) 기타 _____ 8) 특별히 없다

문25.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1) 매우 불행하다 2) 약간 불행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행복하다
5) 매우 행복하다

문26.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1) 건강 | 2) 돈 |
| 3) 성적 향상 | 4) 동성 친구 |
| 5) 이성 친구 | 6) 화목한 가족 |
| 7) 자유 | 8) 종교 |
| 9) 자격증(기술 등) | 10) 기타 _____ |

문27. 다음 항목을 읽고 "1) 예 2) 아니오"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 주세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 먹나요?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한 날수는 며칠 인가요?	일
4)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6)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7)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8)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9) 최근 12개월동안 마약/분드를 흡입한 적이 있나요?	
10)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11)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문28.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0으로)
- 2) 1~2번 있다
- 3) 3~4번 있다
-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29a. 무슨 문제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1) 부모님과 갈등 |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
| 5) 친구들과의 갈등 | 6) 성적 하락 |
| 7) 주위의 무관심 |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 9) 기타 _____ | |

문29b. 가출을 실행해 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문30.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2로)
- 2) 1~2번 있다
- 3) 3~4번 있다
-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31a.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1) 부모님과 갈등 |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
| 5) 친구들과의 갈등 | 6) 성적 하락 |
| 7) 주위의 무관심 |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 9) 기타 _____ | |

■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32. 학교나 집 근처 등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심각한 편이다
- 5) 매우 심각하다

문33. 다음은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입니다. 이 중 본인 주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빼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 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 8) 없음

문34. 최근 1년간 위와 같은 종류의 학교폭력 중 하나라도 직접 당한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35로)

문34a. 최근 1년간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번

문34b. 최근 1년간 나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폭력을 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문34c. 최근 1년간 어떠한 종류의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해당번호를 모두 골라 □안에 ✓표 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빼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문34d. 최근 1년간 어디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당했던 곳 모두 골라 □안에 ✓표 해 주세요.

- 1) 교실
- 2) 복도
- 3) 화장실
- 4) 공원
- 5) 등하굣길
- 6) 운동장이나 사람 없는 곳
- 7) 기타 _____

문34e.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0)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
- 1) 부모님께 알렸다
- 2) 학교에 알렸다(담임선생님 등)
- 3) 친구들에게 알렸다
- 4)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 신고하였다
- 5)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 6) 기타 _____

문35.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37로)

문36a.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번

문36b. 최근 1년간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문37.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금전적인 부분)



문38. 다음 다섯 가지 과목의 성적에 대해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배우지 않음
	1	2	3	4	5	6

	응답칸
1) 국어	<input type="text"/>
2) 영어	<input type="text"/>
3) 수학	<input type="text"/>
4) 사회	<input type="text"/>
5) 과학	<input type="text"/>

문39. 주중(학교가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시간 분

2)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	
3)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문48. 다음은 코로나 19 이후 가족과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응답을 골라 응답 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코로나 19 이전이 더 나음	지금 더 나음	차이 없음	해당 없음
	1	2	3	4

	응답칸
1) 내가 원하는 만큼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다	
2) 내가 원하는 만큼 아버지와 연락할 수 있다	
3)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연락할 수 있다	
4) 내가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문49. 지난 1년간을 돌아보았을 때, 방학이 아닌 학교 학기 중에 한 달에 며칠이나 학교에 갔나요? 일

문50. 코로나 19 이전보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 1) 늘었다 (→ 문51a로) 2) 줄었다 (→ 문51b로) 3) 그대로다 (설문 종료)

문51a. 일주일에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늘었나요? 시간 분

문51a. 일주일에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줄었나요? 시간 분

♣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문1.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
(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 1) 1~10권 2) 11~25권
3) 26~100권 4) 101~200권
5) 201~500권 6) 501권 이상
7) 전혀 없다

문2.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태블릿, PDA 등 포함)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3. 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또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4로)

문3a.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나요?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시간 분

문3b.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문3c.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1) 전화통화 2)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포함)
3) 게임 4) 학습
5) 웹 검색(교통, 뉴스, 날씨 등) 6) 동영상 감상
7)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8) 기타 _____

문4.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5로)

문4a.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 1) 매일 2) 1주일에 5-6회
3) 1주일에 3-4회 4) 1주일에 1-2회
5) 거의 하지 않았다

문4b.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등)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세요.

보기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1) 나는 게임을 못하게 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 2) 나는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 3)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 생각하며 보낸다
- 4) 나는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린다
- 5) 나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 다음은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지난 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6.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의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1)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 2)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 방금 문11에서 “아주 친한 친구 **명” 이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 한명 한명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문12. 먼저 아래 박스에 아주 친한 친구 이름(또는 별명)을 친한 순서대로 최대 7명까지 써 주세요.
이름이나 별명을 쓰기 불편하면 그냥 A, B, C, D ...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문12a. 이 친구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문12b. 이 친구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12c. 이 친구의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12d. 이 친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 관계에 동시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시하세요.

친구 한명 한명에 대해 각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 보기 안에 표시해 주세요.

문12. 친한 친구의 이름/별명 또는 A, B, C...	문12a. 이 친구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문12b. 이 친구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12c. 이 친구의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12d. 이 친구와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 관계에 동시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시하세요.
1) 친구1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학교친구 <input type="checkbox"/> 2) 학원친구 <input type="checkbox"/> 3) 동네친구 <input type="checkbox"/> 4) 어릴 적부터 친구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2) 친구2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학교친구 <input type="checkbox"/> 2) 학원친구 <input type="checkbox"/> 3) 동네친구 <input type="checkbox"/> 4) 어릴 적부터 친구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3) 친구3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학교친구 <input type="checkbox"/> 2) 학원친구 <input type="checkbox"/> 3) 동네친구 <input type="checkbox"/> 4) 어릴 적부터 친구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4) 친구4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학교친구 <input type="checkbox"/> 2) 학원친구 <input type="checkbox"/> 3) 동네친구 <input type="checkbox"/> 4) 어릴 적부터 친구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5) 친구5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학교친구 <input type="checkbox"/> 2) 학원친구 <input type="checkbox"/> 3) 동네친구 <input type="checkbox"/> 4) 어릴 적부터 친구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6) 친구6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학교친구 <input type="checkbox"/> 2) 학원친구 <input type="checkbox"/> 3) 동네친구 <input type="checkbox"/> 4) 어릴 적부터 친구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7) 친구7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학교친구 <input type="checkbox"/> 2) 학원친구 <input type="checkbox"/> 3) 동네친구 <input type="checkbox"/> 4) 어릴 적부터 친구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문13. 다음은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2)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3)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4)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5)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7) 내 친구들과 나의 (지난 학년) 학교선생님은 잘 알고 있다	
8) 나와 내 친구들의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은 서로 잘 알고 있다	

■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14.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칸에 모두 ✓ 표시해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1) 친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2) 친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3) 친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4) 친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5) 외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6) 외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7) 새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8) 새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9) 남자형제 | <input type="checkbox"/> 10) 여자형제 |
|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_____ | <input type="checkbox"/> 12) 동거가족 없음 |

문15. 아래 각 항목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일주일(7일)에 며칠 정도 함께 하나요? 응답칸에 '0~7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응답칸에 숫자 "9"를 기입해 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일주일에 며칠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2) 어머니와 일주일에 며칠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일주일에 며칠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4) 아버지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 시간을 내나요?	일
5) 어머니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 시간을 내나요?	일

문16.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7.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8.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1) 전혀 좋지 않다 2) 별로 좋지 않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6) 해당사항 없음

문19.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2년제 대학교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7) 학교를 다닌적 없음 9) 안 계심

문20.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을 빈칸으로 두시거나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무직/기타 9) 안 계심

문21. 평소에 부모님과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1) 학교 및 학원생활 2) 공부와 성적
 3) 친구관계 4) 미래 진로와 직업
 5) 취미와 여가활동 6) 기타 _____
 9) 안계심

■ 다음 질문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2.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23.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1) 매우 행복하다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5) 모르겠다

문24a. 평소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만약 '별로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공부가 재미있을 때/공부할 때
 2) 성적이 좋을 때
 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4) 부모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5)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6)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7) 기타 _____

문24b.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2)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3)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4)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6)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7) 기타 _____

문25.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고른다면 어디인가요?

- 1) 집 2) 학교
 3) 학원 4) 친구와 모이는 장소
 5) 동아리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7) 기타 _____ 8) 특별히 없다

문26.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1) 매우 불행하다 2) 약간 불행하다
- 3) 보통이다 4) 약간 행복하다
- 5) 매우 행복하다

문27.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건강 2) 돈 3) 성적 향상
- 4) 동성 친구 5) 이성 친구 6) 화목한 가족
- 7) 자유 8) 종교 9) 자격증(기술 등)
- 10) 기타 _____

문28. 다음 항목을 읽고 "1) 예 2) 아니오"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 주세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input type="checkbox"/>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 먹나요?	<input type="checkbox"/>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한 날수는 며칠 인가요?	일
4)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5)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6)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7)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input type="checkbox"/>
8)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9) 최근 12개월동안 마약/본드를 흡입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10)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11)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12) 오토바이를 타 본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13)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 본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14)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 문29로 건너 가세요.)	<input type="checkbox"/>
14a) [성관계를 가져봤다면] 가장 최근에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였나요?	<input type="checkbox"/>
14b) [성관계를 가져봤다면] 아이를 갖게 한 적, 혹은 낳은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문29.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가출은 부모님이나 보호자 허락 없이 의도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집을 떠나 최소한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 1) 전혀 없다 (→ 문31로)
- 2) 1~2번 있다
- 3) 3~4번 있다
-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30a. 무슨 문제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문30b. 가출을 실행해 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문31.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3으로)
- 2) 1~2번 있다
- 3) 3~4번 있다
-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32a.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3. 학교/집근처 등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 4) 약간 심각한 편이다 5) 매우 심각하다

문34. 다음은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입니다. 이 중 본인 주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 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 8) 없음

문35. 최근 1년간 위와 같은 종류의 학교폭력 중 하나라도 직접 당한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36으로)

문35a. 최근 1년간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번

문35b. 최근 1년간 나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폭력을 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문35c. 최근 1년간 어떠한 종류의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해당번호를 모두 골라 안에 표 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문35d. 최근 1년간 어디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당했던 곳 모두 골라 안에 표 해 주세요.

- 1) 교실
- 2) 복도
- 3) 화장실
- 4) 공원
- 5) 등하굣길
- 6) 운동장이나 사람 없는 곳
- 7) 기타 _____

문35e.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0)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
- 1) 부모님께 알렸다
- 2) 학교에 알렸다(담임선생님 등)
- 3) 친구들에게 알렸다
- 4)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 신고하였다
- 5)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 6) 기타 _____

문36.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38로)

문37a.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번

문37b. 최근 1년간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문38.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금전적인 부분)



문39. 주중(학교)는 낮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시간 분

문40. 주말(학교가 없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시간 분

문4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예
- 2) 아니오 (→ 문42로)

문41a.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학원, 과외
 - 2) 가정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 3)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4) 채팅, 문자 메시지
 - 5)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 (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 6)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 7) 기타 _____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4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 주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 | | |
|-----------------------------------|--|
|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4)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0)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2)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5) 멋있거나 예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문43. 현재 자신의 키가 얼마인가요? cm

문44.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kg

문45. 부모님(친척 포함)에게 받는 한달 용돈은 얼마나 되나요? 원

문46. 한달 동안 지출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원

문47. 2020년 2학기 기말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은?
반 전체인원 명 중 등

문48. 자신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2년제 대학교졸업
5) 4년제 대학교졸업 6) 대학원 이상

■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9.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는 등 여러 교육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 1) 매우 감소하였다 2) 약간 감소하였다 3) 변화 없다
4) 약간 증가하였다 5) 매우 증가하였다

문50. 현재 자신의 집에 다음의 것들이 갖추어져 있나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2)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	
3)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문51. 다음은 코로나 19 이후 가족과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응답을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코로나 19 이전이 더 나음	지금이 더 나음	차이 없음	해당 없음
	1	2	3	4

응답칸	
1) 내가 원하는 만큼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다	
2) 내가 원하는 만큼 아버지와 연락할 수 있다	
3)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연락할 수 있다	
4) 내가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문52. 코로나 이후인 지난 1년간을 돌아보았을 때, 방학이 아닌 학교 학기 중에 한 달에 며칠이나 학교에 갔나요? 일

문53. 코로나 19 이전보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1) 늘었다 2) 줄었다 3) 그대로다
(→ 문54a로) (→ 문54b로) (설문 종료)

문54a. 문54b. 코로나 19 이전보다 일주일에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늘었나요? 시간 분

문54b. 코로나 19 이전보다 일주일에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줄었나요? 시간 분

♣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록2

1922~1923 어린이날 선언



미동초등학교 4학년 이종근 (2017년)

어린이날 선언

‘어린이’, ‘어린이날’ 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많은 사람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련한 어린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에서 어린이 운동을 펼쳤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의 어린이 사랑과 그가 몸을 던져 했던 모든 활동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걸고 오늘보다 내일에 사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운동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셨던 겁니다. 더욱 의미 깊은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인권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922년 ‘어린이의 날’ 선언,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의 취지와 함께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른들에게 쓰는 글, 어린이에게 쓰는 글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이 훗날 아동권리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창시자 에글렌타인 쥘 여사가 1923년 만든 아동권리선언의 초안이 1924년 국제연맹(현 유엔)에서 제네바선언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보다 1년 앞선 일이어서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는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동했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 선언문, 국제사회가 어린이의 존엄성을 인식하기 전부터 아동권리의 선구자인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의 조화로운 전인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이 9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 큰 파도



□ 1922년 어린이의 날 선언

‘천도교소년회’는 창립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때 ‘어린이날’ 선전문을 배포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방정환 선생님이 작성했거나 혹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

- 一.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하지 말아 주십시오.
- 二.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 三.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 四.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 五.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六. 나쁜 구경은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 주십시오.
- 七.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街路 趣旨宣傳

자동차대의창가대로난호야
자살 어린이의 날의 대선언

천도교소년회(天道敎少年會)를 창설한 것이 유서하여 그 최초의 소년보호운동(少年保護運動)이 실시됨에 따라 그 후의 소년보호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되리라 기대하며 어린이날의 창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날의 날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어린이날의 날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어린이날의 날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電車衝空

삼십일 밤에
동구압해서

光復軍의 소사들

근원남(軍源南) 덕원정철(德源正哲) 등
원(源) 김명원(金明源) 대원(大元) 광복군(光復軍)을
명(明) 외산(外山)의 독립(獨立)을
하(下)는 밤(夜)에(에) 최(最)후(後)의(의)
대(大)장(將)인(인) 최(最)후(後)의(의)
대(大)장(將)인(인) 최(最)후(後)의(의)
대(大)장(將)인(인) 최(最)후(後)의(의)

천도교소년회(天道敎少年會)를 창설한 것이 유서하여 그 최초의 소년보호운동(少年保護運動)이 실시됨에 따라 그 후의 소년보호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되리라 기대하며 어린이날의 창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날의 날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어린이날의 날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어린이날의 날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 1923년 어린이날 기념 선전물 : 소년운동의 선언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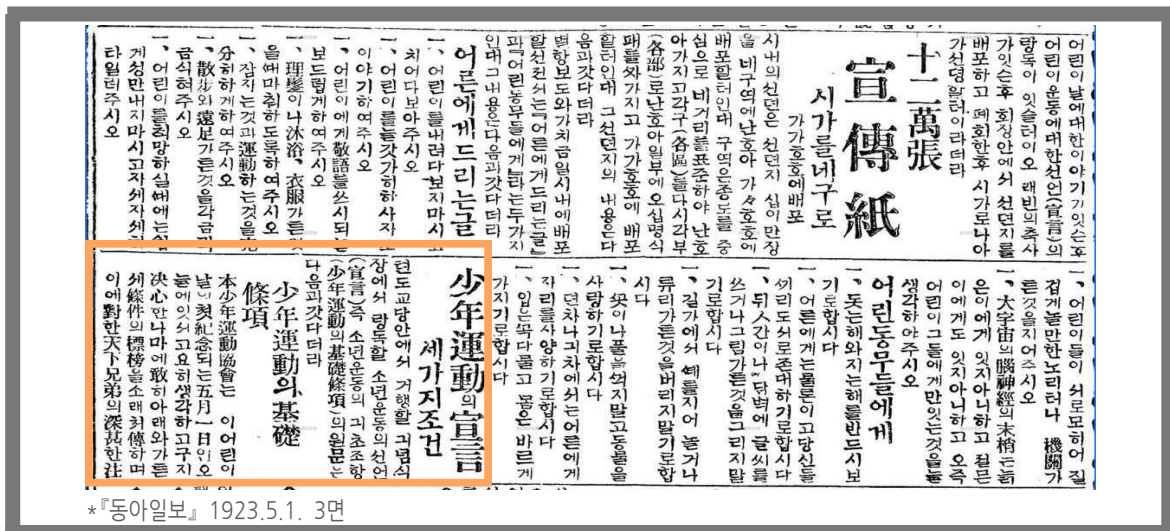
이 선전문은 1923년 5월1일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어린이날’ 기념 선전물입니다. 이것은 1924년 국제아동권리선언인 ‘제네바선언’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 취지 : 젊은이나 늙은이는 일의 희망이 없다. 우리는 오직 나머지 힘을 다하여 가련한 우리 후생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자.

소년운동의 선언 세 가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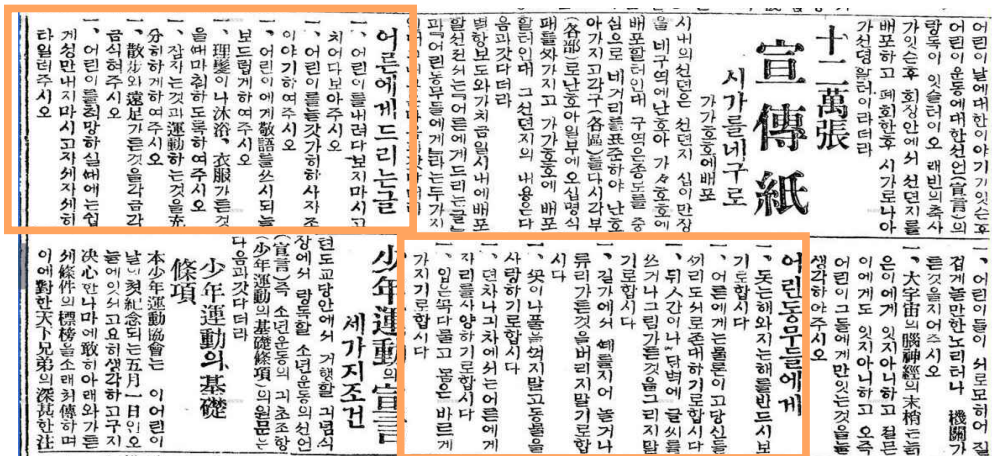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어린 동무들에게

- 一.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 一.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 一. 뒋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 一. 길가에서 때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一.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一.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一.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동아일보』 1923.5.1. 3면

어른에게 드리는 글

- 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 一.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 一.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 一.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 一.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 一. 산보와 원족 가튼 것을 가끔 가끔 시켜주시오.
- 一.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一.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 一.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이날의 약속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짝입니다. 뿌리가 근본이 되고 위에 올라앉아서 짝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짝을 위하여 그 나무는 썩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욕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욕박지를 때마다 뺏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들입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제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제7회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논문공모전

| 주최 | (재)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주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 후원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청소년 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정환재단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를 제안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의 후원으로 2009년부터 매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하는 양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과학자료원(www.kosssa.or.kr)을 통해 지금까지의 조사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조사연구학회(www.kasr.org)와 함께 <제1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우수논문을 발표하고 시상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은 12년간(코로나19로 2020년 조사연구-일시중단) 누적된 행복지수 조사자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여 시작된 것으로 <제7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 대학원생 및 학부생,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저 가능
- 참가신청방법 : 공개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A4용지 5매 이하, 자유양식의 연구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시상 : 학술대회 발표 및 상금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추진일정은 한국방정환재단과 한국조사연구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2018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 학술대회

안녕하십니까?
추계 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일정

	중회의실B	소회의실4	소회의실3
10:30 ~ 12: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세션	사회과학1	
13:30 ~ 15:20	선거여론조사의 쟁점과 개선방안	조사방법론	
15:30 ~ 15:50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		
16:00 ~ 17:50	빅데이터와 통계빅데이터센터	사회과학2	제4회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공모전 논문 발표 및 시상식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한국방정환재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53길 5 솔방 3층 우)04309
P 02-322-5515 F 02-322-5452 E happy@children365.or.kr <https://children365.or.kr>